



성도의 벚 10
1978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대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통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차례

| | | |
|-----------------------------------|----------------|-----|
| 제148 연차 대회 보고 | 3 | |
|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3 |
| 다들 시간이 없으니다 |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8 |
| 하나님의 딸 |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12 |
| “동트니 날이 밝는다”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 15 |
| “진리를 알찌니”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 18 |
| 1977년도 통계 보고 | | 23 |
|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 | 25 |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 26 |
| 신앙의 기도 |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 28 |
| 어린이의 생활을 살찌우는 초등협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 32 |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장로 | | 36 |
|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 조지 피리 장로 | 39 |
| 결정 |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 43 |
| “나 혼자서 이자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 | |
|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 | 46 |
|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 | |
|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 | 47 |
| “신을 들매라” |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 51 |
| “내 원대로 마음시고...” | 로버트 엘 심슨 장로 | 54 |
| 계시 | 헨리 디 테일러 장로 | 57 |
| 신권의 책임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60 |
| 추천 반기에 합당한 자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 64 |
|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강화함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69 |
| 기도와 계시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75 |
| “여호와를 의뢰하라” | 엘 톰 페리 장로 | 79 |
| “진리가 무엇이냐” | 존 에이치 박데버그 장로 | 83 |
| 성공적인 결혼생활 | 오 레슬리 스토크먼 장로 | 87 |
|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 고든 비 힐클리 장로 | 91 |
|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 | 마크 이 피터슨 장로 | 95 |
| 영적 지도자를 구하라 | 진 알 쿡 장로 | 99 |
| 성공을 안겨 주는 시기 | 스털링 더블류 실 장로 | 102 |
| “힘써 노력하며” | 조셉 앤더슨 장로 | 106 |
| 구세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 109 |
| 무엇보다 소중한 것 | 로버트 엘 백만 장로 | 111 |
|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임 | 렉스 시 리브 장로 | 113 |
| 그리스도의 재림 |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 114 |
| 예언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라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18 |
|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23 |
| 창고 자원 제도 |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 128 |
| 노년기에 대비함 |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 132 |
| 나부터 복지 사업을 |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 135 |
| 사랑의 안식처 | 빅터 엘 브라운 감독 | 138 |
| 주님의 방법대로 |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141 |
| 우리는 주님의 정지기입니다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 147 |
| 최고의 법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 149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 152 |
| 대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 | | 154 |
|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55 |
| 지역 지도자 메시지 | 김 장선 | 162 |
| 지역소식 | | 163 |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 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권 제159호, 제14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78년 10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경 회장인: 유진 피터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내 구자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159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8 연차 대회 보고

1978년 4월 1, 2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개최된 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들 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
아...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 지어다”(교리와
성약 1:1)

이같이 힘차게 교리와 성약 첫머리의
계시처럼 교회 본부 대회의 영적인 메
시지가 전달되었다. 금년도 4월 대회,
공식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회 제 148 연차 대회라고 칭하는 이번
대회는 종전의 대회와 마찬가지로 영
적인 대회였다.

이 대회의 모든 모임은 스펜서 더블
류 캠불 대관장의 감리하에 진행되었으
며, 토요일 오전 첫번째 전체 모임에서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
름받을 네 명의 새로운 형제에 대한 역
원 지지를 물었다. 캠불 대관장은 또한
계보 사업의 역사적인 “두 가지 강조 사
항”을 발표하였다. 그는 회원에게 개인 역사 기록을 작성하고 친목회에 참여할 것과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할

것”을 권고 하셨다. “원하면” 완수되어
야 하는 것 이상으로 계보를 탐구할 수
있다. 4대 프로그램을 재강조하는 동
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인 “계보 기록에
서 이름을 찾아내는 범교회적인 프로그
램”이 발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11명의 총관리 역원 지역 관
리자, 183명의 지역 대표, 900명의 스
테이크부장을 위시하여 전세계에서 많
은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모임은 4월 1일 토요일과 4월 2
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으며, 총
66명의 총관리 역원 중 32명이 말씀을
전하였다. 4명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 다시 추가됨에 따라 정원회의
수는 47명으로 늘었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로널드 이 포
울멘 장로, 영국의 베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로버트
엘 빼먼 장로와 렉스 시 리브 일세 장
로이다. (이들의 약력이 78년 9월호 성

도의 벗에 나와 있다.)

대회 모임은 텁풀 스퀘어의 태버내를
에서 열렸으며, 어셈블리 홀과 솔트 펠
러스에 추가로 좌석이 마련되었다. 모
임은 토요일 오전 7시(부지 모임), 오
전 10시, 오후 2시와 7시(신권회),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렸다.

대회의 일부 또는 전체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전세계 여러
지역으로 중계되었다. 미국내에 215개
텔레비전 방송국과 125개 케이블 시스
템으로 중계되었고 라디오로는 미국내
에 51개 방송국, 라틴 아메리카에 75
개 방송국, 오스트레일리아에 44개 방
송국을 통하여 중계되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하나의 단
파 방송이 나갔고, 유럽과 미국의 331

개 예배당으로 폐쇄회로를 통하여 방송
되었고 유럽에서는 7개의 에프 엠과 68
개의 예배당에서 방송되었으며 신권회
는 폐쇄 회로를 통하여 1,360 지역으로
방송되었다.

이를 동안의 일반 총회 이외에도 지
역 대표 세미나가 3월 31일 금요일에
교회 본부 건물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
에서 김볼 대관장은 각 스테이크에서는
“해마다 두 차례의 스테이크 대회만을”
가질 것도 발표하셨으며, 1979년부터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대회를 가질 예정이
라고 발표하셨다. 김볼 대관장은 교회
정책 및 행정에 관계되는 문제, 간소화
작업, 계보 및 선교 사업에 관한 중요한
지시 사항을 발표하셨다.

—편집자— *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다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교회에 혼신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결음의 폭을 넓히라”고 권하였고 지금도 계속하여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호응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과 마당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채소밭을 가꾸라는 권고에 따라 행하여서 우리는 적어도 식품과 필수품의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물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능한 채소를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유실수 등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후가 적합한 곳에서는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에 채

소를 심어 밭에서 자란 채소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독과 나무판에 약간의 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우리가 교회 선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과 많은 나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회복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선교 사업이 중요한 것 만큼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 역시 중요하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총판리 역원에게 죽은 자를 위한 이 사업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최근에 우리가 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결음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두 가지의 강조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회원은 개인 역사 기록을 작성하고 친족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가족은 4대 이상 더 계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보 기록으로부터 이름을 찾아 내는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교회 회원은 각 지역의 단위조직에서 신권 지도자의 감리하에 수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러한 이름을 찾아 내는 일에 두배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각 해당 지역에서 자세한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집에 있는 서재에는 33권의 잘 정리된 큰 일지가 있습니다. 1년치가 한 권씩으로 둑여 있는 나의 일지에 나는 매일 기록하고 이 서가에 철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는 여러 나라의 여행, 모임, 만난 사람들, 주 폐한 결혼, 나의 가족의 모든 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교회의 관심사까지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가족 역사 기록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권고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그들의 일지를 기록하여 가족 중 아무도 자녀와 손자 손녀와 그 후손에 대한 기억을 남기지 못한 채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요 책임입니다. 모든 회원은 자녀에게 그들의 개인 역사 기록과 일지를 작성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고관 한 사람이 우리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은 국력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망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란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요. 도덕적인 힘이나 신체적 정서적인 건강이 모두 주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 집니다. 악에서 보호해 주는 곳도 가정이며,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원리와 개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 증인이 의회의 한분과 위원회에서 가족에 대하여 증언하면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족을 귀찮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시키기 위한 가족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탈피하려 하기 전에 우리는 왜 모든 역사상의 문명 사회가 이 가정에 밀착되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귀 교회가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가정의 일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정규적으로 영적인 가정의 밤을 가질 것을 다짐하고 가정의 밤의 내용을 신중하게 계획함으로써 우리는 자녀에게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자신 곧 항상 알아볼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

이 됩니다.

가정의 밤 교재에는 좋은 제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밤 교재는 가족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가정의 밤에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받는 부모의 영감을 대신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에게 복음의 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인다면 교회 모임에서 얻는 것들은 그들에게 주식이 아니라 좋은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성도들의 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훌륭한 가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학대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며 진리를 배우지 못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끈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자녀 학대에 관한 많은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독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게 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 : 14)

말일성도 부모는 그리스도의 어린 아이 하나라도 합부로 다루는 가증한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 통계 보고에 의하면 이혼율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5년 현재로 이혼이나 별거의 수는 백만을 넘었는데, 이러한 숫자는 그때까지 기록 중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결혼한 두 부부 중 한 쌍이 이혼하는 격이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1966년도의 두 배이며 1950년도의 세 배가 되는 이혼율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파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의 수는 백만이 넘었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정서적인 나쁜 영향과 그밖의 여러 가지 악 영향은 성인 자체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이 파괴될 때 국가가 붕괴된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의심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또는 역사적인 사상의 주류를 따른 사람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창안해낸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의 신성에 대하여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유아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통하여 성년이 되기까지의 가족의 영적, 도덕적 및 정서적인 전장 문제입니다.

1974년 한해 동안 미국내에서는 낙태로 인하여 100여 명의 태어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수년 동안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경우 만을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나는 교회의 훌륭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조모로서, 자매로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와 지나간 경륜의 시대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매들의 용기와 혼신과 치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첫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매들은 영원한 중요성을 떤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자는 어머니의 말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준다고 말하나 우리에게 영원하고 깊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멀 주려는 경향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자녀를 어려서부터 인도하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단체는 인생의 후반

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후반기의 기쁨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에 한 여성의 업적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페테는 여성의 훌륭한 성품이 인간을 향상시킨다고 말하였읍니다.

경전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전 11:7)

또한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성 83:2) 또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존경과 충성과 같은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해야 할 아름다운 관계에서 신권 소유자와 동반자의 상호 유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매들이 많은 재능을 개발시키고 발표하는 것에 놀라움과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 자매들의 재능과 기술 개발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 세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한 교육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던 처음부터 여성의 발전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여성상을 수립한 사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순수한 의미에서 여성을 편견없이 옹호하였으며, 여성에게 어머니요 병자를 돌보는 간호원이요 높은 지역 사회의 이상을 창안하는 창안자요 훌륭한 도덕의 수호자로서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성이 이 이상으로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남자가 아내에게 이 이상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서 이 표준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말일성도 여성을 위한 높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상호

부조회라는 조직을 설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조직은 여성의 향상을 위한 세계적인 조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리가 담긴 찬송이면서 사랑의 송가인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18장)를 부를 때 우리는 어머니의 최고의 정숙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 어머니의 여왕다운 우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하나님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세주의 오심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그의 탄생은 아담,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리하이, 니파이, 베나민왕, 엘마, 사뮤엘, 그 밖의 여러 예언자들에게 시현으로 보여졌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고 제임스가 탈매지 장로는 예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어 간 수많은 사람과 지금 살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인류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자, 인간 영혼의 영원하신 심판관이시며, 아버지로부터 택함받고 성임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엄숙히 간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여호와였으며, 지금도 여호와이시고, 아담과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罕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지상을 다스리실 자이시다.”(예수 그리스도, 제12판,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24년, 1, 4페이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전세와 불사불멸 사이의 중간 상태인 필멸의 생활을 경험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첫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필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육체적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며 영적인 죽음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의 원래의 상태를 다시 찾으려면, 이 불순종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하여 구속주를 예비하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영과 육이 재결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육체적인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셨습니다. 세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 33년 중 30년 동안은 그의 사명과 성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으로 가서 그의 사촌인 침례 요한에게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식에 참여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는 이 교회로 들어오는 판문임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의 아버지는 “이미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3년 동안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봉사 하셨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눈 먼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펁박받는 자에게 위안을 주시고, 사랑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며, 아버지를 증거하고,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인간의 구원을 마련해 주는 조직 곧 그의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침례 요한의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며 바울의 교회나 다른 지상의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이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신약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서 십이사도와 칠십인 평의회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다음 그들을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미대록에서 신전 주변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또 다시 아버지께서는 그를 이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파이삼서 11:7)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성역을 거의 마치 실즈음에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형의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마태복음 17:1-8)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같은 축복된 경험을 맛보았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그의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시현을 통하여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17)

이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성과 생명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와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듭 거듭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복음 사업의 신성과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과 의식이 신성하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해의 왕국의 율법을 준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오늘날의 악에 대항하여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때…싸움을 둘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조를 솔직히 말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몇 달 전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섬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내가 그곳을 2·3일간 방문하게 되리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그 고장에 회립되고 있는 반물론 책자를 내게 보여 주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비난으로 고심하면서 양갈음을 할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성공에 위협을 느낀 한 목사가 발행한 그릇된 선전지를 내가 읽는 동안 장로들은 의자 끝에 앉아 조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에 차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담긴 선전지를 읽으면서 나는 사실 미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의 모습은 젊은 선교사들을 적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 읽고 나자 그들이 물었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우리에게는 다툴 시간이 없읍니다.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시간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다투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들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방법이 힐라맨서 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이같은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음성은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보라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듣는자의 심령을 깨뚫었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장을 밝히고, 우리의 확신을 굳게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었읍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자들에게 조종당하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상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교회는 우리의 입장장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기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금전상의 이익과 인기만을 위하여 부도덕한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달리 할 때 우리는 논쟁을 하거나 양갈음을 하거나 다투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분쟁을 피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발표와 주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를 둘구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변경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조직은 중상과 비방과 부당한 말로써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장을 모략하는 것을 즐기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당황한다는 것은 혼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논쟁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원리나 표준이 낫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입장장을 이성을 가지고 우정있는 설득과 분명한 사실로써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굳건하게 서서 도덕과 복음의 영원한 원리에 굽하지 않고 어폐한 사람이나 조직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은 벽을 쌓고 장애물을 놓습니다. 사랑은 문을 열어 줍니다. 우리의 책임은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분쟁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려한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임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임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나파이 삽서 11:29, 30)

분쟁 또는 다툼이란 서로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며 특히 논쟁을 일삼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툼이란 투쟁, 싸움, 전쟁, 말다툼 또는 논쟁을 말합니다. 다툼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결코 발전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논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충성심이 결코 측정될 수 없읍니다. 다툼의 영역과 위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저요? 저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싸우겠

웁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논쟁보다는 친구를 잊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논쟁이나 논박이 아니라 사실상의 토론과 의미있는 연구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다툼으로 상함을 입지 않는 가정이나 마음은 없읍니다. 끊임없이 다툼이 이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양육된다면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 다툼을 그의 정체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처럼 슬픈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툼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툼을 생활의 일부로 살아 온 사람들에게 격퇴당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단위 조직으로서의 가족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대립은 심각하며 때로는 큰 해를 미치는 치명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다툼은 가정의 안정, 힘, 평화 그리고 융화에 큰 금을 가게 합니다. 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다툼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간의 논쟁이나 갈등 대신에 우리는 융화를 이루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의 모임 토론에서 15세의 소녀로부터 서면으로 전해 온 질문이 기억납니다. 소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가족간의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15세의 소녀로 가정의 따스한 느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읍니다. 가족은 모두 제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저의 잘못만을 지적하여 놀리고 있읍니다.”

17세의 다른 소녀에게 왜 부모의 슬하를 떠나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읍니다. “집에서는 항상 싸움만 하기 때문이에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도 보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계속 하였읍니다. “항상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싸움이 그치는 때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특히 저의 부모는 서로에게 난폭하게 대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으로 이끄는 가족의 말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무슨 그 따위 소리를 하는거야!” “왜 그런 뜻난 짓을 했니?” “네 방이 난장판이구나.”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거지?”

약 5세기 전 헤오날드 다빈치라는 천재적인 예술가가 이태리에서 살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나리자와 같은 미술품의 작가로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홀륭한 연설가요 응변가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이야기 작가였습니다. 그의 우화 중의 하나인 “여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양떼의 냄새를 맡은 여우는 조심스럽게 숲으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여우는 잠자는 개가 깨지 않도록 천천히 아무 소리도 안나게 조심 조심 양의 우리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발톱 하나가 그만 판자를 밟아 판자가 부러지면서 개를 깨워 놓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한 채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부주의한 발톱 때문에 여우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헤오날드 다빈치의 이야기 책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발췌, 베스티어리, 1225호)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도 나에게는 말일정도의 영성을 잃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어린 소녀들의 말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여우의 부주의한 발톱과 같이 이것은 무언의 고통을 야기시키고 가족의 영적 발전과 응화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툼, 아무 생각없이 하는 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혀 때문에 가족이 가정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웃간의 다툼 때문에 증오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

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웃과의 심한 마찰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밟겨진 일보다 더 하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낚추는 것, 사파하는 것 등이 이웃간의 다툼을 무마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가정에서의 다툼, 지역 사회에서의 다툼, 지도자간의 다툼 또는 반에서의 다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자가 아니요 악마에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채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마태 11:29)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가 그를 들어오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힘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들어오게 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거역할 때 사탄이 그 자리에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1페이지)

다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나쁜 감정과 불쾌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내가 왜 다투는가?”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다음과 같은 태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논쟁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 자신의 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기를 바란다.” “나는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자부심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이유야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오는 오만의 문제가 있음을
나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 13 : 10)

사람이 우리에게 다투고 말다툼하는 습관
을 심어 주는 데 성공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는 더 무거운 죄로 우리를 더
욱 쉽게 속박할 것입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영은 우리의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급히 쓴 노한 편지가 배로는 여
러해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내뱉은 증오의 몇 마디가 결혼 생활을,
또는 개인적인 우정을 파괴할 수 있으
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저지시킬 수 있음
니다.

낙태, 동성애, 부도덕, 알코올, 마약, 부
정직, 등등과 같은 오늘날의 악에 대항하여
우리의 입장장을 고수할 때, 우리가 불끈 주먹
을 쥐고 음성을 높이고 싸움을 돋구지 아니
하고 우리의 신조를 솔직히 말할 수는 없을
까요? 우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개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나 그
외에 경전에 실린 여러 가지 진리의 복을 원
리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쉬
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이랑을 일구고 우리의 씨앗을 뿌
리고, 우리의 곡식을 가꾸어 수확을 해야 합
니다. 이것은 겁이 아니라 보습으로 탈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협신적인
태도로 탈성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드
리겠습니다.

1.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영이 격한 감정을
누그러지게 하고 무정한 정신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혀를 자제하는 방법을 배우
십시오. 매우 훌륭한 옛 속담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두 번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
에 세 번을 생각하라.”

3.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게 하지 마십시오.

4. 똑같은 논쟁과 대립에 휩쓸리기를 거
절하십시오.

5.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평화로운 삶은 “큰 소
리”로 말하는 자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구세
주의 모범을 따르고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로 말하는 자에 의하여 가장 잘 행취
될 수 있습니다. (힐 5 : 30)

다툼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에서 다툼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적
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너희 말은 서로 덕성을 복돋운에 이
바지하게 하라.” (교성 136 : 23)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일을 할 시간만 있습니다. 이 진
리를 간증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



하나님의 딸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신권 지도력과 대등한 것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훌륭한 딸들의 의로운 영향력입니다.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임무와 신권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성과 남성의 임무가 구분되어진 이유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다른 끗 다른 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중점을 두는 데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는 신권과 지도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선과 대등한 것이 모든 세기와 경륜의 시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훌륭한 딸들의 의로운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신문이나 또는 경전에 어느 정도로 길게 기록되어 있으나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이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하나님의 딸의 이야기는 연극 속에 있는 무언의 연극입니다.

니다.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매로서, 딸로서, 동반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남자를 걸들이고 보호하고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 넣어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또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는 의로움이란 역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선함이란 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존재하나 서로의 역할을 바꾸거나 포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황무지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입된 것과 같이 어떤 여자들도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훌륭한 아버지를 갖는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경륜의 시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훌륭한 어머니, 루시 맥을 갖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사랑스러운 충성심을 축정할 때 다윗과 요나단보다 오히려 룻과 나오미의 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대하여 완전한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과부를 들보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동전 한닢은 우리에게 실물조를 바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기진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과부는 그녀의 음식과 기름을 엘리야에게 줌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굽 여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성애의 본능이 모세를 갈대 사이에서 구해 주었으며, 이로써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아기는 부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가 마리아를 알아보고 뛰었을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나눈 대화보다 더 기대에 찬 대화가 있

었겠습니까? (눅1:41)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처형의 장면에 대하여 읽을 때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마27:55)라는 성구가 우리에게 여성의 내면의 예지를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곧 기도요 그들의 서성거림이 탄원과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무덤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두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최초로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성은 특별한 영적인 감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것을 오래도록 추구하게 됩니다.

훌륭한 여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하여 밖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사랑의 태도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앉아 있을 수 없으며 실족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훌륭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는 태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믿으셨기 때문에 여성에게 그의 영의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왕국에서 여성은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자선 봉사를 행하도록 지명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봉사를 하려면 더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반면에 여자는 본능적으로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기의 첫번째 미소를 보고 기뻐하며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 특별히 비이기적인 행동을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성취를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우위에 놓을 때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이해할 것입니다. 우는 아기를 안

고 달랠 때 여러분은 오늘의 세계가 지나가고 있음을/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일을 팔에 꼭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 사항보다 적은 필요 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관대함과도 같습니다. 고통 중의 공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의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갈보리에서 “내 육신은 나의 것이옵나이다.”라고 반항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날 성스러운 자궁을 무덤으로 만들기를 거절함으로써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은 극구 칭찬합니다.

인류의 참다운 역사가 완전히 끝날 때, 종성의 메아리가 울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군인들로 인하여 이룩되는 휴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정과 이웃에서 여성들이 이룩하는 평화가 있겠습니까? 요람과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잘 통제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세기의 조류가 위대한 피라미트를 이루었을 때, 영원한 가족은 여전히 존속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가족이 별의 왕국의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해의 왕국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매들을 지지하고 후원하여 여러분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금도 이상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가정을 버리는 행동은 마치 홍수를 막는 대신 사람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별없는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경솔함을 사려깊음으로 이기심을 비이기심으로 충족시키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훌륭한 모범으로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향

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고의 수준에 달하지 않더라도 인내해 주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칭송받지는 않았으나 조금도 오점이 없는 독신 여성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팔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비록 현재에는 가장 훌륭하게 선택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뜻하지만 가장 현명한 진로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자체의 세상에서는 제일 주요한 욕망을 충족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이깁니다. 현재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자매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에게 몇 가지 축복이 얹쳐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의 모든 축복까지 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자녀가 없는 아내의 그것과 같으며,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신령 소유자들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없이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한 신전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시는 마지막 문에 다가갈 때 우리는 충실히 하면, 그 문을 함께 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 예언자는 이러한 부부의 단합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사도로서의 부름의 막중함에 압도될 때 항상 아내 카밀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킴벌 대관장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고민할 때 자매님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라

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대관장님은 그것을 행하셨지만 아내가 곁에 있음으로 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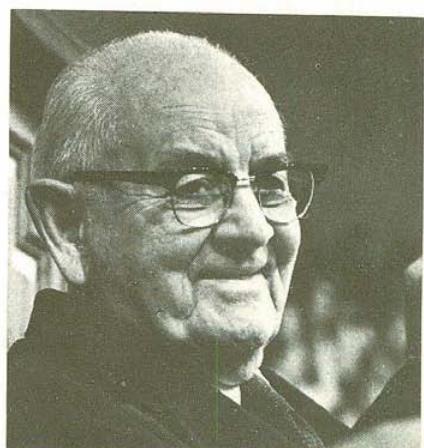
형제되시는 여러분 모든 예언자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으며, 여성은 어떻게 존중하였는가를 눈여겨 보시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참된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늘궁전”에서 통치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찬송가, 118장 참조).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히 인간으로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전2:9참조)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전2:9참조)는 훌륭한 음악 소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당한 귀가 하나님 어머니의 기다림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하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으로 잘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곧고 좁은 하나님의 길이며, 그곳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갈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동트니 날이 밝는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보라 시온 기 날린다……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 오르네.

동 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 오르네.
(찬송가 222장)

해가 지고 황혼이 깊어지면 암흑이 지배하게 됩니다. 밤 동안에는 어디에나 암흑이 있고 모든 것이 흐리게 보입니다. 아무도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밤을 지배하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고 있지마는 암흑을 뚫지 못하고 어두움은 밤동안 계속됩니다.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는 숲과 들의 접승을 가립니다. 들고양이는 발소리를 죽여 먹이를 덮치며, 굶주린 이리떼는 그들의 울음 소리를 가까이 또 가까이 내면서 그들의 희

생이 될 동물을 극심한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 넣습니다. 이리는 멀리서 으르렁거리고, 어디선가 사자의 울음 소리도 들리며, 칠후 같은 어두움 속에는 재활(여우와 이리의 중간형)이 기회를 엿보며 숨어 있습니다. 밤의 공포는 실재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멘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계명성이 다른 별들보다 더욱 밝게 비칩니다. 몇 줄기의 빛이 동녘 하늘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하늘은 아직 군데군데 구름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 너머로 새날이 자연의 태로부터 잉태됩니다. 지구가 서서히 자전하면서 새벽이 밝아지고 아침의 빛은 점점 나타나고 어두움은 물러납니다. 별은 더 이상 비치지 않고 달은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달의 반사빛도 이제는 더 이상 밤의 어두움을 뚫지 못합니다. 태양은 떠오르고 하늘의 눈부신 빛이 온 누리를 덮습니다.

새벽이 오고 태양이 비칠 때 밤의 접승들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고 여우도 제 굴혈로 들어가며 우리는 이리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늑대의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어두움 속에 숨어있던 공포는 이제 바위와 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 동이 틈과 함께 들의 꽃과 숲의 나무는 새로운 생명을 취합니다. 소들과 양떼가 잡에서 깨어나고 하늘의 새들은 만군의 주, 창조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축복과 빛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즐거움과 희락과 빛의 새날입니다.

복음이라는 태양이 약 2백년 전에 기울어졌을 때, 신권이 이 세상에서 취하여지고 무서운 흑암이 한 번 빛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내려졌을 때, 빛과 진리가 더 이상 하늘로부터 비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도와 예언자의 가르침이 없어졌을 때 영적인 암흑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암흑이 이 땅을 덮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침침해졌습니다. (사 60:2 참조) 암흑기가 시작되었고 하늘의 빛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섭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

음에 것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는 인봉된 책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 29:11 참조) 예언자와 선견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전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볼 수 없으며, 아무도 영원하신 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숨겨진 길을 따라 걷는 순례자들은 밤의 암흑에서 길을 잊었습니다.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빛과 진리와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달이 새로운 달이 떠올라 이성에서 그리고 본능으로 오는 하늘의 진리를 알려 주었습니다. 달처럼 다달이 떠올라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반사한 사람들로는 성 어거스틴, 마이모니데스, 잔다크, 토마스 무어, 미겔란젤로, 갈릴레오 등과 같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은 더 이상 그 빛을 영생으로 이끄는 곧고 좁은 길을 비추어 주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짐승들이 숨어 있는 절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니케아에서 아라나시우스는 참된 하나님의 품격을 저하시키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불가사해한 영적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교도 국가의 주체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에 놓고 그것을 온 인류의 교회라고 불렀으며, 콜테즈는 십자가를 이교도인의 손에 놓고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테렐은 면죄부를 팔아 인간의 죄가 돈으로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스페인에서, 멕시코에서, 그리고 페루에서 그는 종교 재판의 악이 변성하게 만들었으며, 이 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지구의 주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위그노교도들과 그 밖의 국교 반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하였습니다. 당시에 지

배적인 종교는 두려움과 무지와 미신의 종교였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된 것으로 억압된 종교였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흑암속에는 재칼이 있었고 숲 속에는 늑대가 있었으며, 이리가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사자는 울부짖고 독사의 독있는 이는 사람의 살을 점점 깊숙이 찔렀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활了一场으며,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덕이나 순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의 공포가 감돌았으며 밤은 길고 어둡고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먼동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칼빈, 츠프글리, 루터, 웨슬리 등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다른 별들보다 유난히 빛나는 아침의 별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의 죄와 악에 구역질 난 용감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영혼은 많은 사람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자르고 톱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나고 있는 가장 좋은 빛과 지식에 따라 모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도와 주려 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지에서 과거 수세기 동안 전해 오던 종교로부터 이탈하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줄기의 빛이 동쪽 하늘의 어두움을 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에 의하여 새로운 국가, 곧 “자유를 이해하고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는 주장에 헌신하는” (아브라함 링컨, 케티스버그 연설)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미합중국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 너머로 새날이 자연의 태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지구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서서히 꾸준히 돌아감에 따라 새벽이 밝아지고 아침의 빛이 밝아짐에 따라, 미합중국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의 감정을 단련받고 상대방을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여김에 따라, 성경이 출판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읽혀짐에 따라, 암흑이 사라지고 빛이 점점 밝아짐에 따라 복음의 태양이 떠오를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해진 때가 원전히 왔을 때—약속된 만유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하늘의 주님은 그의 무한하신 치혜와 자비와 선하심으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인도하도록 예언된 영원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의 지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1805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태양이 산정 바로 뒤에 숨을 때입니다.

그리자 1820년 봄의 어느 영광스러운 날—4월 6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이 그의 모습을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오른쪽에 배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서부 뉴욕주의 숲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당시의 모든 교회가 그릇된 것이니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그들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부패하여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주로부터 멀며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같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나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 : 19)

그 순간부터 별은 더 이상 빛을 비치지 않고 달은 그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달과 별의 희미한 빛은 더 이상 땅의 어두움을 비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바야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상의 인간에게 주어질 때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천사가 보내져 진리를 가르치고 권능과 능력과 신권을 부여하며,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의 일부인 왕국의 열쇠를 다시 주어 인간이 지상에서 매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인봉되게 하였습니다. (교성 132 : 46 참조)

물론 경의 출현 이후 10년 이내에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다시 이룩되었으며 계시와 예언이 당시의 질서가 되었고 영의 은사—모든 고대의 표적과 기이한 일과 기적—이 충실한 자에게 부어졌습니다. 다시 시현과 방언과 예언이 있게 되었으며,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눈먼자가 보고,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말일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고대의 진리는 규례에 규례를 더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고대의 의식이 하나씩 새롭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복음, 충만한 영원한 복음—인간을 구하고 승영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완전과 함께 발산되었습니다. 흑암이 땅을 덮을 때 예정되었던 복음의 태양이 새로운 회복의 날에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의 새벽과 온 땅에 펴지는 진리로써 밤의 공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지와 미신이 있던 곳에 이제는 사랑과 빛과 순수한 종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용기가 되었고, 무지는 치혜로 바뀌었으며, 미신과 전설은 빛과 하늘의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곧 악의 늑대는 으르렁거리지 않고, 죄악의 이리가 울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복천년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이여, 이 때는 그대의 날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친송이라 칭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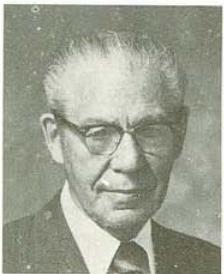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아 네 영광이 되리니”(이사야 60 : 1-3, 18-1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진리를 알찌니”

엔 웰든 테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무릇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충만함을 받을 자는 없나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드리어 진리로 영광을 얻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93:27, 28)

오늘 아침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고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예언자,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가 배반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을 맛보는 일연의 사건이 있기 직전의 거룩하고 엄숙한 순간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곧 제자들만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준 다음 주님은 세상에 임할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가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1-8, 11)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말하여진 가장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그는 이 지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과업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

활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사건이 그에게 밝혀졌으며, 그의 사도들은 이 사업을 돋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각기 개별적인 계체이지만 주께서 그의 사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간구에서 예수께서는 영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 또한 다른 곳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한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승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먼저 영적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가 신앙을 지켰다는 의미이며,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의미이며, 그에게 요구되는 바를 모두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망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아버지와 함께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자유는 진리가 기초가 됩니다. 자신의 신조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오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어떠한 사람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류의 사슬은 사람의 정신을 끌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 수 있는 한 많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전을 상고해야 합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받아들여 실천하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참된 원리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릇된 것에 기초를 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미국의 개척자들은 인디언들에게 화약을 주면서 그 가루를 심으면 화약의 나무가 자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순수하게 믿은 인디언들은 화약을 땅에 심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무것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거짓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치혜를 구하며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또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절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으니라.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구실이 있을 수 없나니, 저희 죄는 자기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라.

“일찌기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벼랑을 받지 아니하리라. ...

“너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그 자유를
지켜 스스로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께
서 오실 때까지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교리와 성약 88 : 77-78, 80-83, 86)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고 이해하여야 하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윤법에도 적용되고 나라의 국법에도 적용됩니다. 흔히 우리는 자유를 외부적인 압력이나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의지에는 관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브리간 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
에 아무도 없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
종한다고 해서 그에가 되는 것일까요? 아
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
리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된
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의 노예, 악
한 자의 노예... 그리고 악마의 종이 될 것입
니다.”(설교집, 18 : 246)

우리에게 지침과 축복으로 주어진 예수 그
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실계명, 산상수훈, 전
복판단 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나라
의 법의 중심사상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순종 여하에 따라 축복을 받
거나 형벌을 받습니다.

자연에는 불변하는 법이 있어서 그것을 거
역하면 질병이나 죽음이 따릅니다. 우리는
과학 법칙과 진리를 활용하여 노동을 절약
하는 기구와 더욱 바르고 더욱 편리한 교통,
편리한 식품, 합성 원료로 만든 가제 도구
와 의복 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
든 것이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단축시켜 주
었으므로 우리는 나머지 시간과 정력을 우
리에게 편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
로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
하여 나온다는 것을 경전에서 알게 되었읍
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
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느니라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
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윤법이니”(교
성 88 : 12-13)

그리하여 아이작 뉴턴, 토마스 에디슨, 알
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발견한 진
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그들
에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밝혀진 진리
는 인간을 무지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만
들어 주었으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넓혀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신
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에 관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해되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체이시며 신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감정을 지니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속성을
지니시고 인간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아
는 것은 인생에게 목적을 주는 진리이며, 인
간의 기원에 관한 신비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구세주의 구속과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신비와 의
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고 영
원한 생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위대한 과학자의 한분이신 헨리 아
이팅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비를 풀
어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초
지배적인 세력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으
로 이와같은 것을 알게되며 또한 우주의 질
서와 경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
법이 없으므로 구세주께서 오래전에 제언하
신 실용주의적인 방법 즉 노력해보라 그려
면 알게될 것이라고 하신 방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과학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자는 단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사물은 존재하며, 이 같은 존재는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물이 그릇된 경우에는 아무 것도 이를 구할 수 없으나 사물이 올바른 경우에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헨리 아어링, 과학자의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 1967, 103, 105페이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진리를 아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동일 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주의 불변하는 진리에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속성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요 1:14) 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지혜하신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그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주었음을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인간처럼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셨으며, 현재의 하나님처럼 인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로렌조 스노우, 1892년 1월 11일, 말일의 예언자의 말씀 재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 1951년, 72페이지) 그러므로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예지를 키우고 모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이 얻는 지식과 진리를 동료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혼자 내버려두면 악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이 택한 결정의 결과에 대

하여 어떤 결정에는 축복이 따르고 어떤 결정에는 형벌이 따르는지에 대하여 지침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건축하는 건축가임을 결코 망각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과 법칙을 주시며, 배우고 행하고 항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고 레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행복하고 영생을 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는 인간을 지상에 보내시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교성29:35)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행동할 수도 있고 빛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빛이 없는 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경륜의 시대에 그의 자녀에게 복음의 빛을 주셔서 그 빛 안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걸으며,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가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평화와 행복을 그 빛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그의 방탕한 자녀들의 실수와 범법과 죄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하여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아버지를 탓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탓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아, 두 개의 길이 있다. 왼쪽 길을 택하면 너는 비참함과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며 아마 죽음까지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른쪽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은 너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길 중에서 네가 한 길을 택하여야 한다. 나는 네게 어떤 길을 택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아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왼쪽 길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꽃이 만발한 왼쪽 길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함정이 있어서 아들이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함정에서 간신히 빠져 나오면 또 수렁이 있어서 아들이 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생활이 머지 않아 아들에게 닥치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미리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아들에게 경고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수세기 동안에 걸쳐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세상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레월린 매키이, 진실한 사랑,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6년 86-87페이지)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등을 돌린 자들을 위하여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영화로운 원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며 그 죄를 극복할 것을 결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므로,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는 사탄의 유혹, 진리와 빛의 원수로부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자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물론경의 예언자가 주님의 영

에 이끌리어 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오늘 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박한 이 때로 하여 이 백성들에 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선지자들을 내어쫓으며 저들을 조롱하며 돌로치며 죽이며 오래된 옛 시절에 그려했던 것 같이 온갖 잔악한 짓을 다 하였음이라……”

“오 너희 완악하며 사악한 세대의 백성들아, 마음이 강퍅하며 교만한 백성들아, 주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고 보실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촉으며 눈먼 걸잡이에게 이끌려 다니려 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얼마나 오랫 동안 빛보다 어둠을 더욱 쫓으려 하느냐?”(힐라멘서 13: 24, 29)

그러나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진대 내가 나의 진노를 거두리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복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어다.”(힐라멘서 13: 11)

우리가 모두 지혜와 진리를 구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니, 나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이 나를 증거하여 이르기를 그는 충만한 진리 곧 모든 진리를 받았다 하였느니라

“무릇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충만함을 받을 자는 없나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드리어 진리로 영광을 얻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93: 23-26)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 들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서 받아 들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영생으로 이끌어 줄 진리를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1978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1977년도 통계 보고

보고자 : 프랜시스 엘 기번즈

대관장단 서기

교회 회원이 참고하도록 대관장단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상태와 발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를 발표하였다.

교회 단위 조직

| | |
|---------------------------------|-------|
| 시온의 스테이크 수 | 885 |
| 복음 선교부 수 | 157 |
| 와드 수 | 5,917 |
| 스테이크 산하 독립 지부 수 | 1,549 |
| 선교부 산하 지부 수 | 1,694 |
| 1977년 동안에 541개의 와드 및 지부가 증가되었음. | |
| 조직된 와드나 지부를 갖고 있는 나라의 수 | 54 |

교회 회원

| | |
|--|-----------|
| 1977년도 말 현재 스테이크, 선교부 및 교회 사무실에서 보고된 교회 회원 총 수 | 3,966,000 |
| 연말로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추세로 보아 현재 교회 회원의 수는 400만을 초과될 것으로 추산됨 | |

1977년도 동안의 교회 성장

| | |
|----------------|---------|
| 축복받은 어린이 수 | 95,000 |
|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 62,000 |
| 침례받은 개종자 수 | 167,939 |

사회적 통계

| | |
|-------------|-------|
| 회원 천명 당 출산수 | 31.66 |
|-------------|-------|

회원 천명 당 결혼한 사람의 수 13.25
회원 천명 당 사망자수 4.14

신권 소유자

| | |
|---------------------------------|---------|
| 집사 | 142,000 |
| 교사 | 112,000 |
| 제사 | 201,000 |
| 장로 | 338,000 |
| 칠십인 | 28,000 |
| 대제사 | 129,000 |
| 1977년 동안 45,000명의 신권 소유자가 증가되었음 | |
| 복음 선교사 | 25,300 |

복지 사업

| | |
|-------------------------|------------|
| 현금 또는 생필품의 혜택을 입은 사람 수 | 99,600 |
| 말일성도 사회 사업의 혜택을 입은 사람 수 | 15,000 |
| 좋은 직장을 알선 받은 사람 수 | 16,000 |
| 복지 사업에 동원된 노동일 수 | 427,000 |
| 창고로부터 분배된 생필품 | 17,750,000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계보 협회

신전 사업을 받도록 1977년도에 조사된 성명 3,374,000

계보파는 36개국으로부터 기록을 입수하였으며, 입수된 성명은 30.48미터짜리 마이크로필름 949,000개에 달하며, 이것은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4,517,000권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신전

1977년도 중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47,037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3,555,118
사용되고 있는 신전의 수 14
현재 건축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신전 6
개축 중에 있는 신전 2

두 개의 신전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도보다 1977년도에 180,362의 엔다우먼트가 더 수행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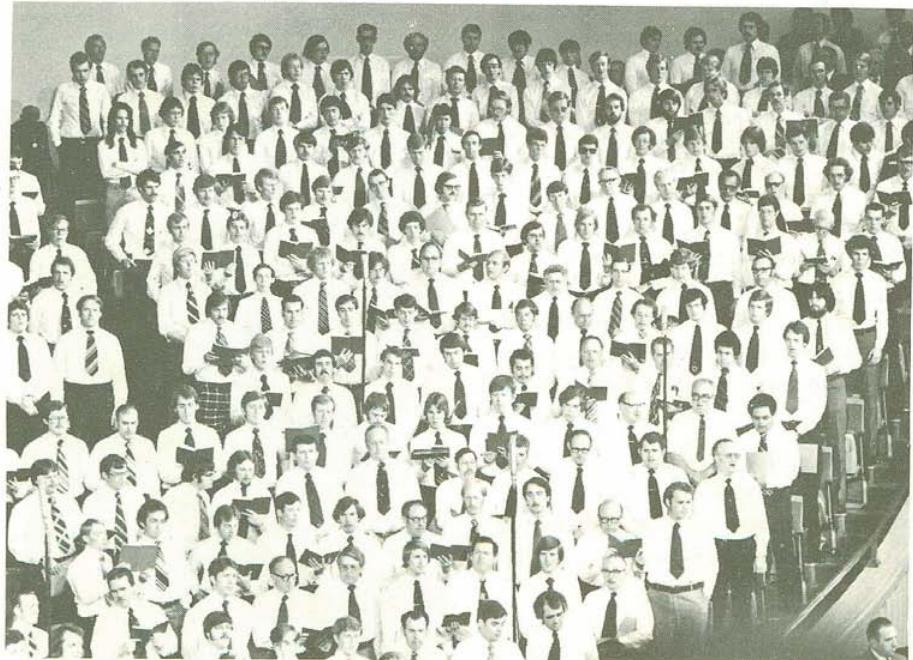
1976-77년도 학기년도에 등록한 총수 :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신학 연구원 수 288,000

교회 학교와 대학 및 전학자 수 74,000
금년도에 작고하신 유명 회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엘마 소니 장로 :
십이사도 평의회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의
아내, 아이나 제이 애쉬튼 리차즈 자매, 교
회 축복사 엘드리드 저 스미스 장로의 아내
진 엔 스미스 자매 : 엘파소 텍사스 스테이
크의 존 해롤드 멀린부장 : 아피아 사모아
스테이크의 올리 리차드 크리크든 부장 : 작
가인 동시에 교육가인 시드니 비스페리 박
사 : 로스엔젤스 신전, 런던 신전, 스위스 신
전 및 뉴질랜드 신전 건축가인 에드워드 윌
리버 엔더슨 : 전 연방 준비 위원회 위원장
인 마리너 에스 에클레스 : 작곡가요 교육가
이며 교회 어머니 합창 지휘자였던 플로렌
스 제이 매드슨 박사.

*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보고함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드링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교회 연례 재정 보고서와 마감 기일이 1977년 12월 31일인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금 지출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따라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확장과 전자기기 자료 조사 분류 방법의 개선과 병행하여 교회 재정과와 기타 각 과는 현대식 회계 기술과 장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와 법률과는 공동으로 연방 정부와 주와 기타 각국 정부가 교회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교회의 각과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과에서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부, 재정

센터 및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사과는 교회가 채택하여 쓰고 있는 컴퓨터 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책임도지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회·감사과의 관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에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조사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와 재정 운영을 관리하는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삼아 재정과와 감사과와 법률과의 책임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77년 동안 교회의 모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가 여기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여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튼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엠 캐네디
워렌 이 뮤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지 난번 대회의 역원 지지에서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에 대하여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게 너무 통명스럽게 대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취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읍니다.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게 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유를 총관리 역원에게 설명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단 엘든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매리온 저 톰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벨버트 엘 스테이플

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혼터, 고든 비 헵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 콩키, 엘 톰 페리, 레이비드 비 헤이트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축복사로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그리고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이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더 리차즈,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더리드 터틀,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더 햄스 그리고 폴 에이치 먼 장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스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더 테일러, 디어도어 엘 버튼, 버나드 피 브록뱅크, 제임스 에이컬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싱슨, 오 훈슬리 스토운,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쓰, 조셉 비 워스턴, 에스 딜워스 영,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먼, 렉스 더 피비가, 진 알 쿡, 찰스 에이 디레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리, 칼로스 이 애시, 엔 러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더오거, 본 제이 페터스토운, 던 엘 라

슨, 로이든 제이 페릭, 로버트 이 웰즈, 저호머 더럼, 제임즈 앤 패러모어, 리차드 지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구찌, 로널드 이 포울맨, 페리이 커스버트, 로버트 앤 백먼, 그리고 렉스 시리브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판리 감독단의 판리 감독에 빅터 앤 브라운 형제를, 에이치 버크 피터슨을 제1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지역 대표

상호부조회: 회장에 바바라 브래드쇼우 스미스 자매, 제1보좌에 제네스 러셀 캐넌 자매, 제2보좌에 매리언 리차즈 보이어 자매, 및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주일학교: 회장에 러셀 앤 벨슨 형제, 제1보좌에 조 제이 크리스틴 형제, 제2보좌에 윌리엄 디 오스왈드 형제, 및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남회: 회장에 닐 디 세이러 형제, 제1보좌에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형제, 제2보좌에 퀸지 맥케이 형제 및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녀회: 회장에 루스 하디 평크 자매, 제1보좌에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자매, 제2보좌에 아데스 지 켈 자매 및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초등협회: 회장에 나오미 맥스필드 섬웨이 자매, 제1보좌에 콜린 부쉬먼 페몬 자매, 제2보좌에 도러시어 루 크리스찬슨 머독 자매 및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교회 교육 위원회: 스펜서 더블류 킴벌, 앤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행스, 빅터 앤 브라운 및 바바라 비 스미스

이상의 여러 역원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트론 이 해밀トン, 메이비드 앤 케네디, 웨렌 이 퓨.

태버내클 합창단: 단장에 오끌리 에스 이반스, 지휘자에 제롤드 디 오틀리, 보조 지휘자에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태버내클 올랜 반주자에 로버트 커너, 로이 앤 달리 및 존 롱거스트

이상의 여러 역원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킴볼 대관장님, 이상의 총판리 역원과 본부역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꾸준한 기도는 믿지 않는 자를 개종시키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건져주며 타락한 자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운 어린 소년 소녀들의 아름다운 노래에 우리는 모두 감동되었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은 매우 비슷한 연령의 어린이들과 함께 매주 초등협회 모임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귀엽고 귀중한 어린이지만 이 어린이들처럼 행운을 얻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오스트레일리아 선교부를 방문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부장을 대동하고 다원 시의 최초의 말일성도 예배당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원 시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사 산의 조그마한 광산촌에서 연료를 보급받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

등협회 연령의 두 어린이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주디스 루든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녀와 두 자녀만이 이 도시의 유일한 교회 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리차드는 비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나는 매주 가정 초등협회 모임을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교회 본부에서 가정 초등협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모이고 참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자 마자 나는 당시 초등협회 회장이었던 레번 팜리 자매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위해 가정 초등협회 자료와 칠드レン스 브랜드지 1년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몇 년 후, 브리즈베인, 오스트레일리아 스메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우연히 이 충실한 자매와 그녀의 자녀에 대하여 신권회 모임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 가정 초등협회가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선택받은 가족의 아버지며 남편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형제 한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몬슨 형제님, 제가 리차드 루든입니다. 그 귀여운 어린이들의 아버지며 훌륭한 자매의 남편이지요. 기도와 초등협회가 저를 교회로 이끌었읍니다.”

지난 겨울에 또 다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만리 떨어진 남쪽의 미항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하도록 지명 받았습니다. 나는 팔레모 공원에서 잠시 머물면서 여기가 1925년 성탄절에 멜번 제이 뱘라도 장노님께서 남미를 북을 전파지역으로 현납했던 성스러운 곳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교회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 영감 받은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공원에는 미국의 아버지요 초대 대 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자 나는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인 포지 계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싱تون이 거의 먹지 못하고 웃도 늑더기를 입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겨울 야영을 보낸 곳이 바로 포지 계곡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조용한 포지 계곡의 숲에는 커다란 워싱تون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을 탄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전장터를 바라보는 모습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나의 머리에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보다 더 높아지는 때는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결한 성품과 인격을 지닌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인식하면서 그 힘의 인도를 기도로써 구하려 합니다. 그러한 것은 과거에도 그려졌으며 앞으로도 그려질 것입니다.

태초에 아버지 아담은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서 5:8)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기도하였고 아브라함도 기도하였으며, 이삭도 기도하였고 모세도 기도하였으며, 모든 예언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래 시계에서 모래가 빠져 나가듯이 인류가 배어나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많은 예언자들이 기도하고 시편작가들이 노래하였으며, 순교자들이 순교당하고 모든 인류가 바라던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예수의 탄생은 그 아름다움에서 초월적이고 그 의미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셨고 눈먼자를 고치셨으며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진리를 가르쳐셨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심으로써 그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

렸고 여러분과 나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어떤 예언자나 지도자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주님의 고통과 그의 간절한 기도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찬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그리고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너는 기도할 때에……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5-6)

이 말씀은 고통받는 영혼이 열심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변형, 풍족, 명예, 친사 등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만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사망이 사람의 오만의 성장을 무너뜨리고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의 권능을 구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대학살 때보다 더 기도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한 어머니, 아내, 자녀의 기도를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상달되어 응답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지역이라고 알려진 유혈의 전쟁터로 출항한 배에서 복무하던 아들의 무사를 위하여 기도했던 한 미국인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 줍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자원하여 전쟁터의 군인에게 보내는 구

명 뱃줄을 만드는 일을 했읍니다. 어머니가 손수 만든 구명 뱃줄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에 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선원 아들, 엘진 스테이플즈에게 일어났던 실제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탄 배는 파탈카널로 항해하였읍니다. 스테이플즈는 물에 쓸렸지만 구명 뱃줄 덕분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구명 뱃줄을 조사해 보니 그의 고향 오하이오주 아크론에서 그의 어머니가 손수 검사하고 포장하여 도장을 찍은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는 암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조만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암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드리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립니다.

(엘리자 앤 힙콕, “기도”에 송되는 종교시 제임스 길크리스트 러슨, 뉴욕, 플레밍 에이치 페넬, 1933, 160페이지)

젊은 세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계십니까? 지금도 응답해 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즉시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만기일이 없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대부분 깃발이 날리거나 밴드가 연주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연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몇년 전 그랜드 캐년 클로라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스테이크 부장이 나에게 한 부모를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모는 막 선교 지역에 도착한 아들로부터 그곳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들

고 몹시 낙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어머니, 아버지,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나—는 은밀한 곳에 무릎을 꿇었읍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낙담하여 슬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아버지가 말했읍니다. “모든 형제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집으로 오겠다는 우리 아들의 결심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드님이 봉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내가 물었읍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입니다.”

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얹고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이미 기도는 상달되어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총판리 역원이 참석하는 스테이크 대회가 28개 이상이 되었는데 내가 이 스테이크를 방문하도록 지명되었고, 모든 총판리 역원 중에서 바로 내가 다음 목요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선교부의 선교사들을 만나보도록 되어있읍니다.

주님은 이들 부모의 간구를 귀히 여기셨던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들의 아들을 만나 볼 수 있었으며, 그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에 응하여 그대로 선교 지역에 남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읍니다.

몇 년 후에 나는 다시 그랜드 캐년 클로라도 스테이크를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다시 그 부모를 만났읍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할 수 있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였읍니다. 나는 가족이 모두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내가 집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읍니다.

어머니가 간구하였고 아버지는 노력하였으며 자녀들도 모두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

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어린 아들 토드가 아버이 날에 아빠의 베개 밑에 넣어둔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왜 담배를 끊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어요. ...아빠도 끊을 수 있어요. 담배는 아빠의 건강과 폐와 가슴에 해롭습니다. 아빠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랑, 스컹이랑, 브래드랑, 마크랑, 제프랑, 제니랑, 팬 그리고 그들 가족과 함께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데 왜 아빠는 그럴 수 없나요? 아빠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어른이잖아요? 아빠 저는 아빠를 하늘 나라에서도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그걸 원해요. 우리는 온 가족이 모두 하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사서 매일 저녁 공원 주변을 도세요. 아마 저의 이 말에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이든 사람들이 공원을 거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는 사람들을 보고 웃으시지만 그들이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폐와 가슴과 근육을 운동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더 많이 웃게 될 것입니다.

“아빠, 제발 훌륭한 아빠가 되어 주세요. 담배도 피우지 마시고 술도 마시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종교에 반대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담배를 끊으시고 우리처럼 좋은 사람이 되면 아빠와 엄마가 몬순 형제님께 가서 결혼하시고 신전에서 우리와 함께 인봉 될 수 있을 것이예요.

“아빠, 엄마와 우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토드

“추신, 우리 형제 중 다른 사람이 썼더라도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추신, 뉴튼씨가 담배를 끊었어요, 아빠도 하실 수 있어요. 아빠는 뉴튼씨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간구는 상달되어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오래 기억하게 될 밤은 이 가족이 아름다운 신전의 성스러운 방에 모였던 밤입니다.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으며 모든 자녀가 모였습니다. 영원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오래 기다렸던 저녁이 끝날 때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
가슴 속에 악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
질이요 진리 생명되신
하늘의 인도자
기도의 질 결으셨으니
가르쳐 줍소서
(찬송가 186장)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어린이의 생활을 살찌우는 초등협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조그마한 물론 마을에서 초라하게 시작된 것
이 많은 어린이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었을
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려던 구세주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위치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 18:1) 주님은 그를 들려싸고 있는 무리에 있는 어린 아이 한 명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둘이 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낫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나라” (마 18:3-4)

구세주께서는 어른에게 어린 시절을 다시 찾고 약함이나 악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계

십니다. 가장 사랑받는 어린 시절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마태복음 18:5)

주님은 어린 아이를 안으신 채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벳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오느라” (마 18:6) 어린 아이의 순수성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먼 훗날에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리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권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지난 10월, 바운티풀 유타 스테이크 초등 협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물론경을 살 돈을 벌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어린이 스스로 노력하여 번 돈으로 물론경을 사게 한 것이었습니다.

각 어린이는 자기의 사진과 간증을 물론경 절장 안쪽에 붙였습니다. 사진과 간증이 붙여진 620권의 물론경이 선교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전에 어린 초등협회 소녀 사라 리치즈는 애리조나주 턱소의 엘 모크 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라양, 사라양의 사진이 붙은 물론경을 우리에게 보내 주어서 무척 고맙다. 사라양은 아주 예쁘고 착한 어린이더구나. 나는 이 물론경과 사라양의 사진과 간증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이제 이 물론경을 다 읽었단다. 나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읽을 계획이란다.

“다시 한번 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사라양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초등협회는 어떻게 발족되었습니까? 주님은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인내하고 성실하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며, 복음이 밝혀질 때 그들이 규

례에 규례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성 98 : 2, 3, 12)

100년 전, 유다주 파밍تون의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는 어린이를 위한 모임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의 말로 훌륭한 태도와 의복으로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878년 유다주 파밍تون에는 아름다운 석조 예배당과 1,200여 명의 지역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호부조회, 청남 협회와 청녀 상호 향상회가 있었으며 취주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및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는 파밍تون에는, 다른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밤늦게 다니면서 나쁜짓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대 퇴역 군인 존 더블류 헤스 감독은 부모의 모임을 소집하여 자녀들을 잘 돌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1878년 3월,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다른 자매들과 함께 파밍تون에서 열린 상호 부조회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는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그 자매들은…… 나의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의 대회의 주제는 어린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의 난폭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딸들은 훌륭한 남편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겠어요? …… 어린 소년들이 보다 훌륭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을까요?”(오렐리아 에스 로저스, 일대기, 솔트레이크시티 : 조지 큐 케넌 앤드 선즈 출판사, 1898년, 207-8페이지)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이러한 질문에

크게 감명을 받아 총판리 역원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브리감 영 대판장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존 테일러 장로가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감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헤스 감독은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창립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스 감독은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에게 이러한 조직을 감리해 주겠느냐고 물었으며, 로저스 자매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렐리아 자매는 소년들을 위한 조직의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불이 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에 어린 소년들이 모든 선한 것을 배우고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로저스, 207 페이지)

그때까지 소녀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렐리아 자매는 소녀들이 없이는 조직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등협회의 초등이라는 말은 “첫번째” 또는 “최초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878년 8월 11일에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는 헤스 감독으로부터 최초의 초등 협회를 감리하도록 성별되었습니다. 헤스 감독의 제언에 따라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와 그의 두 보좌, 루이자 헤이트 자매와 헬렌 밀러 자매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들의 부모가 자녀를 기꺼이 초등협회에 보낼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준비한 결과 115명의 소년들과 100명의 소녀들이 1878년 8월 25일에 열린 첫 번 모임에 석조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 집회소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스런 메예렛

하나님 약속한 땅

그곳에 많은 어린이 모였네

구속받은 귀한 영
용감하고 썩 썩 해
복음 말씀 듣고
순종하겠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어린이의 노래를
하늘의 천사 같은
기쁨 가득 찬 얼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라.
(다 함께 노래를, B-24)

오늘날 교회는 이 충실하고 훌륭한 개척자 여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그녀의 선양을 강하게 만들어 준 역경과 시험과 결단과 사랑의 어린이 그녀의 태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울슨 스페너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그의 여섯 자녀들은 미주우리강을 배로 건너 급히 원터 웨터즈에 있는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통나무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나부를 떠난 후 곧 죽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신문을 발행하도록 브리검 영 대관장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겨울은 길고도 춥고도 의로운 겨울이었습니다. 원터 웨터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렐리아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초겨울을 어느 정도 잘 보냈다. …소 한 마리 남겨 두고 밀파 소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우유나 버터가 없었으며 식량도…거의 떨어졌다.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었다. 대부분 우리는 옥수수로 끼니를 대신해야 했다. 전될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질 때까지 참으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든 날이 많았다.” (로저스, 48, 50-51페이지)

어느 날 브리검 영 대관장이 스펜서 가족의 단칸 오두막집을 방문하고는 집이 깨끗

하고 어린 아이들이 깨끗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1년 전에 떠나 없었고 성도들은 서부로 떠나기 위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영 대관장에게 아버지가 차주 편지로 옷은 무엇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빗으며 아프면 어떻게 하고 서로 어떻게 돌보라고 써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영 대관장은 그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년 동안 더 영국에 계셔야 한다면 너희들을 어떻게 말하겠니?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하단다.”

어린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엘렌이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렌은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도 그 결정에 따르겠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행하고 싶으니까요.” (로저스 87페이지)

다른 아이들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써 보내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다.” (로저스, 62페이지)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그의 권고를 민었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1848년 봄, 스펜서 가의 어린이들은 굳은 결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안계시는 2년 동안 여섯 남매들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서 넓은 요새에서 생활하다가 단칸 초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지켜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나이가 가장 많은 두 소녀, 엘렌과 오렐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 뉴잉글랜드 침례 교회 목사였던 울슨 스페너 형제가 그의 영웅적인 가족의 환호와 입맞춤을 받으면서 귀향하였습니다.

다. 그는 새로운 페져펫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렐리아는 광야를 건널 때 마소 뱀 물이를 만나 사랑에 빠졌으므로 잠시 동안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여 파밍تون의 통나무집에서 신혼을 꾸몄습니다. 대 솔트레이크가 내다 보이는 위세치의 산턱에서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 자매는 그의 나머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에서 다섯 명을 모두 유아기기에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녀의 자녀가 사람에 따라 그녀는 주중에 건전한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초등협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는 온갖 고초를 이겨낸 자매였습니다. 모사이야의 다음과 같은 권고가 그녀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너희자녀를 헐벗고 굽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리니…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서로 사랑하고 서로 돋기를 가르치며”(모 4 : 14-15)

이처럼 조그마한 마을에서 온 세계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된 것이었습니다. 초등협회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되고 있습니다. 덕, 교양, 봉사, 서로에 대한 사랑은 초등협회에 목적과 힘을 더해 줍니다.

초등협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교재나 교안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도, 시간 엄수, 훌륭한 태도,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렐리아 자매는 다음 성구에서 힘을 얻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 64 : 33)

초등협회는 어린이들의 생을 풍요롭게 살찌우게 하는 목표를 앞으로도 완수할 것입니다. 어린이 개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생활에까지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켜야 하며, 오늘날의 문제와 압력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초등협회는 어린이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렐리아 자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복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가장 성스러운 부모의 책임보다 무엇을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나의 머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로저스, 206페이지)

초등협회가 지고 있는 책임이 막중하지마는 부모에게 면져진 목표는 더 큽니다. 해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뿐 아니라 마약, 악행에 대한 용납, 어린이 호색 문학 등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은 그들이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2세가 되는 어린이는 18,000명이 폭력으로 죽어가는 장면을 시험하게 되며, 12세가 되면 텔레비전 시청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무려 10,720시간이 되는 데에 비하여, 초등협회에 결석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해도 초등협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352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단 오렐리아 로저스 자매님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첫번째 한 세기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온 모든 초등협회 지도자와 교사를 기립니다. 로저스 자매의 좌우명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 값비싼 보배
하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여
한 아이도 잃지 않게 해주기를
(로저스, 204페이지)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 :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함이라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 스스로 그릇된 일을 하여 성신을 우리 가운데서 빼아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친구 하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성도들의 안부를 전해 드립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의 성장을 보면 참으로 기쁩니다. 현재 영국에는 27개의 스테이크가 있으며 남아프리카에는 한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력이 강하며, 사업이 나날이 확장, 발전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총판리 역원이 나오기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캐스버드 형제님, 형제님 고국의 성도들이 보내는 축하의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형제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주말에 스테이크를 방문할 때 나는 자주 스테이크부장에게 스테이크 내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습니다. 그러면 곧잘 이같은 답을 듣게 됩니다. “회원 개개인의 결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모든 생활의 일보다 우선에 놓고자 하는 결심이 부족합니다.” 나는 니파이의 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이서 31 : 15, 19-20)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는 성령의 빛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권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신은 우리의 생을 크게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빛은 너희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이시니라.

“그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11-12)

주님은 프레드릭 지 윌리암즈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만일 네가 끝까지 충실하면 불사불멸의 관을 쓰게 될 것이요, 내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내가 준비한 처소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8 : 5-6)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각 사람에게 그의 영을 주시어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고 인생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 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9-10, 12-13)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을 간구하는 데에서 오는 유익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남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줌으로써 가장 간단한 문제까지 밝혀 줍니다. 우리는 그의 암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의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우리의 권능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은 모든 남녀 가운데에 있어 전혀 암흑의 길을 걷지 않게 되며 교회의 대관장님이나, 십이사도나, 이스라엘의 장로에게서 권고를 염으려 올 필요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말할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때부터 우리 스스로 그릇된 일을 하여 성신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친구 하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성령, 즉 성신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 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 빛을 알아 더 이상 암흑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마련하신 위대한 방편입니다. (대회보고, 1898년 4월, 52페이지; 교리와 성약, 신학 연구원 대학부 통신 과정, 제2권, 425페이지)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을 잃을 것을 근심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30-32)

헤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어떠한 주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호와 안전이 임하는 때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때, 주님의 성령이 거하고 위로 하며 지시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변자로서 관리하도록 이 세상에 세우신 자의 말에 기꺼이 들으려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권고에 순종할 때입니다.” (대회보고, 1943년 4월, 129페이지)

교회의 활력의 근원은 신권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신입니다. 교회는 계시에 의하여 인도됩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영의 나타냄으로써 이야기된 내 경전의 일부가 실려 있는 옛 기록인 조각문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 듣지 얻게 된은 네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하도
다.

“참으로 그려 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
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
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라.” (교
리와 성약 8:1-3)

바로 이것이 교회 대관장에게 지시가 임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스테이크부장에게, 와드 감독에게,
교회 회원에게 지시를 주는 영도 이것과 똑
같은 영입니다.

나는 우리 찬송가 한 구절을 좋아합니다.

주여 내 영 감동하사

우리의 거룩한 목표

새롭게 보게 합소서

시내산의 불길로써
주 함께 함 보이시니
늘 저와 함께 합소서.

우리 맘이 뜨거웠다.

엠마오 두 제자 느껴

주 함께 함 깨달았네

주여 우리 언행 심사 지키시사
의무의 걸

똑바로 가게 합소서.

(찬송사, 174장)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위해 한 사업
의 진실성에 대하여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
다. 이 간증은 성신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좌로부터 기꾸찌 장로, 부쉬 장로, 피녹크 장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조지 피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동시에 사탄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전자를 버리거나 후자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젊은이로 가장 선택된 젊은이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아리조나 휠부르크 선교부의 선택된 혼신적인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교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준비되고 더 성숙하고 더 영적인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세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선택된 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목적을 위하여 이 말일의 격동하는 시대에 여러분을 내보내려고 여러분을 남겨 두셨습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 오는 선택된

영은 그들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전세에서 선택된 영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였고 용감하였으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서 눈으로 보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여러분의 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사탄도 보았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 여러분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 하였을 때 여러분은 주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충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생활하였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이 극악하고 격동하는 말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그의 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시험에 등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겼던 여러분, 참되고 충실하였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서 전에 그려했던 것처럼 다시 참되고 충실하여, 여러분의 만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의 사업을 수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도록 준비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해주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1.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취지 말고 먹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교성 121:45)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이것은 값진 진주입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부귀를 위하여 일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와 명예는 고결한 생활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고결한 생활에서 오는 부와 명예는 여러분 자신과 동

료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의로운 삶의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을 사랑하고 참되고 충실히 산 자로 기록되는 것이 세상의 친사와 영광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덕과 순결이 여러분의 방패와 갑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게 됩니다. 덕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곁으로 덕을 내어 보이도록 하십시오. 왕관의 보석처럼 금고에 넣어 보관해 두지는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려하니라”(고전 3:17)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덕은 하나님의 윤법입니다.

2. 청소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나바호 인디언 보호 지역의 소년으로서 나는 조그마하고 누추한 오두막에서 수없이 무릎을 끊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번 시련과 유혹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과 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무릎을 끊고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친형제들이 나를 보고 웃고 놀려 대며 소리를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방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서부터 무릎을 끊고 하나님께 유혹을 이길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젊은이는 유혹의 악마가 그 자체의 힘을 끊고 그다지 매력이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도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근육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무릎을 끊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크기와 필요 사항에 꽉 맞는 간증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여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는 간구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남과 청녀는 페이트하기 전에 기

도하여야 합니다. 누추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나바호 소년은 무릎을 끊고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년은 기도하는 성인이 되며, 기도하는 성인은 하나님입니다.

3. 젊은 친구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의 의를 위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설 곳을 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 섭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결심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유혹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결정하여 행동하여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기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인디언 보호 지역에서 자란 나바호 소년, 가족 중 유일한 물론이었던 나바호 소년인 나는 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친구들로부터 여러 번 유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의 친형제 자매들도 나를 유혹하였습니다.

나의 형제들은 내가 그들의 방법대로 살기를 심히 원하여 어느 날엔가 나에게 기습하여 나의 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나에게 술과 맥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반항하면서 힘껏 벼쳤습니다. 가까스로 나는 그들로부터 빠져 나와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혈육과 자신의 친형제 자매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4.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의 형

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며, 본질은 하나님의 우상이며”(교성 1 : 16)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동시에 사탄과 하나님 모두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전자를 버리거나 후자를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룩 음악이나 그 밖의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더 숭배할 때 우리는 사탄과 손을 잡고 흑암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일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님의 우상”인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쫓아 여러분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계의 스타, 영화 스타, 룩 음악계의 스타, 돈, 그리고 자동차 등은 세상의 모습이며, 그 본질은 우상입니다. 그러한 것을 섭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신권 지도자에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련시키십시오. 불순종은 모반과 영적인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메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권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순결하라고 권고하면 그 권고를 듣고 따르십시오. 주님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권고하시면 그 권고를 듣고 따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노니,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6. 청소년 여러분, 부지런히 경전을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전을 사랑하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표준 경전을 구비하십시오. 경전은 정신을 교화시키고 힘과 용기와 평화와 평정을 가져다 줍니다. 불건전한 세상적인 책은 정신의 암흑을 가져다 줍니다.

경전은 젊은이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가도록 준비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수행하도록 도와 줍니다. 경전은 청녀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는 준비를 시켜 주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 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경전은 세상을 이기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여러분이 해의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명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 : 38)

청소년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서서 올바르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잃기에는 너무나 선택되고 순진하며 아름답습니다. 유혹을 자초하는 일을 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하십시오. 가장 나쁜 유혹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마련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구식 사람”이라고 놀려 떨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요 15:18-19)

젊은이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유별난” “이상한” 사람 이 되는 것은 재미있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증오를 극복하여, 편견을 극복하고, 낙담을 이기고, 세상적인 인간을 이기고, 전세에서와 같이 참되고 충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여러분은 시험에 통과되었읍니다. 여러분

분은 용감했고 순종적이었읍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용감하고 순종적 이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가 “지옥은 한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유혹일지라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악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피하고 조심하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음은 힘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의 자원은 청소년이며 국가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의 자원도 청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관장단



결정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모 슨 형제님이 젊은이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할당된 시간과 통역자들을 생각해서 나의 충동을 눌러야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결정을 강요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내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결정의 은사도 숙련을 필요

로 합니다. 더 많이 결정할 수록 더욱 쉽게 됩니다.

이것은 농장으로 일하러 간 어느 도시 소년과 흡사합니다. 그가 갑자를 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농사 일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좋아합니다만 이 결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그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결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의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부장이 해야하는 결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39)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복음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현재의 인간처럼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셨으며, 현재의 하나님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로렌조 스노우, 1892년 1월 11일, 말일의 예언자의 말씀,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북크래프트 1951, 72페이지)

인간이 현재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나 신권 축복을 통한다면 무슨 문제이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학교에 다녀야 하며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 등등을 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나 축복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에

대하여는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의 불사불멸과 영생, 다시 말해서 승영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계보를 탐구하여 여러분이 하기 좋아하고 쉽게 하는 일로써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계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교성 9 : 8-9)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성구를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든지 입으로든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유의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1831년 미주우리주 쟈슨군에서 주어진 계시에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메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루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58 : 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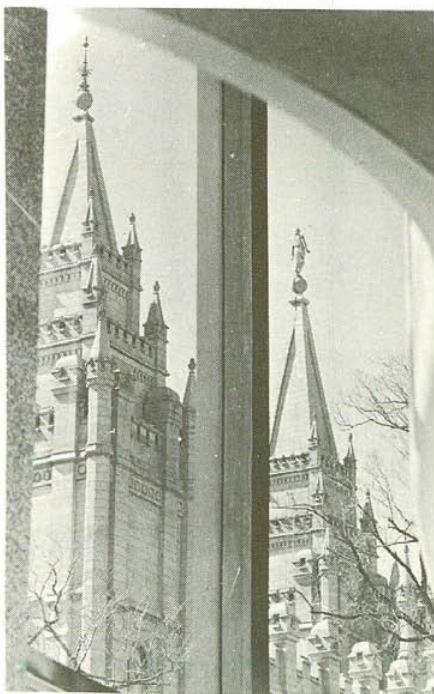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

에서 내려 오실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출 32 : 26)가 누구냐?”고 말하며 여호수아가 외쳤듯이 이같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너희 섬길 자를 오늘 날택하라”(수 24 : 14-15)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부정적을 버리고 정직을 택하며,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바랍니다.

어서서부터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찌기 선교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선교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년 동안만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년 동안의 선교 사업은 다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만을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생애 동안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으로 가르치십시오. 훌륭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부도덕과 대항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외설 문학에 대항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주님의 집에서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해의 왕국의 윤법대로 생활하리라고 결심하십시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해의 왕국의 결혼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서약을 지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교성 132:19) 이것은 주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 아기보다 더 무죄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왜 주님은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언급하셨을까요? 임신이란 여러분은 육신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영을 넣어 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주님의 성약을 어떠한 것이든지 범할 때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경전을 연구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복음 계획이 무엇인가를 배우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결심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본분을 다하십시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듯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나 혼자서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새로운 총관리 역원의 결의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으며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교성 59:8)으로 그에게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대의 중요성과 그 초청의 의미를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깊은 감사와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이 부름을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울타리 기둥 꼭대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작은 거북이처럼 나는 나 혼자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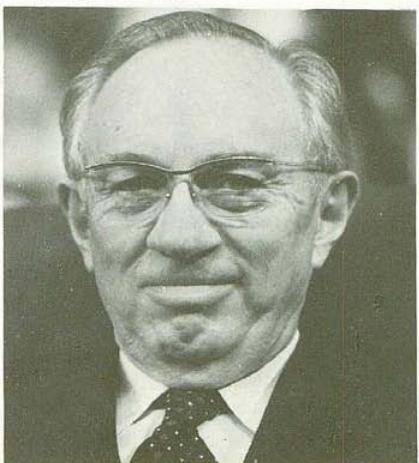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 교사, 지도자 및 여러 친지들에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애를 돌아보 볼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반면에 훨씬 더 보람찬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앞으로 놓여진 생활을 준비하는데 어

떠한 방법으로 도움이 될 것을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일생 동안 구세주의 대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이 봉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킴볼 대관장님과 그 밖의 총관리 역원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를 지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에게 임할 어떠한 임무라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 30년 전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간절히 기도한 덕택으로 성령은 나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시고 우리 각 사람의 구속주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영으로부터 그의 복음이 영원히 참되며 이 복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경전(물론경을 포함하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포함하여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식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참된다는 것을 간증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고든 비 헝클리 장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세기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노니 그 날이 이제 왔습니다!”

최근에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3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외국 기자들과 몇 차례의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기자들은 개종자의 증가에 의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신앙과 영성이 급속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말을 뒷받침 해 주는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이 되었던 1943년에는 성찬식 모임의 평균 출석율은 약 20퍼

센트였으나 오늘날의 전세계적으로 평균 약 41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모임의 출석율은 46퍼센트이고, 어린이들의 모임인 초등협회의 출석율은 67센트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교회 회원의 성장, 발전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단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근거를 둔 풍부한 프로그램의 결과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열두 제자에게 이것이 때의 표적의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 : 14)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나라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다니엘이 받은 시현과 계시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 할 하나님의 왕국이 말일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조셉 에프 스미스,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1 : 44)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이 왕국의 시작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둘이 온 세상을 덮을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단 2 : 34-35, 44-45참조)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현재의 계시로 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려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체 산에서 뜨인 둘이 굴려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리와 성약 65 : 2)

이것이 이 교회와 왕국에게 주어진 하늘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일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 : 3)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의 인도와 영

장 없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계속될 것을 기대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반대를 받지 않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845년에 십이사도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성장하여 점점 더 정치적 및 종교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감에 따라…어떠한 왕이나 통치자나 신하나 사회나 개인이라도 중립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이 영 아니면 다른 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항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5권, 솔트레이크시의 : 북크레프트, 1965-70, 1 : 257)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교성 82 : 14)

의가 증가되면 그것에 비례하여 악도 증가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증거를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때때로 교회 회원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이를 돌아 보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악인을 노여워 하나님…

“나는 진노하여 맹세하였고 지면에 전쟁을 명하였으니,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리라.

“성도들도 도망가기 힘들 것이나 주는 저들과 함께 하여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내려가 끼지지 않는 불로 악인을 불태워 없애리라.”(교리와 성약 63 : 32-34)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의 조부이시며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히버 시 킴벌이 예언하신 예언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고결성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압력이 날로 심하여져 그들 중 보다 의로운 자들이 구원이 임할 때까지 밤낮으로 주님께 울부짖을 것입니다.”(“히버 시 킴벌의 예언”, 페저렛 뉴스, 교회편, 1931년 5월 23일, 3페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경고와 우리 앞에 놓은 확신과 늘어나는 악의 증거를 보면서 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사회의 악을 틀추어 내는 일을 좀더 행하지 않는 것습니까?” “세상에는 무서운 악의 음모가 있습니까?” “학교와 일반 사회에 침투한 그릇된 사상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불안정한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과 딸에게 대학 교육과 장래의 직업을 준비시켜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가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세상의 빛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교성 103 : 9)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교성 82 : 14)는 때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대조는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정직, 유덕, 진실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모든 악과 모든 거짓 가르침을 거절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대광장단과 십이사도는 거짓 가르침과 악을 대항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아 세상과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경고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 음모의 근원은 사탄과 그의 무리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큰 힘을 미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모세서 4:4)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정부를 통하여, 그릇된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및 사회의 사상을 통하여, 비밀 사회나 조직을 통하여,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의 힘과 영향력을 참으로 키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에 따라 사탄의 사업은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정직하고 유덕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응호하는 굳은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은 자녀에게 정부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상점에서나 극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전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현재의 세대가 다음의 세대에게 빛과 불필요한 허영을 지우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문위기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은 정부의 지도자를 선출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 자유로우며……그러나 악인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백성이 애통하느니라. 그런고로 너희는 정직하며 혁명한 자를 힘써 찾아 구하라.” (교성 98: 8-10)

각 지역 사회, 각 주나 도, 그리고 나라에서 보다 견고하고 더스러운 영향이 긴급하게 요청됩니다. 공공생활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선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교회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메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계으른 자요, 혼명하지 못한 종이라……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 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58: 26-28)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것은 널리 퍼지게 하고 불건전한 것은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회정사, 5: 286)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고 온 인류를 위협하는 악의 홍수를 막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가장의 주된 책임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돋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강화시켜 효율적인 가정의 밤을 통하여 복음의 원리는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 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가르침은 신앙, 간증 그리고 낙천적인 태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세상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죽은 친족을 구원하며, 교회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시간과 계획과 자원을 소모한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께 그가 왕인지 아닌지를 물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세주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 그의 말은 오늘에 적용되는 대답입니다. 그의 왕국의 사업은 분명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냉정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계시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 … 의로운자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느니라. 불로 치시는 날에라도 의인은 구원받으리라”(니파이일서 22:17)

“내가 너희 싸움을 맡아 싸워주리라.”(교리와 성약 105:14) “너를 칠 목적으로 만 들어진 무기가 유용하지 못할 것이요, …… 주의 종된 자들의 기업이요”(니삼 22:17)

“시련이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을 것이로 뵈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모세서 7:61)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워지지 않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계 11:15) 될 때까지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이 이 사업을 막지는 못 합니다. 펑박이 심하여지고 폭도들이 결탁하여 군대가 소집되고 중상모략이 성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을 침투해 들어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사람의 귀에 울리게 되며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되고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게 될 때까지 과감하고 힘차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정사 4:540)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세기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노니, 그날이 이제 왔습니다!

전 세계의 밀일성도에게 말씀드리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사적인 견해에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 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권고받아 왔듯이 복음 전파를 위한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국가 당국에 대하여 저항하지 마십시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시십시오.

“악인에게 굴복하지 말고 항상 선으로 대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말씀드리노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마 6:33)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과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게 하여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위에 쏟아져 내려울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 (교성 115:5-6)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 들일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올 그 날을 마지막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교리와 성약 65:5-6)

겸손하게 간증드리노니,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메시지와 축복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하다는 간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신을 들메라”

하워드 더블류 혼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 청소년에게 : “준비하고 믿고 대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십시오.”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솔트레이크시의 물론 태버내클에서 열리고 있는 이 신권회 모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듣고 싶으시면 들으셔도 좋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임프트브먼드 이라지의 청소년단에서 “신을 들메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시골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선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간신히 팀의 선수가 되진 하였지만 우수 선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사실상 그는 제일 하위 선수였습니다.

축구 시즌이 끝나게 될 때까지 그는 한번도 게임에서 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희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해의 마지막 게임이 열릴 때 그는 구두를 벗어 놓고 모포로 몸을 덮고 앉아서 동료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중반전 쯤 들어 갔을 때 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코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으며 자기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코치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어서 들어 가서 공격해!”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첫번째 그의 머리에 들어 온 생각은 기절을 해 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 그는 못들은 척 할까 생각했습니다. 세번째로 그는 “잠깐만요. 구두 끈좀 끼고요”라고 코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남자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면서 뛰어 나갔습니다. 흰 양말만 신은 그의 발은 양쪽 팀 선수들의 시선은 물론 관중과 코치의 시선도 모으게 되었으며, 그것을 본 코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팀의 공격을 리드했습니다. 그러나 첫번 경기에서의 충격은 그를 매우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공을 받았을 때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의 팀 선수들은 오른쪽으로 뛰었지만 그는 왼쪽으로 뛰었습니다. 결국 반대 편 팀의 방어에 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내가 접수를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뛴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을 신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성도의 벗 1969년 2월호 참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에게 복음의 신을 항상 신고 다가올 기회를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선거에 출마하여 계속 낙선될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나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고 기회는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평

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앞으로 왕국을 도우는 데 필요하여 부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동행과 우정과 봉사와 표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임무는 여러분 생각에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그러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있게 될 보다 큰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울리버 카우드리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그의 신을 잠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역사의 큰 오점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경기를 번역할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서기로서 봉사하였으며, 주님은 그에게 그도 번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6 : 25 참조)

울리버는 그가 갖추어야 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대한 믿음이 약간 흔들렸으며, 그는 “제가 준비할 동안 기다리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업은 거의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번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계속하지 아니한 연고로 내가 네께서 이 특권을 거두어 갔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였고 시간이 허려갔으니 이제는 필요 없느니라,” (교성 9 : 5, 11) 일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영원히 놓쳐 버렸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분의 준비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장례식에서 그는 사랑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가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리 대관장님의 장수와 복지를 위하여 교회 내에서 내 아내 카밀라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야망이 없읍니다. 나는 리 형제님보다 4살 위입니다(정확하게 3월

28일이면) 나는 리 대관장님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줄로 여겼습니다. 나의 가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매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엔사인, 1974년 2월호, 86페이지)

분명히 캠볼 대관장님은 교회 대관장이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부름이 왔을 때 그는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까이 대할 수 있었던 여러 해동안 보면 캠볼 대관장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도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그의 신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도 “준비할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언제가 이 부름이 그의 것이 되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지만은 온 생애를 통해서 그는 지금의 임무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해 전, 캠볼 대관장님이 오늘밤 나의 음성을 들고 있는 여러 청소년의 나이 또래였을 때 시작되었던 준비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14살이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 한 분이 그의 아버지가 감리하시는 스테이크 대회를 방문하여 회중에게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캠볼 대관장님은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한번도 성경을 읽는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있던 그날 밤에 나는 한 구역 떨어져 있는 점으로 걸어가 곧장 집 맨 꼬매기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은 석탄 기름 웨프에 불을 붙이고 창세기 첫장을 읽었었습니다. 일년 후에 나는 그 크고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14세의 소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미가 없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6권, 1, 189장 1, 754 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는 나는 목표를 세워 그것을 성취했다는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석탄 기름으로 밝힌 등

불 아래에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전기 불 아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 뿐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기쁨이 항상 깊게 자리잡고 있었읍니다. (성도의 벗, 1974년 9월호,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 34페이지)

이와 같은 방법과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어린 스펜서 울리 킴볼은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를 꿈꾸지 않으면서 준비하셨읍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노니—준비하고 믿고 대기하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을 제한할 말이나 행동을 삼가십시오. 부름이 올 때를 준비하십시오. 부름은 언제고 반

드시 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계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즉 서서…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엡 6:14-15)으십시오. 오늘 저녁 주님은 그 옛날 천사가 시몬 베드로에게 하였듯이 이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신을 들메라…따라 오라”(행 12:7-8)

신권을 소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 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며 우리는 이 훌륭한 모임에서 그와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버트 월 실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실억의 인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매 6개월마다 이 훌륭한 교회 전체 신권회 모임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지나고 있는 잠재력을 펼쳐 할 만한 힘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트랜지스터, 인공 위성 등으로 먼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현대의 기적에 감사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구를 반쯤 돌아야 하는 호주의 퍼스에 있는 선교부장 브루스 오퍼부장님이 선교사들과 함께 앉아 이 모임을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읍니다. 그곳은 이미 내일 아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칼로스가 이 모임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한 밤중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언자의 가르침을 듣는데 몇 시간의 짬을 끗았다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칼로스는 지금 주님을 위한 선교사로서 그의 인생의 이년 동안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읍니다.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내를 걷고 있노라면 길가에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문이 많이 눈에 띵었습니다. 각 은행에서는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6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4개월 전에 한 선교사가 호주—뉴질랜드 선교부에서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 선교사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이년 간의 투자에 대한 주님의 이자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배웠고 그의 응답을—비록 안된다는 응답일지라도—식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전에는 지녀보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신뢰를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또한 분별의 은사를 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선교 지역에서 저는 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이래 저는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아무 두려움 없이 대학 교정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발표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훨씬 정돈되고 깨끗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어머니조차도 믿지 못해 하

십니다!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다마는 그러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럼 이제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셔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잘 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접견을 기다릴 때 저는 주님께서 저의 수고를 기뻐하셨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부장님께 보고할 때 저의 가슴은 흥분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선교부장님께서 저의 눈을 보시면서 장로님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둘이켜 볼 때, 제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감과 화평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귀환하여 성찬식에서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떨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읍니다. 그 특별한 주일이 지난 후 저의 감독님이 이곳 브리감 영 대학교로 제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의 말씀을 듣고 와드에서 세 명의 청소년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적어 보내셨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도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가치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하던 때까지도 고맙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생이 저의 성품을 강하게 해 주었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머물러 있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구세주와 맷은 관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선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후하신 은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6퍼센트나 8퍼센트의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천 퍼센트의 이자를 주십니다. 또한 일시적인 이자가 아닌 영원히 계속되는 이자를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발전이라는 한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선교 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주님의 심부름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는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완전히 비이기적인 욕망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신권의 권능을 지니고 주님을 대표하는 임무를 지닌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름은 항상 우리가 편리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속삭이고 지시가 올 때 옵니다. 선교 사업의 부름을 받는 것은 쉬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수고와 신앙이 요구됩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최근에 성임된 집사이거나 오랜 경험이 있는 대제사이거나, 신권 소유자의 임무는 선교사의 부름에 대하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으면 주님은 여러분이 자신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선교 사업을 마쳤으면 주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십억이나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급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말하는 선교부로 부름받을 것을 준비하였으나 뉴질랜드의 크라이스처치라는 이상한 곳으로 가도록 예언자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젊은 멕시코계 미국인인 안구이아노 장로에게 일어난 최근의 한 일화를 이야기 함으로써 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페인어를 열심히 준비한 젊은 청년이 스페

인이라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나라로 보내졌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립 손타그 선교부장은 이 선교사의 도착을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영어만 통용되는 이 선교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이 선교사를 어느 곳에 배치시키는 것이 적합한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오자 손타그 부장은 이 새로 부름 받은 장로를 곧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휴가를 즐기려는 일반 탑승객의 웃차림과 대조적으로 정중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그가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터미널 전물로 가까이 오면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빨리 선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는 선교 부장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팔을 벌려 벡시코식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먼 뉴질랜드에 와서도 그의 풍습은 여전하였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첫 마디는 “선교 부장님 저는 칠례를 주려 이곳에 왔습니다.”였습니다.

선교 부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한 선교사의 훈련을 말도록 그의 보조를 그 직에서 해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지시를 받아 손타그 부장은 세번째로, 그의 보좌를 해임했으며 중국인과 마오리인의 부모를 가진 이 훌륭한 청년을 쿵 장로와 동반자가 되게하여 “민족 연맹”을 결성하게 하였습니다.

3주가 채 되기도 전에 손타그 부장이 이들 두 선교사로부터 아마도 뉴질랜드에서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새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 철례인 가족은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구이아노 장로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필요 사항을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칠레에서 백여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기 위해 수속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구이아노 장로와 새로 칠례받은 가족은 이들 가족들과 우정을 증진시키고 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계 각 곳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하여 예언자께서 그에게 하도록 주어진 것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 을 높이 교양시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도덕과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이기심과 인간의 오만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전져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덕으로 장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교성 121 : 45 참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높은 곳에서서 다른 사람을 교양시킬 수 있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름이 언제 오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디로 가도록 부름을 받게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와드 내에서 일 수도 있고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 42) 오늘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신권 소유자들은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예임된 자들이므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것을 나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계시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의롭게 생활하면 그 부름에 대한 계시를 받
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 름다운 음악을 들려 주신 합창단의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
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기원과 그 존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끊임
없는 계시의 원리에 두고 있습니다.” (“대관
장단의 정체에 관한 성명”, 처치 뉴스, 1970
년 1월 10일, 12페이지)

넓은 의미의 계시란 “하나님으로부터 인
간에게 전해지는 통신”이라고 정의될 수 있
습니다.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으
로부터 옵니다.

이 말일에 첫번째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
는 주께서 그의 생각과 뜻을 인간에게 전달
하시는 모든 방법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첫번째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부활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
제 방문이었습니다.

“첫번째 시현”이라고 불리우는 이 첫번째
계시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계시는 끝났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가정을 전
복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인간이 실
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은
목적과 뜻에서는 하나이나 사람으로는 완
전히 구별된 두 사람의 인격체임이 확인되
었습니다.

예언자는 천국에 있는 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경으로 번역이 된 금판의
위치를 가르쳐 준 모로나이의 경우가 이러
한 경우입니다. 또한 후에 칠례 요한이 와서
아론 신권을 회복시켰고, 베드로 야고보 요
한이 와서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시켰고 커
들랜드 신전의 시현이라고 불리우는 시현에
서 언급되는 분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교성
13, 27, 110 참조)

교리와 성약을 읽어 보면, 그곳에 기록된
많은 계시가 예언자가 우림과 둠밈을 사용
함으로써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예언자가 물론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시현으로 하늘의 예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생각을 주관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
습니다. 사실 교리와 성약의 많은 부분이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면 주님의 이 지상의 그의 자
녀에게 뜻을 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둘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은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
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에 서신 것을” (행 7:75) 보았습니다. 둘
을 던질 때 함께 서 있던 사울은 스데반과
그 밖의 예수를 쫓는 자들을 펍박하는 자였
습니다. 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서 그는 “하늘로서 빛”을 보았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펌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펌박하는 예수라”(행 9:3-5)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길을 변경하여 바울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으며 구세주의 충성스러운 추종자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꿈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몇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해석하도록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방백들과 술객을 불러 보았으나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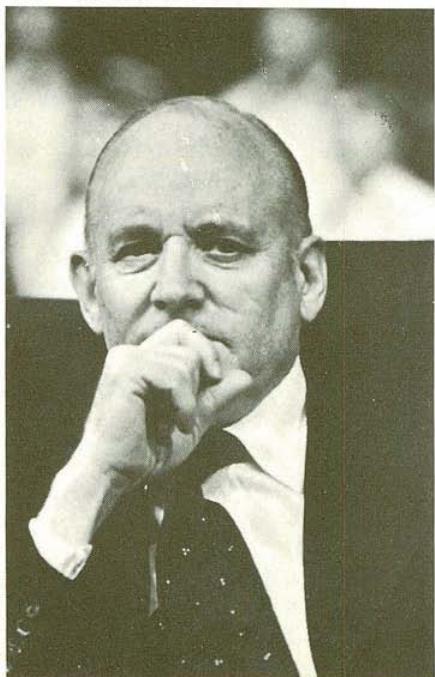
바로의 꿈은 이려했습니다. 그가 강가에 있는데 일곱 마리의 소가 강에서 나와 물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소들은 살찐 소들로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일곱 마리의 소가 또 강에서 올라왔는데 이 소들은 여원 소였습니다. 이 여원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창 41:1-4 참조)

바로는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는 젊은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맥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가는 행상인인 이스마엘인에게 팔리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바로가 그의 꿈을 말하자 요셉은 그 꿈을 해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칠년 동안 풍년이 돈 후 그 다음에 칠년 기근이 따를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드는 칠년 동안 잉여 농산물을 비축하여 다음에 오는 기근을 대비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바울은 깊이 감명을 받았으며, 요셉을 크게 신임하여 비축 계획을 책임지도록 임명하였습니다. 요셉은 무제한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 받았으며, 애굽에서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 41:9-40, 37:28)

주님의 음성이 사람의 머리에 온 좋은 예

로 이노스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노스는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었으나 젊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는 약간 반항적이었으며 몇 가지의 사소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에 질서를 잡고, 의롭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노스는 사냥을 몹시 즐겼습니다. 어느날 그가 사냥을 하려 숲으로 갔을 때 부친의 가르침이 강하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끓고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온 종일 용서를 구했으며 밤까지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또한 그는 그의 형제들을 걱정하여 형제를 위하여도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마음에 임하여 확신을 주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되었습니다. (이노 1-17 참조)

특정한 교회 지도자들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되고, 그 부름에 관련하여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다른 누수가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웨소, 솔트레이크시티 : 테저렛 출판사, 1941, 제3장 35페이지) 부모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드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와드 회원 또는 스테이크 회원에 대하여 계시를 받을 권리(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나는 분명하게 믿고 있음을)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생활하면 그 부름에 대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만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을 권리(권리를 갖고 있음을)…현존하는 교회의 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은 이러한 권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지도자의 말씀이 경전화될 수 있는 경우” 처치 뉴스, 1954년 7월 31일, 2페이지)

오늘날 우리를 계시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이끄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고를 따르기 위하여 지혜와 좋은 판단력을 지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신권의 책임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요셉, 다니엘, 니파이, 물론 그리고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나타난 덕성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드리는 말씀이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권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몇마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먼저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권 소유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호텔에서 토요일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는 시끄러운 이야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시 천박하고 더럽고 품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들임을 알고 저으기 놀랐습니다. 나의

머리 속에는 짐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늘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다음 계시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는…죄 짓을 수 없으며…어린 아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저희 아비에게는…… 더욱 큰 일을 요구하도록 하였음이니라.”(교성 29 : 46-48)

이 어린 아이들과 아비에게 요구된 큰 일을 소홀히 한 그들의 아버지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되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다음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온…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려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28)

이러한 지시에 관하여 교리와 성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 의식주와 교육을 해결해 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일 성도 부모에게는 보다 중요한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자녀를 초등협회나 주일학교나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부모 자신이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모도 자녀가 기도하는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을…배우는 것을 지켜 봐야 한다.”(하이람 엔 스미스의 제인 엔 쇼달, 교리와 성약 주석, 개정판, 솔트레이크시티 : 데셔렛 출판사, 1972, 414페이지)

우리, 아버지들이 자주 교리와 성약 43편 40절부터 50절을 읽으면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책임을 명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여덟 살이 되는 때부터 여러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교화되었습니다. 때때로 양심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영은 여러분이 여덟 살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울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열두 살에 대부분의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의 신권의 능력과 권능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신임하셔서 여러분에게 그의 교회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기능은 구세주께서 친히 하셨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구세주나 그의 제자들이 수행했던 것과 똑같은 위엄과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아론 신권의 책임에 관하여 주님은 교회를 조직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교사의 의무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둘보며, (교리와 성약 20:46-47, 53, 55)

집사의 의무는 성찬을 전달하고 금식 현금을 모으며 “경고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교성 20:59 참조)

여러분에게 임명된 아론 신권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녀 멘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교성 84:34)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권에 대한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리와 성약 84:33-34)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아론 신권 시절부터 그 초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덕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였던 도덕적인 순결의 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일곱 살의 나이에 그는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 “바울의 신하…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민완한 행동에 감동을 받은 보디발은 그에게 가정과 가사일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요셉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번 그를 유혹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들키하리이까”(창 39:9)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그를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결한 성품때문에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어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바로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밤 이곳에 모인 우리의 대부분은 그의 후손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의 모든 신권 지도자는 요셉의 순결의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은 용기의 표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빌론으로 끌려가 느브갓네실 왕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세 명의 회보리인 친구들은 지혜의 말씀을 범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좋지 못한 기름진 음식과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 1:5-16 참조)

후에 다니엘은 두 왕에게 왕이 받은 시현에 대하여 주께서 다니엘에게 밝혀주신 해석을 전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첫번째 왕에게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되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둘째 왕에게는 권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단 2:36-45; 4:24-27; 5:26-29)

절대 군주에게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다는 것은 어린 다니엘에게 큰 용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백합으로써 또 다시 용기를 입증하였습니다. (단 6:7-23 참조)

커다란 신앙의 데온 어린 니파이에게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일서 3:7)

이 말은 주님께서 부친 리하이를 통하여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레이벤으로부터 기록을 가져 오라고 명하셨을 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형 레이벤이 레이벤으로부터 기록을 그들에게 넘겨 주도록 설득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레이벤은 레뮤엘과 함께 기록을 포기하고 다시 부친이 있는 광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니파이는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에 계신 부친께로 돌아 가지 아니할 것이니” (니파이일서 3:15)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들 상속의 땅에 있는 금은과 값진 것들을 가져다가 레이벤에게 주고 그 대신으로 기록을 받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으나 역시 결과는 없었습니다.

형들이 기록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가자고 하자 불평하는 형들에게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자.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 레이벤과 그의 오십이나 철혹 수만의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보다 강하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니파이일서 4:1)

니파이는 주님의 영에 이끌리어 혼자 가서 기록을 가져 왔습니다.

니파이의 신앙은 강하였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름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몽돈의 말씀을 살고하십시오.

“엠마론이 기록을 주 앞에 숨기려 하였을 때(그때 내 나이 십여 세로...) 내게로 와서 이르기를...

“네 나이 이십 사 세쯤 되거든 이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잘 살펴 기억해 두었다가... 시므라 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이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맡기었으니,

“...니파이의 판을 취하되, ...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들에 판하여 보아 온 일을 모두 기록하라” (물 1:2-4)

몽돈은 이 지시를 겨우 열살 때에 받았습니다.

오년 후에 그는 이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니파이 인과 레이벤인 간에 전쟁이 일어 비록 나이

는 어렸으나 체구가 큰 나를 백성들은... 저들 군사의 지휘자로 삼은지라.

“내 나이 열 여섯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니파이 군대의 앞장을 서 나아가니,”(골 1:15 : 2 : 1-2)

아직 어리다는 구실로 자신의 직책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려는 아론 신권 소유자는 물론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에 위대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보여지는 고상한 덕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그는 애급의 요셉이 보인 도덕을 지니고 있었고 다니엘의 용기와 니파이의 신앙과 물론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읍니다.

그는 열네 살에 야고보의 약속을 실천할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해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그렇게 행하여 그는 첫번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시현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그가 보인 용기와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이 말이 종교 교사들 간에 나에 대한 심한 반감을 일으켰고 이것이 심한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일개의 소년이었고 다만 만 십 사세를 넘긴 소년으로 더우기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하등 세상에 보잘 것 없는 자였지만 당시의 고위 인사들은 인심을 선동하여 편박을 가할 만큼 나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우기 이러한 일은 모든 교파에 공통되어 있어서 모든 교파가 연합하여 나를 편박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에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할 때에 그가 분명히 빛을 보고 소리를 들어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가 거

짓을 말한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여 조롱받으며 욕설을 들었던 때와 꽤 비슷한 심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가 실제로 시현을 보았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현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시현이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심한 박해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편박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최후의 숨이 질 때까지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으려 할 것이며 그가 빛을 보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온 세상도 그로 하여금 달리 생각하게 하거나 달리 믿게 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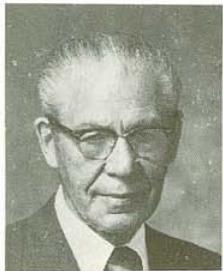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 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22, 24-25절)

어린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앞서 가신 훌륭한 분들처럼 성공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훌륭한 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소년들이 행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행하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추천 받기에 합당한 자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추천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신권 안에서 발전하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잠 시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특권이요 또한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임에서 발표된 모든 말씀과 음악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을 듣고 계신 모든 신권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모임을 듣고 계실 수 많은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신권지도자와 신권 소유자와 그 밖의 장래의 지도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현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미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이상과 표준이 가장 좋으며, 그들이 이끄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

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권을 통하여 현재 우리 늙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직분을 맡게 될 젊은이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장차 총판리 역원이 되어 이 연단에 서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의 한 사람은 교회의 대관장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충실히 진실하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새롭고 더 중한 책임을 예비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함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한 주님에게 속한 자로 헤아림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유능한 종이 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필요 조건은 권능을 지닌 자로부터 올바르게 추천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관장단과 몇몇 총판리 역원들은 지금 교회 회원이 살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 열릴 일련의 지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려는 나라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비자나 여행자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서에는 관계 부처의 합당한 인가가 있어야 하며, 모든 규정이 올바르게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우리는 원하는 나라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레이비드 헤이트 장로가 뼈시코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국경 지방에 다달았을 때, 입국에 필요한 서류 몇 가지를 가져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청을 해 보고 그의 사명의 급박함을 이야기해 보기도 했지만 관원은 정해진 서류 없이 그를 입국

시기지 않았으므로 그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신권 승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직분에서 다른 직분으로 승진되기 위하여는 합당하게 추천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서 없이 몰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각되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형을 받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범법을 한 사람이 속여서 신권 승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선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며, 그러한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계에서 사업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직 또는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하여 추천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직장의 장으로부터 고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추천서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합당하고 정직하며 믿을 만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으며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며 일을 미루지 않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항상 기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그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는 그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좋지 못한 성품때문에 혹은 나의 판단으로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만족할 정도로 수행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는 난처해집니다. 사실 나는 대개 그 사람을 보증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의뢰에 응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적성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도덕관, 정직성, 고결성, 책임감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성품 이외에도 인류의 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자라야 합니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이 직업을 택하여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안일과 편의는 돌보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자신의 시간을 바칠 준비가 된 자라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무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침착하고 분별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소견을 구두로 그리고 서면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고객이 자신의 상품을 사가도록 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서나 안내인은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은 맡겨진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인생의 적소를 채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 쪽에는 그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글이 적혀 있는 일련의 카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제목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이 달린 카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험을 치루고 있는 반 하나가 있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인격을 믿고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루게 하였다. 양심과 반 친구의 반대만 없으면 학생들은 완전히 참고서를 보거나 다른 학생의 답안을 보고 베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현대의 청소년들을 비판하는 몇몇 사람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이것이 동료 학생들에게는 보통이며, 심지어 어떤 교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목과하고 있다고 한다. 반에서 부정행위를 행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운동 팀이나 그 밖의 특별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동료 학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부모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또는 낙제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이유 중 어느 것도 정직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시간과 양심의 시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정 행위는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최초의 기만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우리의 전세의 영을 속여 자유의지를 소유하는 생득권과 영원한 진보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사탄은 패했었습니다. 기만자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든지 또는 그보다 더 악한 형태로 속이든지 속이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일에서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정직에 대한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것인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봉사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보석이나 의복 등은 개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됩니다. 거정에서 이러한 정직의 원리를 배우고 지킨 어린이는 가정 밖에서도 이 원리를 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른 사람의 권리나 소유물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외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표준에 어긋나는 것 일지도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칙과 타협함으로써 일생에 미치게 될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자라서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부모를 위하여 일을 하든지 이웃을 위하여 일을 하든지 자기가 받는 임금에 대하여 정직한 노동을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시작하는 일은 대개 신문 톤리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인들이 이 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 신속성과 책임감을 익혔습니다. 나는 날씨에 관계없이 항상 신문을 배달하는 한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명랑하고 예의바르고 신속하게 배달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좋아하는 고객이 많았으며, 새로운 구독 신청을 받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훈련을 받은 것은 그가 가장 성공적인 실업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소년은—이 소년과 같은 소년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제 시간에 신문을 배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신문을 아무렇게나 섞어서 배달하여 그에 대한 독자들의 불평이 신문사로 쇄도하였기 때문에 결국 신문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트랜스캐나다 파이프라인 회사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사무실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 굽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부름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성거리는 소년이었습니다. 결코 출선해서 일을 돋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일이 그가 다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아지자 우리는 그보다 더 어린 소년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민첩하고 도움이 될 만

한 다른 일이 또 없나를 살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심부름을 다 하고는 또 다른 일을 찾거나 구했습니다. 몇 개월 안에서 그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다른 파로 발령되었으며 불과 이년 동안에 세 등급이나 승진되었으며 봉급도 오르고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소년은 여전히 급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소년단장으로 봉사하면서 소년들의 차이점을 파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소년들은 민첩하고 열심히 배우려 하고 소년단 서약과 약속을 지키려 하고 봉사하려 하고 모든 상황 하에서 자신을 들보는 것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배우려 합니다. 자신의 기회를 선용하여 얻은 훈련으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소년단원의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일을 안하고, 어리석은 짓을 들키지 않고 하는 것에나 흥미있어 하는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소년단 서약을 지키며 받아야 하는 훈련을 완수하는 소년을 원했습니다.

영국의 한 소년단장이 있었는데 그는 전쟁 중에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극비의 사명을 수행할 군인을 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팔을 적으로 옮겨 세 손가락을 떠서 소년단의 서약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서슴치 않고 그를 추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한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우선되는 일을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소년 시절을 시골 농가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쪽은 밭에서는 큰 수확을 거두었으나 다른 쪽의 농부는 실패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똑같은 햇빛과 비를 받

았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름답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으나 다른 사람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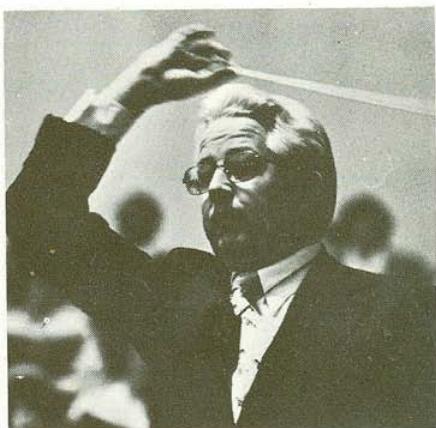
나는 그 성공한 농부는 열심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당한 시기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웃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데도 사냥을하거나 낚시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우선 순위를 올바르고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놀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은 매사에 있어서 해독제가 됩니다. 잘 알려진 신경과 병원에는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유익한 다음과 같이 풋말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일하라. 당신이 부유하면 일하라. 부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하라.

“당신이 행복하면 일을 계속하라. 나태는 회의와 공포를 가져다 준다. 슬픔이 당신을 엄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같이 여겨지면 일하라. 실망이 찾아들면 일하라.

“신앙이 혼들리고 이성이 흐려질 때 일하라. 꿈이 혼들리고 희망이 사라질 때 일하라. 당신의 인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



걸레 일하라.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일하라. 충실히 일하고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일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방법이다. 일은 정신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을 모두 치료해 줄 것이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얻기 위하여 나의 도움을 원하게 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추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게으르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지 않았거나 여러분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거나 불충성스럽다거나 그 밖의 바람직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 훌륭한 추천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진대, 교회로부터 좋고 만

족할 만한 추천을 받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여 신권의 여러 가지 직분과 기능에서 발전하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은 얼마나 더욱 더 중요하겠습니까?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의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계시를 통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은 하나님의 예언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시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은 그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롭니 부대관장, 태너 부대관장, 킴볼 대관장이 모임 전에 맥콩기 장로의 말을 듣고 웃고 있음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강화함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청소년은 복음에 관한 경험 뿐만 아니라 매 스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대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 주신 많은 형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지역 대표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과 간증을 키우기 위하여 자주 대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와드 대회, 스테이크 대회, 지역 대회 그리고 본부 대회를 갖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열린 가장 영적인 대회는 지역 대회였습니다. 1979년부터는 미국 내에도 몇 개의 지역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대회를 통하여 교회의 더욱 많은 회원들이 총판리 역원을 만나며, 그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두 명과 그 밖의 다른 역원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의 시간과 여행과 금전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1979년부터 각 스테이크에서 매년 2회의 스테이크 대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의 스테이크 대회 중 한 번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총판리 역원이 참석하고 다른 한 번은 지역 대표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이크 부장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이 성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가정에서 축복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신권 책임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은 매일매일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가정의 힘과 신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가족보다 더 건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부도 강한 가족 없이 오래 존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악한 영향력이 가정을 위협하는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 영향 중 많은 것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잡지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서적을 통하여 직접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사이신 형제 여러분, 합당한 파蠹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청취하고 시청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소동파 고모라 시대의 죄악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잡지에는 남자와 여자와 청소년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종류의 그림과 기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얻기 위하여 공공연하게 성을 다루고 있는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문도 독자에게 의설적인 영화를 선전하는 광고를싣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성적 인 범법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바로 이러

한 광고나 영화입니다.

형제 여러분, 활자화된 자료뿐 아니라 대중 전달 수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어 떠한 것이 들어 오는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품격을 저하시키는 라디오와 멜레비전 프로그램을 막으십시오. 좋은 독서 자료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시오. 정신을 풍부하게 하고 영혼을 고취시키는 잡지를 구독하십시오. 그러한 잡지로는 교회의 성도의 벗, 엔사인, 뉴 이라, 프렌드 등을 포함하여 많은 간행물이 있습니다.

런던, 파리, 동경, 뉴욕, 상파울루 등과 같은 대도시에는 신문이 여러 가지로 발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표준에 가장 합당한 신문을 구독하십시오.

교회의 본부인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도시와 주로 하여금 높은 표준을 달성하도록 돋는 강력한 힘은 메저넷 뉴스입니다. 이 신문은 술, 외설 문학 및 낙태 등과 같은 도덕적인 면에 대한 우리의 신조를 응호하는 신문입니다. 법세계적인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 도시와 주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처치 뉴스와 함께 메저넷 뉴스가 우리 도시와 주를 강화하듯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 역시 교회의 본부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주의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족이 “유덕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구하도록 돋게 됩니다.

언젠가 조그마한 어린 소년으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감독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훌륭한 감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사랑하였습니다. 전별 감독, 부디 감독, 타일러 감독, 월킨스 감독이 그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는 나의 감독님들을 사랑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모두 나처럼 감독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업적과 그의 봉사와 그의 모범과 그의 위대하신 프로그램에 비하여 생각하는 4월에 신권 소유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를 멸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조직의 지도자들과 신권의 대의를 위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회생과 힘과 능력과 법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큰 영향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청소년 조직이 나의 생활이 영향을 미쳤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내가 걸을 수 있으면서 부터 아리조나주 태쳐에 있는 오래 된 로빈슨 홀에 가면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물과 두 구역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니온 운하를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이 커다란 로빈슨 홀은 타원형의 벽돌집으로 지역 사회의 무도회, 주일 학교, 초등협회, 모든 교회 의식, 장례식, 축하회 그 밖의 이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읍니다.

어느 날 밤 이 커다란 건물에 불이 났읍니다. 나는 불길에 환하게 밟아진 하늘과 연기 기둥 그리고 온 마을 주민들의 외치는 소리를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화 작업을 돋기 위하여 물통을 들고 뛰어나왔읍니다. 당시에는 소방소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불이야”라는 소리가 나자 곧 물동이를 들고 뛰어 왔읍니다.

지도자가 되는 분이 모든 어른 남자와 소년들을 운하의 둑으로 보내어 길게 줄을 지어 불타는 건물까지 늘어 세웠읍니다. 운하의 둑에 선 처음 사람이 물동이에 가득 물

을 끼서 다음 사람에게 전네 주면 그 사람은 그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네 주어 마지막 사람이 물을 불길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겹게 그 올린 벽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낙망하여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그마한 마을에 소방소가 세워지기 여전히 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운하에서 내가 침례를 받았고 바로 그 운하의 물을 길어 우리집의 나무와 풀에 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통수단을 “도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Y자 모양의 나무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에 물통을 불들어 메고는 말 한필에 이것을 맴듭니다. 나는 말을 운하로 물아서 물통에 가득 물을 페담아서는 다시 한 구역 되는 거리의 집으로 돌아와서 풀과 꽃에 물통의 물을 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을 온갖 종류의 꽂으로 둘러 싸이게 하셨으며 물이 귀한 늦여름에 그것들을 살리느라 매우 애쓰셨습니다. 말과 소를 물고 운하로 가서 물을 먹이는 일도 나의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늦은 여름의 폭우로 땅이 무너지면 계곡과 운하는 모두 말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형들은 그들의 말과 마차를 끌고 운하의 상류로 가서 바위와 나무와 자갈을 끌어다가 땅을 다시 쌓아서 강으로부터 물을 농장과 집으로 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우리는 소세지 땅을 공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세지 땅은 바위로 이루어진 긴 축대로서 강을 막아 수로를 운하로 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소년 소녀들이 이 유명한 유니온 운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로빈슨 홀에서 북쪽으로 두 구역 더 가서 있는 앤리드 홀도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주일 학교와 초등협회를 그곳에서 다녔고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

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교회 회원으로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앤리드 홀로 이사했고 다음에 아카데미 빌딩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아카데미 빌딩은 교육 기관이요 풀리소피칼 소사이어티(청남 청녀에게 교육 및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단체) 모임의 본부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임과 교회 모임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쳐가 거의 교회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태쳐에 새로운 스테이크와 와드 건물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건축을 위하여 한문 두문 모아놓았던 돈 2불을 바쳤습니다. 나는 그들이 땅을 크게 파놓은 다음에 건물을 건축할 기금이 좀더 마련될 때까지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자주 등유나 계란이나 그 밖에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사오도록 상점으로 십부름을 다니고 편지를 부치거나 받으려 우체국에도 다녔는데 이 건물은 상점과 우체국에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파놓은 구멍 속으로 뛰어 내려 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올라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잡초가 그곳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한번 스컹크를 그곳에서 본 뒤로는 그곳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스컹크와 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스테이크 건물—지금도 존재하며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완공되었을 때, 이 건물에는 두개의 커다란 장방형의 방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접회소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지하실로 오락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건물에 출을 매달아 커튼으로 칸막이를 하여 반을 만들었습니다. 각 반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 후 절라 아카데미의 우리 농구단이 이곳에서 연습하고 경기를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작은 건물에서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고등학교 농구팀을 이겼으며 고등학생인 우리가 대학 농구팀도 이겼으므로 크게 인

정을 받았습니다.

교사 몇 명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월요일 밤에 신전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집 사들은 난로가에 모여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바일 앤 런, 르로이 시 스노우 등과 같은 훌륭한 교사를 기억하며 내 나이 또래의 소년들과의 우정을 기억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으로이 시 스노우는 둑에 앉아 홍해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와 그가 보았던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나는 주일 학교에 참석하면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인생의 기초를 이루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개회 순서는 윗층의 예배당에서 가졌고 본반 공파는 아래층에서 가졌습니다.

나는 또한 현신적으로 빠짐없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교회 프로그램과 교리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노래를 잘 부르셨고 읊을 줄을 연주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큰 누나, 클래어는 자주 이중창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음악을 사랑하는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즐겨 노래를 불렀습니다. 곧잘 나는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때 불렀던 “주님의 날에 우리들”(찬송가 169장)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일생 동안 다시 모이고 또 다시 모였습니다. 내 나이 열한 살 때 나의 어머니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주일 학교에 매주 일 참석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정월 초하루부터 그 이후로 한번도 주일 학교를 빠진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해를 집에 안치시켜야 했던 일요일에 교회를 빠지기 위해 자신과 타협하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나는 참으로 이들 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으며 교회의 각

조직에서 시온의 자녀들을 피곤을 모르며 혁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교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끔 가사를 잊으면 우리는 함께 소리를 높여서 후렴을 불렀습니다.

성일에 모여서 찬송하세
주일 학교 무리 하나되어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나의 집에 사람이”를 불렀습니다. 키플 가족은 근세기 초에 항상 이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나는 또한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이 작사하신 “사랑스런 베저렛”이라는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많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열심히 그 노래를 부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어린이의 노래를
하늘의 천사같은
기쁨 가득 찬 얼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라
(다함께 노래를, B—24)

우리가 얼마나 기쁨 가득 찬 얼굴을 했었는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어린이의 음성으로는 다소 높은 “마” 음까지 목청껏 노래를 불렀던 것이 생각납니다. 또 이렇게 부르던 것이 생각납니다.

건강하여 어여쁜
베저렛 어린이들

나는 건강하고 어여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마는……

주님 주신 지혜 말씀 가지고
홍차 커피 담배 술
금하고 생활하며

나는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을 배웠읍

니다. 교회 회원 중에는 홍차와 커피를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는 다시 계속됩니다.

의의 길을 따라 살아 가겠네
그리고 후련인 “귀를 기울여 들으라. …
하늘의 천사같은 기쁨 가득 찬 얼굴…” 다시 삼절로 계속됩니다.

주의 말씀 배우고
화나는 일 있어도
참고 참아 예절 있게 행하자.
사람 대할 때마다
올바르게 대하고
어디서나 착하고 친절하자.

그 다음에 다시 후렴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가 됩니다.

아침 저녁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니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 주시고
주를 사랑하게 인도하소서

다시 이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후렴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우리와 같이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들이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없어진 노래들 중에 163장인 “작은 새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던 때를 기억합니다.

작은 새를 죽이지 마세요.
더운 여름 한 나절 동안
나무 가지에 앉아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작은 새를.
작은 새를 죽지 마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

주님은 작은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답니다.
(메저렛 노래, 1909, 163장)

나는 새총과 잡수용 고무발걸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성능이 좋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1마일(1.6km) 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초원으로 소떼를 몰고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목화 나무가 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는 새총을 쏘는 일에 능하여서 45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명중시킬 수 있었으므로 “나무 가지에 앉아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작은 새를” 맞추고 싶은 유혹을 곧잘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새를 죽이지 마세요”를 부르던 것을 생각하고는 유혹을 억누르곤 하였습니다. 이 노래의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새를 죽이지 마세요.
어여쁜 것털은 공중에 날리고
아침에 아름다운 노래는
천지를 음악으로 태운답니다.
그런데 가지에서 먹다 만
버찌가 떨어지고
발의 과일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래는 나에게 참으로 뭔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발 앞에 아름다운 작은 새가 떨어지는 것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스티븐이 지은 “물론 소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소년, 물론 소년
나는야 물론 소년
임금님도 나를 부려워 할꺼예요
내가 물론 소년이니까요.

나는 이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임금님도

나를 부려워 할꺼예요. 내가 물문 소년이니 까요”라는 이 가사를 특히 좋아했읍니다.

나는 “무엇을 거둘까요?”라는 노래도 좋아했읍니다. 이 노래는 화음을 맞춰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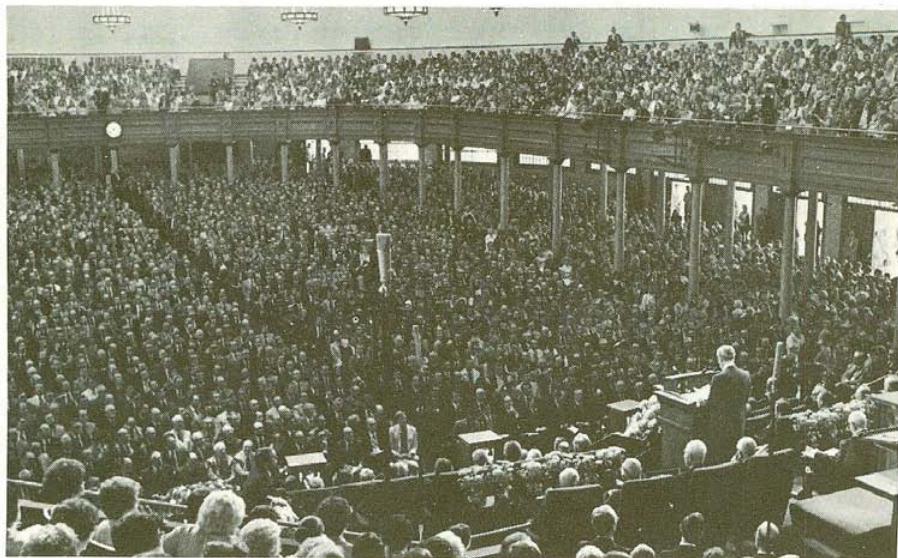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내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신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엘리아가 지녔던 신권이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녔던 신권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도 지녔었읍니다. 그러나 인봉의 권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것 때문에 엘리야가 온 것이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온 것이었읍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머리 위에 이 특권과 권세와 열쇠를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부여하여 그들이 나아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와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

왜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모든 신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어진 그 권능이 없이는 의식이 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이 세상에 구원이 있을 수 없었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오시겠읍니까? 그는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율법은 결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국민으로서 계시되지 않았읍니다.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성약을 계시할 것입니다. 기름부음과 인봉이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존 태일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를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간증을 여러 형제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기도와 계시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계명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나는 인간이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통신 수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통화하는 수단입니다. 두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화하는 수단인 계시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식탁에서 또는 잡자리에서 또는 교회 모임에서 하는 기도를 생각하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시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부친께서 보신 것을 심히 알기를 원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영에 이끌려 아직 한번도 본 일이 없고 발을 딛어 본 일도 없는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더니,”(니파이일서 11 : 1)

니파이가 생각에 잠긴 것이 기도였으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엠마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교성 25 : 12)

기도는 특별한 축복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제임즈 몽고메리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
가슴 속에 약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

기도는 한숨의 짐파
눈물 흘림이며
하나님께 가까이하려
우러러 보는 눈

기도는 어린이도 하는
단순한 말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엄숙한 말일세

기도는 성도의 호흡
지당한 태도며
죽음문의 암호이니
하는자 천국가리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하늘의 인도자
기도의 길 결으셨으니
가르쳐 줍소서
(찬송가 186장)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계명이 기도라는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라”였습니다.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서 5:5-6, 8)

주님은 야벳의 동생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친히 가르쳐셨습니다. 그가 야벳인의 무리와 함께 큰 바다에 이르자 “주가… 야벳의 동생에게로 오셔서… 무려 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야벳의 동생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엊으면 까닭이다.

“이에 야벳의 동생은 저가 범한 행악을 회개하고…주께 간구하여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과 저들의 죄를 각각 용서하려니와 다시는 죄 짓지 말지니, 나의 영이 항상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기억할지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여 마침내 죄로 무르익게 될진대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리로다.”(이더 2:13-15)

앰뷸레크는 죄에 빠져 있는 니파이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써 경고하였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하사 너희를 구하실 분이라.

“스스로 결손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고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셨습니다.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학이 풍성하도록 너희 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 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엘마서 34:17-27)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니파이인 가운데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주님은 주의 기도를 표본으로 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의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쳐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 삽서 18:18-21)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조직되기 약 2년 전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여 사탄의 사업을 밟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다음에 주님은 마틴 해리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도 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하며 회중 앞에서도 하고 홀로도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19 : 28)

주님은 교회의 제사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마”(교성 20 : 47)

주님은 조셉 나이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는……세상 앞에서나 은밀히 기도하라. 또 가족과 함께 하거나 친구들 가운데서나 어느 곳에서나 소리내어 기도해야 하느니라.”(교성 23 : 6)

또한 토마스 비 마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을 잊지 않도록 항상 기도 하라.”(교성 31 : 12)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살던지 죽던지 주가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게 하라.”(교성 61 : 39)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93 : 49)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을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8)

시온의 교회 회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기억되리라.”(교성 68 : 33)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정벌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것도 아니며 관대하신 아버지에게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교성 88 : 12)는 빛 또는 영과 일치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

든 필요 사항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 : 20)

기도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통신의 수단인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통신 수단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아담의 기도에 대반 응답으로 음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 동편 절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모세서 5 : 4)습니다.

음성 뿐만 아니라 주님은 때때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듯 주와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드렸고……”(아브라함서 3 : 1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모세서 1 : 3, 31)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헛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6-17절)

때때로 주님은 그의 대표자를 보내시어 인간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모로나이를 보내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

를 방문하여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28-59절)

일련의 이 방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저녁 잡을 자려고 침실로 들어간 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간구하고 있을 때 한 줄기 광채가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누가 내 침대맡에 나타나는 것 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29-30 절) 또 다른 경우에서 주님은 꿈과 시현으로써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꿈과 나파이의 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노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 이르시기를 나는 너의 형제들이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에 응답하리로다.” (이노스 10)

나는 이것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계시를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훌륭한 말일성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아멘하고 앉으려 하였을 때 나의 머리에 이런 말씀이 스쳤습니다. “돌아서서 간증을 드리라.” 그래서 나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여러 달 동안 나는 그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웃 스테이크에 사는 여동생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와드에 여러 해 동안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자매님을 활동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녀가 완전히 변했어요. 십일조를 바치고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해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변화되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군요. ‘저의 어머니의 장례식이 출트레이크시티에서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룸니 형제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 반적인 말

씀을 마치신 다음에 저는 그분이 앉으려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연단으로 돌아 오시더니 간증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간증이 제게 깊은 감명을 주어서 어머니께서 늘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하고 싶은 욕망을 일깨워 줬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의 계시는 때로는 말씀으로, 개인적인 방문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지는 천사로, 꿈을 통하여, 시현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옵니다.

그러나 대개 계시는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 (교성 85 : 6)으로 옵니다.

이 계시의 수단의 중요성과 실제성을 주님은 강조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풀본경의 금판에 대한 예언자의 간증의 진실성에 관하여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내게 간구하였고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음을 알고 있으니,” 그는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교성 6 : 15, 23)

요셉이 번역한 “조각문에 관한 지식”을 올리버가 얻는 것에 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교성 8 : 2)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9 : 8-9)

기도와 계시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여호와를 이뢰하라”

엘 룸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찬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복음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게 하는 것”입니다.

시 편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찌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 37:3-6)

경전은 항상 의로운 삶을 특별한 빛, 영, 즐거움 그리고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내가 소매 상점을 경영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점포의 한 야간 경

비원에게는 갖 교회에 입교한 심대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딸의 생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의 침례는 그 가정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상점문을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상점 문을 닫은 후에 마지막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곧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애는 교회에 다니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복음대로 생활할 때 얼굴 모습까지도 변화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여러 손님들과 함께 상점 문으로 다가오는 두 부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었으며 그들의 얼굴에서는 특별한 광채가 났습니다. 무슨 지시나 받은 듯이 나의 시선은 곧 한 부인의 옷에 끊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배지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상을 받으면 그 배지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는 예가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야간 경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고 있는 저 두 부인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요. 저 사람들도 물론입니다.”

그는 내 말에 흥미를 갖고는 그들에게 달려 가서 “물론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돌아와서는 “확실히 달라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시 37:3)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역사는 태초로부터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경전을 읽을 때는 그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나는 경전에 묘사되고 있는 위대한 인물과 교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아들이 많은 가족에 대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아들 중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 보다 특별히 더 많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정을 보이기 위하여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색동 옷을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창 37 : 4)

요셉은 일을 많이 둡지 않았읍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여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샀읍니다. 그러한 꿈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청천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둑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창세기 37 : 6-8)

설상가상으로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집에 남겨 두고 형들만 들에 나가 양떼를 돌보게 하였읍니다. 때때로 그는 요셉을 보내어 형들을 감시하게 하였읍니다. 어느 날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하였읍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 용덩이에 집어 넣고 아버지께 가서 들짐승에게 요셉이 잡혀 먹혔다고 말하자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때 형들 중 한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다”(창세기 37 : 26-27)

그리하여 그들은 열 일곱 살의 어린 동생

을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낯선 땅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뛰어난 젊은이에게 함께 하셨으며, 요셉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읍니다. 그가 이방인이며 노예였지만 그의 용모에서는 특별한 정기가 발산되었음에 틀림이 없었읍니다. 그는 왕의 시위대장에게 팔렸읍니다. 그는 얼마 안가서 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 가정의 제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임 되었읍니다. 권능에 있어서 요셉은 첫째되는 신하가 되었읍니다. 그는 시위대장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되었읍니다. 시위대장은 요셉을 완전히 신임하여 그의 모든 재산 관리를 요셉의 손에 맡겼읍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주님의 도움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시작되었읍니다. 이 잘생긴 청년은 시위대장의 아내의 눈에 들게 되었읍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요셉의 소리를 듣고 들어 와서 요셉의 걸옷에 손을 떴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지라 그 일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알고 옷을 버린채 뛰어 나갔읍니다. 시위대장의 아내는 요셉의 걸옷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 오자 요셉에 대하여 무서운 거짓말을 하였읍니다. 대장은 물써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읍니다. 다시 요셉은 젊은 나이에 시련을 받게 되었읍니다.

요셉은 쉽사리 낙담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옥 안에서 가장 훌륭한 수형자가 되어 간수에게서도 신임을 얻게 되었읍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창 39 : 22) 요셉은 죄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모든 죄수들이 그를 따랐읍니다. 다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가장 훌륭한 자가 되었읍니다.

요셉이 수감된지 얼마 안되어서 왕의 술맡은 판원과 떡 굽는 판원이 옥에 들어왔읍니다. 요셉은 곧 그들과 친하게 되었읍니다.

그 두 관원이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 사람에게 당신은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한 사람에게는 다시 바로를 반드시 자리로 복직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직될 사람에게 이르기를 바로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일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하로 복직하였으나 만 이년 동안 요셉에 대하여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그때에 요셉을 기억하여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옥에 갇혀 있다고 알렸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데려 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영감으로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왕은 요셉에게 깊이 감동되어 옥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또 다시 바로 다음 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창 40-41장 참조)

요셉이 베푼 봉사로 인하여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창 41:38) 바로는 요셉이 정말로 주님의 지시를 받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9)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시를 따라 걸을 가고 주님을 의뢰할 때 복음의 영향력은 행동에만 미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의 영원한 영혼으로부터 특별한 빛과 영이 반사됩니다. 그것은 광명, 빛, 기쁨, 행복, 평화, 순결, 만족, 영, 열의 등등의 단어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지식을 체험하고

동시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로서 슬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읍니다. 생명수의 씨 또는 영생의 원리를 버리는 자는 슬픔에 차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영생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지니며, 그 빛을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하여 가장 작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이기심을 태워버리게 할 때 우리는 결코 암흑 속에서 생활하지 않고 회의와 두려움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를 성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게 악마는 슬픈 얼굴을 짓도록 하자는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만 있읍니다. 거룩한 종교 정신을 지님으로써 우리는 아침에도 행복하고 낮에도 행복하고 저녁에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융화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한 모든 말일성도는 칠례와 안수례로써 죄사유함을 받은 후에 자신이 기쁨과 행복과 위로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고 가난하고, 심지어 옥에 갇혔을지라도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한 사실입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이 사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알고 그의 축복을 감사하여 누리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웨소. 솔트레이크시의 : 테저렛 출판사, 1941, 235 36페이지)

바로 이것이 이 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입니다. 최근의 엔사인지에 실린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여름, 나는 심 육체의 수련 배우였습니다…우리의 안내 배우는 붉은 머

리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뉴욕주 열기 대회에서 일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같은 방을 사용하였는데 매일 아침 깨어 보면 늘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나는 매일 그러한 광경을 보아 왔습니다.

“그녀가 물론이라는 소문은 곧 퍼졌으며,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녀는 눈과 같이 청초하였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남자라고는 전혀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며, “스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정답고 다정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대본이 아니라 그녀가 갖고 온 책과 잡지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번도 나에게 그녀의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내가 결혼하여 두명의 자녀를 두었을 때 나의 남편과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갖고 모든 종류의 교회를 다녀 보았으나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론이라고들 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물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라바마의 조그마한 마을 오펠리카에 있는 공공 도서실에 가서 “물론경”이라는 책 한 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 뒷 표지 안쪽에 나와 있는 선교 본부 주소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곳은 조지아였습니다. 나는 그 곳으로 개종자를 받아 주겠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젊은 여자를 찾아서 그녀의 잊혀지지 않는 생활 태도로 인하여 나의 가족과 친척 중 37명이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들도, 구원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엔

사이, 1977년 12월호, 62페이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영원한 영혼으로부터 밝하게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 온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주, 구세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보다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밝혀 주는 산위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와 하나가되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울 수 있게 하십시오.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여, 고대 요셉에게 대하여 한 다음의 말이 우리에 대한 말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언을 수 있으리요”(창 41:38)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

킴벌 자매



“진리가 무엇이냐”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정원회



복음은 “모든 과학적 진리, 모든 역사적 진리, 모든 철학이나 윤리나 증명된 사실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된 종교의 영역입니다.”

우 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찬송과 설교를 듣고 특별한 예배를 드린지 불과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재판정으로 끌고 간 후의 사건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

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네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네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 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요한복음 18:33-38)

그러나 빌라도와 예수를 고소한 자들은 협상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이르렀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예수께 하고는 대답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으로 보아 우리는 그가 진리를 두려워 하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대면하려 하지 않았고 진리가 요구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요 18:37)고 말하였습니다. “진리에 속한”자는 진실로 진리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진실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이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 즉 구애이다.)와 진리의 인식(이것은 진리의 존재이다)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것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의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프란시스 베이컨, “진리에 대한 수필”하바드 클래식 제3권, 뉴욕, 피에프 퀄리어 엔드선 출판

사, 1909, 8페이지)

이러한 사상과 일치되게 고대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변에 서서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는 것은 유쾌하다. 성과의 창가에 기대어 아래로 전쟁과 각 가지 위험을 내려다 보는 것은 유쾌하다. 그러나 어떠한 째감도 진리라는 우월한 위치(이것은 결코 점령당하는 일이 없는 고지로서, 공기는 항상 깨끗하다)에 서서 아래로 굴짜기에 오류와, 치란과 안개와 폭풍을 내려다 보는 째감에 비 할 바 뜻된다. 확실이 사람의 마음이 자비에 의해 감동을 받고 섭리에 의존하고 진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지상의 천국이다”(베이컨, “진리에 대한 수필”에서 루크레티우스를 인용함, 8페이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요 18 : 37)

진리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의 교회를 조직하시고 겸손하며 진실한 자들을 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쳤으며,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성임하시어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 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 13-18)

계시의 반석은 주님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계시의 원리는 교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주어집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세와 권능으로 회복되었읍니다.

19세기 초, 진리를 추구하는 요셉 스미스라는 소년은 야고보서에서 [이것은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힘 있는 말씀을 발견하였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 : 5-7)

이러한 하늘로부터의 권고를 받아 요셉 스미스는 기도를 드렸으며 아버지와 아들, 두 인격체에 대한 지식과 구세주의 음성을 통한 지시를 받았읍니다. 잔구에 대한 응답으로 요셉은 기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참된 교회는 없다는 것과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교회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19절)

또한 그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리라는 지시도 이때에 받았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

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
십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회복된 교회가 조직된 지 11년이 지난 1841년에 요셉 스미스는 회원들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신앙개조라고 일컬습니다. 신앙개조의 제8조와 제9조는 하늘로부터의 개시에 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예언자에게 계시하신 메시지를 모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종교서적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방법으로 전해졌으며, 현대에 있어서 참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잊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에 대하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의 영감받은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한복음 1:1-4, 10)

예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는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인도한 예언자들에게 뜻을 밝히신 예호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든 계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물론경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인이며, 주님의 복음이 고대 미대륙의 주민에게 알려졌었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를 주민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요10:16; 니 삼15:21 참조)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아담이 복음을 받은 것을 압니다.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를 뵙지는 못하였나니 이는 주의 업체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저들에게 문이 닫쳐 있음이더라.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 폐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냐?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

“그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시라. 이르시되, 나는 예나 이제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독생자라. 네가 타락하였으며, 구속을 얻을 것이요, 구속을 얻으려는 인류도 모두 다 그러하리라.”(모세서 5:4-9)

이제 우리는 예녹에 대하여 좀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예언자에 대하여 극히 적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일의 계시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역사한 그의 입

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나와 말씀하신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 너의 주시니,” (모세서 6:43) 하나님은 에녹과 아담에게 한 것처럼 구원의 모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도 더욱 알게 되었읍니다. “주께서 자신의 반차에 따라 노아를 앤수 성임하시고 저에게 명하시되,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 끈에 녹에게 주신 그대로의 것을 인간의 자녀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노아는 계속하여… 설교하여 가로되, 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두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우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받아 모든 것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리니, 너희가 만일 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홍수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였으나 저들은 듣지 아니하더라.” (모세서 8:19, 23-24)

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도 더욱 많이 알게 되었읍니다. 여호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아브라함서 2:8-9)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전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서 3:22-23)

현대의 계시를 모두 검토해 보면 지금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밝혀 주었던 때임을 알게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이라.” (엡 1:10)

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재물로 자신을 바치셔야 했다는 것과 인간은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믿으며, 그것들을 순종하고, 예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많은 진리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시인은 이렇게 제언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 거짓이면 배척하고 참이면 받아들이라.”

바로 이것이 기도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와 기도는 영생을 얻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성공적인 결혼 생활

오 레슬리 스톤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나는 주로 갓 결혼한 젊은 부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언젠가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전에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이 2:25 참조) 킴볼 대관장님은 행복의 값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양이 낳는 기적, 솔트레이크시티의 ; 테저렛 출판사, 1972년, 126페이지)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의 기초는 신전에

서 염수된 결혼입니다.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신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 가족과 함께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의롭게 생활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그 해결책을 발견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성품을 개발시키고 악을 이기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우리를 도와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의 시련과 문제를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담히 직면할 때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평화의 사랑과 평정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해야 할 첫째되는 일은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이룩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아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조용하게 이야기하여 곧 해결하십시오. 언젠가 고든 비 헝클리 장로는 가정에서의 조용한 말은 평화의 언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회 보고, 1971년 4월, 81페이지) 벡케이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결코 집안에서 소리를 질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도 좋은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에 불이 났을 경우라고 덧붙이시곤 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향하는 둘째 단 솔트레이크시티 : 테저렛 출판사, 1971, 294 페이지)

때때로 우리는 왜 내 아내나 남편이 사물을 나와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고 나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생각과 이해의 의견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하나의 팀으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곧 해소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열심히 일하여 가족의 재정적 필요 사항을 올바르게 들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필요 사항은 서로 토론되어야 하고 온 가족의 복지를 위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주부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도에 무관심하거나 집안 살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 두 가지 모두에 무관심한 경우에 흔히 이혼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매님들이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초에 간혹 아내가 임시로 직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남편이 집안 가사일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이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모든 면에서 도와 주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짚었을 때는 나의 아내가 나에게 와서 설것이나 침구 정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집안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내에게 설것이라든가 침구 정리 등의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을 하고 서로 돋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써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항상 아내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시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자동차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내와 함께 전물에 들어 가거나 나올 때 아내가 먼저 가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리에 앉을 때도 아내를 앉힌 후에 앉으십시오.

때때로 아내들이 남자들에게 이러한 예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매되시는 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게 되면 아마 남편은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네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항상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경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뜻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2.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십시오. 주님께 십일조를 드린 나머지 10퍼센트 이상을 저축할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축을 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도 돈을 벌 수 있으나 돈을 모으고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자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솔트레이크시티 : 베저렛 출판사, 1941년 292페이지)

3. 월부나 의상 구입은 피하십시오. 우리는 늘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지불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 전부터 치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저축하고 구입은 나

중에 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높은 이자를 회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재정적인 굴레에 끌이지 않도록 해 줍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막듯이 빛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빛을 지고 있다면 빛을 청산하십시오. 오늘 할 수 없으면 내일 하십시오.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저축하십시오.”(대회 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4. 수입과 지출을 막으십시오. 끊임없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빛을 청산할 수 없게 되며 필요 사항을 통제하기 어려워 집니다.

젊은 부부는 특히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의 책임이고 그 다음이 사업 문제 곧 생활비를 버는 방법입니다.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이것이 진실하며 이것이 모든 면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임을 간증드립니다.

시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소유의 하나입니다. 혼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넘겨 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발전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의 상태를 결정하고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과 이상이 여러분의 생활과 행동에

좋게든 나쁘게든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영향권 밖에 섬으로써 악을 멀리하십시오.

다음으로 모든 면에서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이웃에게 정직하십시오. 정직이란 거짓이나 속임이나 도둑질 등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정직은 또한 하루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용주로부터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업계나 그의 어느 곳에서도 고용주들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는 명성을 얻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물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경전은 이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8 편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친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라”

주일학교나 초등협회의 교사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부모의 머리에 있게 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면 가정에 대한 책임과 자녀 양육 문제가 부모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고메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말씀하신 유명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대회 보고, 1964년 4월, 5페이지)

가정과 모든 생활에서 사랑의 빛을 보이십시오.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자녀와 친척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에 보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명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다툼이나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너희가 삼서 11장 29-30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비가 될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채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채동하고 분노를 돋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

또한 모사이야서 4장 14절에는 부모가 특별히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혈 ме고 깊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의의 적이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는 가족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차례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축복을 감사드리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그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요구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매일 잠시 동안 부부가 함께 경전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경전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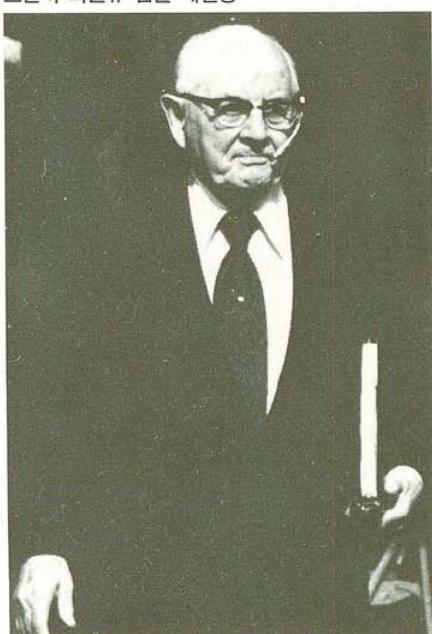
끝으로 나는 교회와 가까이 지낼 것을 목표로 드립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신권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아내되시는 분은 남편이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조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신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느끼는 느낌을 가정으로 가져오십시오. 주님의 집에서 맷은 또는 맷을 성약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브리감 영 대학교의 노년의 모임에서 킴 블레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조화있고 행복하며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결심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성스러운 것”, 올해의 말씀, 1973년, 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사, 1974, 257 페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혼 생활을 현세와 영원도록 행복하게 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고든 비 힙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가 나에게는 매우 뜻깊은 대회입니다. 만 이십 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총판리 역원으로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8년 일요일 아침에 나는 두려움과 어색함 속에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그동안 40회의 대회를 가졌으나 아직도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두려움이 영감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교회의 성장을 보기 위하여 나는 1958년 대회에서 보고되었던 몇 가지 기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보고되었던 교회 회원의 수는 백 오십 만을 겨우 넘는 정도였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거의 사백 만의 회원 수가 보고 되었습니다. 불과 이십 년

동안 16퍼센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1958년의 스테이크 수는 273개였고 와드와 지부는 약 2,500개였던 것이 어제 보고된 연말 현재의 스테이크 수는 885 개였고 지난 목요일 현재 조직되었거나 조직되기로 허가된 스테이크의 수는 937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와드와 독립 지부의 수는 이십 년 전의 수의 세배가 되는 7,500여개에 달합니다.

이 몇 가지의 숫자는 내가 짧은 이십 년 동안 목격해 왔던 놀라운 성장을 보여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세계 각처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보람된 삶을 누리고, 보다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다 이해하는 남녀 그리고 어린이들을 볼 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루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써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참된 복음의 지상 회복에 대한 간증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신앙과 가르칠 줄 아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 하였읍니다. 그날은 부활하신 주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도 마리를 제외한 열명의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는 그 당시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려하듯이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

도마와 같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보지 못했읍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바로 우리 눈과 귀와 손 앞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의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되는 것 이외의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8일 후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주님은 도마를 가리키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놀라 떨며 도마는 주님께 이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요 20 : 26-26)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상처난 손을 만지는 도마에게 주어졌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역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가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메시아이며 그가 죽었고 부활하였으며, 그가 서반구를 방문하여 그곳의 주민을 가르쳤으며, 이 마지막 경륜을 인도하셨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은 창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 : 3)

밤에 벌빛 아래를 거닐어 본 사람, 봄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관찰한 사람은 누구나 시편 작가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 19 : 1-2)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솜씨이며, 훌륭의 것을 불사불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의 손을 도마는 믿기 전에 만져 보기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시내산의 천둥 속에서 돌판에 글을 쓴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너라”(출 20 : 3) 인간 관계를 다루는 모든 좋은 율법의 기호가 되는 실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율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이 깊은 말씀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대 예언자들의 영감의 근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고대 예언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꾸짖고 나라를 면책하고 선전자로서 메시야의 오심을 보면서 계시의 능력으로 외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 : 14)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종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위에 장립하시리니”(사 11 : 2)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사 9 : 6)

바로 이 분이 여관에 거할 방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 말고 믿으십시오. 천사는 시현으로 이러한 광경을 미리 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아

무도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간 가운데로 오시고 그를 중오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굿간에서 나서야 했는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셨습니다. 그에게 경배를 드린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으며, 황금과 물약과 유향의 예물을 그에게 드리려고 먼 동방으로부터 여행하여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임금께 예물을 바친 그들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면서 기이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언을 알고 있는 혜롯 대왕은 그 손을 두려워 하여 그 손을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없는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무서운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계시의 능력으로써 예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요단강 위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그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믿으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지구의 원소와 생명의 모든 기능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가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앉은뱅이를 걸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의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보혜사이셨으며 그 이후에도 그를 진실로 믿는 자들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언젠가 나는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방명해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조국이 쇠망함에 따라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행히 도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사랑하는 가족과 전혀 소식을 통할 수 없는 감옥에서 삼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나날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암흑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뎌냈습니까?”라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때문이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한번은 주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하여 여행하시다가 목이 마르셨습니다. 주님은 암탉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다가 물을 길으려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주님은 그의 가르침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셈물이 되리라”(요 4:13-14)

더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이 약속된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야에 대하여 말하자 주님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 4:25-26)

그가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슬퍼하는 마르타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의 영원한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께서 하셨을 때 도마도 있었으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에도 도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몸을 일으키실 수 있는 권세를 의심하여 주님의 손에 있는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의 비할 데 없는 생명과 권능의 증거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구세계의 성약인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출현된 신세계의 성약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말과 강한 영이 깃든 또 다른 복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가 당시에 가르치고 있던 무리와 다른 양떼가 있으며 그들도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 : 16)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서반구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던 바운티풀이라 하는 곳에 모인 무리에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 치라

“.....저들이 보며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 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십에.....”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이 삽서 11 : 7-8, 10)

그는 도마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라 외쳤읍니다. “호산나로다. 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니삼 11 : 17)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훌륭한 증인인 이 책을 읽은 수백만 명이 그려했듯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 다섯번째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알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이 훌륭한 새로운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증거자가 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변형의 산에서 그리고 바운티풀 땅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으며, 또 다시 이 마지막 복음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시현을 통하여 어린 소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예언자로서 말씀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거와,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오르는 확신으로, 우리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간증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리 자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물론경은 불사불멸의 사실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성에 대한 의적인 증거입니다”

여 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경에 대하여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경이 성스러운 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격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지니고 있다는 권리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성경 이외에 세 권의 표준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준 경전은 모두 이 책을 기꺼이 읽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격동과 소요의 시대인 오늘날 그리스도를 더욱 확신시켜 주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수록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경전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많은 경전이 있으며, 이 경전은 고대에 주님이 이 경전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예언자를 두신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예언자들이 받은 계시가 역사와 함께 기록되어 경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언자가 각기 기존하고 있는 경전에 덧붙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스러운 말씀의 책의 부피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많은 기록이 책으로 편집되어 성경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께서 이 세상에서 예언자를 두셨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같이 편집된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주님은 계속하여 새로운 예언자를 보내어 새로운 계시를 받게 하셨으며, 이러한 새로운 계시는 새로운 경전으로 첨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축복사의 시기로부터 계시자 요한의 때까지 주께서 설정해 놓으신 방법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는 예언자가 없었으며,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는 교회에 예언자를 계속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는 커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예언자의 성역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에베소인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교회의 기초는 사도와 예언자 위에 놓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 돌이 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엡 2:20)

그리고 교회의 조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회에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라는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엡 4:12)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완전을 향하여 노력하기를 그칠 때, 교회 활동으로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때, 또는 그들의 교훈이나 교화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교화시켜 줄 역원이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지에 다달은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원들이 교회에 없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원들이 주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극단자들과 분열파의 그릇된 가르침과 인간의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살아 있는 예언자와 사도들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한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항상 교회에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이 성역을 베풀 때 그들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경전을 또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들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가 설명한 것과 같이 주님은 그의 예언자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같은 양식을 따르게 된 것이었읍니다. (암 3:7)

예언자가 없으면 하늘로부터의 지시도 없으며 이러한 “지침”이 없이는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살아있는 예언자가 있어서 교회를 이끌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그 기록된 책이 경전이 되는 교회야 말로 의심할 수 없는

참된 교회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자들에게서 계속 새로운 경전이 나와 참가될 것이라는 것도 참된 교회의 표적입니다.

주님은 친히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 있으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고 경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성경, 성경, 우리가 이미 한 성경을 가졌으니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라고 하겠으나,

“너희는 민족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너희 주 하나님이 만인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 나의 자녀 곧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됨을 불만스럽다 하겠느냐?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가 그 중 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한 나라에 전한 똑같은 말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며, 두 나라가 한 대 합칠 때 두 나라의 간증도 하나로 합쳐져 되리니,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여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말을 전함이라. 내가 이미 한번 말하였다 하여 다시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지 말라. 이는 나의 행하는 일이 다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행하는 일이 끝나지 아니 할 것이요, 그 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내지 아니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가졌다 하여 그 속에 나의 말이 모두 쓰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또 더 기록하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동서 남북에 있는 자와 바다의 섬에 있는

자 모두에게 명하노니, 내가 저들에게 말하는 바를 기록하라. 나는 그 기록된 책으로 그 속에 기록된 것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저마다 행한 행위로 심판하겠음이라.

“보라 내가 유대인에게 말할 것이며 저들이 이를 기록할 것이요, 내가 니파이인들께 말할 것이며 저들이 또한 이를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멀리 이끌어 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백성들에게 말할 것임에 저들이 이를 기록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할 것임에 저들이 이를 기록할 것이며

“장차 유대인은 니파이인들의 말씀을 갖게 되며, 니파이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요,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의 말씀을 갖게 되며 잃어버려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니파이인과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장차 저들의 상속의 땅의 집에 함께 모일 것이요, 나의 말도 역시 한데 모여 하나로 합하여 지리라.”(니파이이서 29:3, 7-14)

우리도 물론 다른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파이인, 곧 고대 미대륙의 주민이었으며 그들의 계시와 역사를 오늘날 몰몬경이라고 알려진 책에 기록하였던 민족의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신앙)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몰몬경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모두에 대한 견고하고 만져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만져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손에 털 수 있고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우편으로 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빛과 영감을 얻기 위하여 자세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 인쇄소에서, 일반 제지소에

서 만든 종이에 혼히 사용하는 인쇄 잉크로 인쇄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몰몬경은 성경이나 그밖의 다른 모든 책들이 그려하듯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책은 몰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책을 줄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의 문명 세계에서 천사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천사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보면 천사가 말일에 특정된 때가 이르기 전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책을 주도록 지명되어 있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특정한 사람이 무식한 자라고 경전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을 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정해진 때에 무식한 자로 규정되었던 요셉 스미스에게 찾아 왔습니다. 그후 이 책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요셉 스미스가 번역하였고 세상에 몰몬경으로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몰몬경의 기원은 요셉 스미스의 설명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비판가들은 백 년 동안 다른 설명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는 모로나이입니다.

그의 하강은 그 책을 하나님의 천사가 존재하며 그 중 한 천사가 요셉 스미스에게 와서 이 책을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모로나이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고대 미대륙에 살다가 약 1,000년 전에 죽은 예언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확실히 그는 부활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부활한 천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불사불멸의 인격체가 이 만-

질 수 있는 물질의 물본경을 현대의 필멸의 인간에게 견네 주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불사불멸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모로나이는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는 손에 무거운 금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로 18센티 세로 20센티 높이 18센티의 금속판은 적어도 13.5 내지 22.5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이 판을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과 손가락은 살파 뼈가 있는 부활한 손이었습니다.

물본경 역시 물질적인 물체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모로나이가 판을 요셉 스미스에게 준 후에 그 판을 열두 사람이 보고 만져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말하면서 여덟 사람은 그들이 손으로 그 판들을 만져 보았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친히 보고 만져 보아 이제까지 이야기 한 금판을 스미스가 분명히 얻었음을 엄숙히 증언하노라.”(여덟 목격자의 증언 물본경 VII페이지)

그들은 손으로 만져 보았으며 모로나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페이지씩 넘겼습니다. 모로나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판 위에 새겨진 글을 조사하였는데 그 글 중에는 1,500년 전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도 있었습니다.

출판된 물본경은 불사불멸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입니다.

회의와 비판으로 가득 찬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물적 증거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본경을 그와 같은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본경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세 증인의 입이 모든 것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13:1 참조) 우리에게는 성경과 물본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서로 크게 떨어져 있는 두 고대 대륙으로부터의 두 가지 음성이요, 두 가지 경전이며,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증인이 또 있어서 모두 네 권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로써 주어진 현대의 경전이며,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요 창조주이시고 오래 약속된 메시야이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신조로 인하여 이 세상이 몹시 혼동되어 있었으므로 또 다시 진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시를 갖기 위하여는 그것을 받을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 3:7 참조)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을 당시 모든 기독교 세계에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계시를 받고 물본경을 출판하고 모든 나라에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시하도록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 스미스 이세였습니다. 그는 말일의 선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물본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을 계승하여 수행할 다른 예언자들을 그의 손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참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확인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지도자를 구하라”

진 알 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달 전 비행기로 안데스 지역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옆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내가 남미에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교리와 총판리 역원으로서 내가 말고 있는 임무 등을 이해하게 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킴볼씨 같은 타인에게 당신의 일생을 맡겨버려서 그가 당신에게 여기에 있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의 참된 임무에 대한 간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분을 통하여 지시되는 모든 일을 행할 것

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교회 회원이 아닌 한 사람을 총판리 역원이 말씀하시는 모임에 예리고 잔 죄이 있었읍니다. 나는 미리 그에게 연사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읍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천사를 보거나 방언의 은사를 구사하는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뚜렷한 외적 증거가 있는 사람을 보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읍니다.

나는 우리가 절정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바로 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지 떼때로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보아 넘겼읍니다. 영적인 감지력을 지녔던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가 참으로 누구인지 알았읍니다. 사람이 자기 본연의 자작만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결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이 대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훌륭한 총판리 역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셨읍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영감받은 권고와, 여러분의 지역 지도자들의 권고를 기꺼이 순종하여 따르겠읍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도자를 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충성스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한 대답과 같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수 1:16-17)

일전에 누군가가 이 같은 질문을 하였읍니다. “총판리 역원들이 의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

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훌륭한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독님이 상호부조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점을 나만큼이나 알고 계시다면 달리 조치를 취하셨을 거예요. 와드를 운영하실 때 우리의 의견을 듣고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부장님은 사물에 대한 관점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부장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성은 각기 너무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같은 주파수에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부장, 감독, 그리고 신권 정원회 지도자는 실제로 문제가 되고, 중요시 여겨지는 관리의 원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나머지 일들은 때가 되면 해결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한한 계시의 신권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은 그의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인 기적을 이루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부장단이나 감독단에서 부장 또는 감독은 영감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의 보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 평가되고 여론의 일치를 본 다음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운영 방법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약간의 예외도 있읍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방법은 세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발표하고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경험담을 교환한 다음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가장 좋은 결론은 내리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행정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지도자는 그를 각자

의 권리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지시합니다. 그릇된 사람에게서 권고를 구하는 사람이나, 권고를 받기보다는 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타인의 경험담을 들을 수도 있고 타인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특별한 관리직 분에 대한 계시를 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러한 계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통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권고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는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서 삼고 그와 상의 하려 할 것입니다. 더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일 경우 아내와 자녀는 신권 정원회 지도자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신권의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독이나 지부장과 상의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일 경우, 남편과 아내는 와드를 관리하는 대제사인 감독에게 가서 상의합니다. 감독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지침을 더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읍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말씀하신 후, 주님은 여러분의 감독 또는 다른 관리 신권 지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무릇 교회의 감독 및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교회를 돌아 보게 하신 자와 교회의 장로된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은사를 분별하는 은사를 주사 너희 가운데 은사를 받았다 하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가 없게 하시느니라.”(교성 46 : 27) 관리 신권 지도자가 분별의 은사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지역의 신권 지도자가 여러분과 달리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을 지나치는 것처럼 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일치는 결코 복음의 원리의 차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 자신의 개성을 지니고 자신의 경험의 영역 안에서 일을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백하려는 방법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정신에서 신권 지도자가 주는 권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권고를 받게 될 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들은 것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가 옳바른 때라면, 그리고 제가 그 뜻을 알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었다면, 저로 하여금 왜 이같은 권고가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권 지도자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도자의 말씀은 내게는 이렇게 들리듯 느껴집니다. “나를 믿으세요. 높은 이곳에서 보면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를 의지하세요. 다음 언덕 너머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신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들이 현재의 유익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익이 되는 권고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려는 온갖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시현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에 맹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각자 지도자로부터 오는 권고가 곧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은 자기가 올바르게 권고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할 권리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그의 신권 지도자가 그에게 하여금 안전한 길을 견도록 의로운 권고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겸손하여져서 권고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훈계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과 그의 신권 지도자로부터 권고를 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성공을 안겨 주는 시구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십칠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해의 왕국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해의 왕국의 정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언마전 나는 뉴욕 정신병학자 스마일리 블랜트씨의 저서 “시의 치료 능력”을 읽었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블랜트 박사는 그가 40년 동안 환자의 정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고치는데 사용하였던 훌륭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의견들이 모두 시적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성구, 위대한 산문, 훌륭한 찬송 등도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치료 능력은 환자가 약을 약국이 아니라 서점에서 찾을 수 있게 처방을 써 주는 의사의 행동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치료의 능력이 약병보다 책에 있는 경우가 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넘어져서 생기 혹과

상처는 어머니의 포옹과 사랑의 말로 치료 됩니다.

이와 같은 치료방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께서 “의원아 너를 고치라”(눅 4:23)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였읍니다. 주님께서 엠마 스미스에게 영감에 찬 찬송가를 택하여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항상 흐르도록 지시하였을 때 이 치료 능력을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는 도서실에 가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을 구했습니다. 이 책은 엠마 스미스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정한 90곡의 찬송이 편집된 책입니다. (거룩한 찬송 모음집,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용, 켈플랜트, 오하이오: 에프 저 월리엄즈 앤드 컴파니, 1835, 교회 역사파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사용할 수 있음, 솔트레이크 시티) 우리 각 사람이 각기 다른 필요 사항과 각기 다른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자의 찬송을 택하여 완전히 암기하고 이해하여 그 찬송의 병고치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바드의 유명한 정신병 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씨 (1842-1910)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창조하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생각이란 그것이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생각이란 염색하는 사람의 손과 같이 쥐고 있는 물감에 의하여 염색된다고 그는 말하였읍니다. 내가 자색 물감이 흠풀 먹힌 스폰지지를 쥐고 있다면 내 손은 자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내가 생각과 마음에 신앙과 열의라는 훌륭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나의 인격 전체가 그에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부정적인 정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정신 상태가 타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의 왕국의 생각, 곧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해의 왕국의 정신을 갖게 되고 에드워드 다이어의 다음과 같을 명상을 성취하게 됩니다.

나의 정신은 나의 천국

그것에서 지금의 즐거움을 발견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축복보다 더욱 더 복된 것이다.

(“나의 정신은 나의 천국”)

시인의 황금, 레이비드 로스 편, 뉴욕,

골드 라벨 출판사 1937, 41페이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영적인 음악을 듣고 기록한 기도를 들으며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훌륭한 생각으로 고취시킬 때 우리 자신의 훌륭한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 와서 그들의 세살 된 딸이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 부부는 몹시 낙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울었지만 마음의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와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을 달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동정심을 갖고 들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지극히 사랑하던 여동생이 디프테리아로 죽어가는 모습을 병상 곁에서 지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직 살기 시작조차 해 보지 못한 예쁜 딸을 잃은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것 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자매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자매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군요.” “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라면 저도 듣고 싶군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제임즈 위트콤 라일리의 시 “잃은 자”를 암송해 주었습니다. 이 시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애통을 그린 시가 아니라 자녀가 없는 사람의 애

통함을 그린 시였습니다. 이 슬픈 여인은 상을 입은 그녀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베 옆에서 나도 울게 해 주려마.

죽음으로 이별할 아이조차 갖지 못한 내가 그래서 자녀의 사랑이 무언지 모르는 내가 너와 함께 어린 딸을 슬퍼하게 해 주려마.

너의 목을 안은 두 팔이 천천히

천천히 풀리는

조그마한 팔,

네 뺨에 뾰뽀하려 내미는

조그마한 손을 나로 하여금 상상해 보게 해 주려마.

그런 것을 위하여 너와 함께 올게 해 주지 않으련?

텅 빈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네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것은 죽어 이별할 아이조차 없어서 흘로 우는 내가

너보다 더 슬픈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제임즈 웨트콤 라일리, 뉴욕 : 그로셋 앤 드던 랩, 1937, 444페이지)

이와 같이 높은 생각을 일으켜 준 라일리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나에게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 줄 수 있는 나 자신의 책을 편집하도록 동기를 주었습니다.

용기를 돌아주는 시도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기자인 그랜트랜드 라이스씨는 여러 해 동안 각지를 다니며 중요한 운동 경기를 참관하면서 운동 선수를 챔피온으로 만드는 공통적인 성품을 파악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위대하게 해주는 성품을 찾아 칠백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용기”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는 죽음을 직면하고 웃음지면서 이렇게 말하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일이니 어서 가져 가거라

너는 나를 먼저 속에 또는 꿈속에 또는 먼
허공에 버려야 하고
영혼은 끝없는 밤의 화려한 은하수를 따라
헤멘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인생을 이같이 보고 말하겠다.
너 인생아, 투쟁이든지 경쟁이든지 푸른
하늘이든지 갯빛 하늘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던져 보아라.
나는 정상에서 그리고 웅명이 밑에서 증오
의 마지막 공격을 굳굳이 대항하리라.
어떠한 운명의 강철 투구도 나를 막지 못
하리라.

사람들의 생각을 고양시키는 능력 면에서
시인은 예언자 다음 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
읍니다. 나는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이 예
언자로서 지지받았다는 말은 한번도 들은 적
이 없읍니다. 그러나 스노우 자매님은 “오
높은 영광 보좌”를 지었읍니다. 때때로 우
리는 이 훌륭한 가사를 진심으로 의우고 사
랑하고 자주 되뇌이지 않고 단지 찬송가를
보면서 읽는 수가 있읍니다. 만일 모든 사
람이 각기 자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훌
륭한 신앙의 시 90수를 택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내가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부르겠다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신앙의 말을 읽는 것에는 반대가
없으으기 바랍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
거룩하여라 당신의 처소
내 영이 함께 거하던 곳
귀하여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켰던 곳
이 절에서 스미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
하였읍니다.

당신이 이 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 아나이다
출생과 친구 모든 전생일

완전히 잊었을지라도
온온히 주는 당신의 말씀
나의 거할 곳 천국이니
나 이 세상에 잠깐 온 손님
이제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줄
성령으로 아나이다.
지식의 열쇠 회복되기 전
참 그 이유 몰랐으며
하늘의 부모 훌몸이라니
똑바로 이성을 보라
어머니 역시 계심은 진리
영원한 이성 말하네
연약한 이 생 내 떠나서
세상 생명을 마치오면
부모 양친 하늘 궁전에
줄거리 이 몸 맞으리
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초 내가 다 할 때
당신 곁에 함께 살라
허락하여 줍소서
(찬송가 117장)

이 말씀보다 더 강한 치료 능력을 지닌 말
씀은 아마도 예언자의 말씀 중에서도 많이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의 시를 많이 의운다면 우리
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 보
십시오. 의회 도서실에는 “신앙과 자유에 대
한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서가가 있읍
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
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
라”(교성 25 : 12)

매일 아침 사무실까지 걸어 가노라면 약
한 시간 동안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아
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 뇌이는 기도가 있읍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을 감사드립니다.
햇빛 비치는 하늘과 맑은 공기와 빛을 감
사드립니다.

나로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영원토록 낮이 즐거움의 날개 위에서
태어나면 나의 영혼은 날아가
그대에게 또 다른 아침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나는 성공의 시, 열의의 시, 그리고
진취의 시 모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지상의 어느 사람에게나
죽음은 오게 마련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선하고 훌륭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인간은 조상의 재를 위하여
그리고 섬기는 신의 선전을 위하여,
강적을 대항하는 것보다 더욱
훌륭한 죽음을 죽을 수 없다.

(고대 로마의 광채. 도마스 바빙튼 맥카리
편, 뉴욕 : 찰즈 슈라이브너즈 선즈, 1912,
12제이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새로운 난
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때 나는
“계속하라”는 시를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격
려하곤 합니다.

무언가 잘못 된 것 같으나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때,
매리온 지 르니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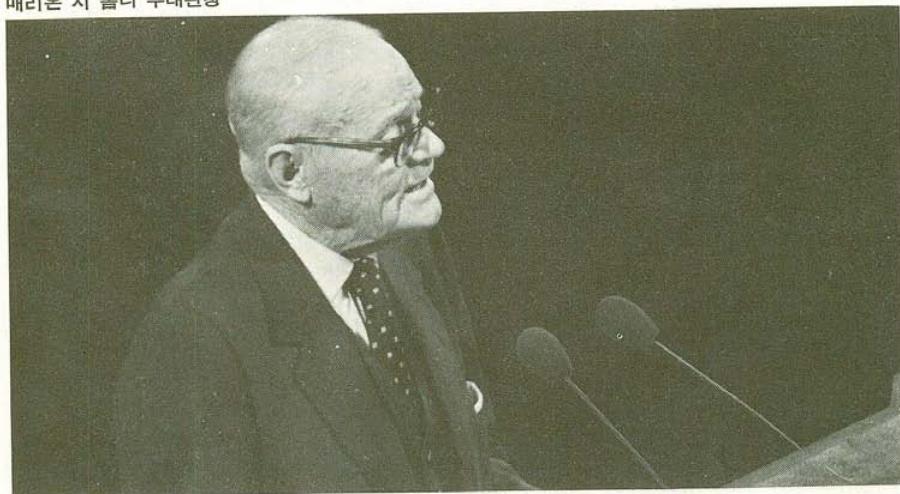
계속하라. 그대여. 계속하라.
그대의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생을 즐거움으로 맞이 하라.
그대가 험한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것
이것이 그대가 이곳에 온 목적이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진실하여,
최후에 그대가 죽을 때,

이것이 그대의 의침이 되게 하라.
계속하라, 내 영혼아, 계속하라.
(로버트 서비스, “계속하라” 종교 시집에서
제임스 디 모리슨 편, 뉴욕 : 하저 앤드 로
우, 1948, 307-8페이지)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기도문
으로써 사용하였던 아일랜드의 옛 식귀를 인
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나의 축복과 감사의
뜻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넓은 길이 그대를 반기고,
순풍이 그대의 등을 항상 밀며,
태양이 그대의 얼굴을 따사로이 비치고,
빗방울이 가볍게 그대의 들을 적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대를
그의 사랑의 팔 안에 안으시기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



“힘써 노력하며”

조셀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과 앞으로의 영원한 세상에서 맛볼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여 많은 의를 이루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교성 58:27, 28)

이 말씀은 비회원 뿐 아니라 교회 회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바람과 결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대업이 아닌 일은 언제라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사탄의 사업, 곧 훌륭한 대업에 반대되는 사업에 가담하여 행할 때, 우리는 침

례의 물에서 맷은 성약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대업에 노력하고 많은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훌륭한 생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훌륭한 대업에 참여하는 사람이여, 그러므로 그들은 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모두 극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결손하게 하고, 그와 성약을 맺어 그 성약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전 대관장의 한 사람이요 가식을 모르는 사람인 조지 앤더슨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회원 친구에게 그들의 교회나 그들의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첨가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어떠한 것보다 비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눔, 프레스頓 니블리 편, 솔트레이크시티 : 메저렛 출판사, 1948, 12-13페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은 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결손해져서 주님의 도움과 지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의로운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즐거운 기분을 갖게 됩니다. 죄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철의 장막을 가로막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 (아 7:12; 놀 6:31 참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않은 것이 없고, 또한 그것을 따를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없음을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가 예비해 두신 과정을 따를 때 도움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젊은 선교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귀환합니다. 왜나하면 그들은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주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삶을 영위하며,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약을 맺기 위하여 성찬을 듭니다. 주님의 영은 결코 악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고 훌륭한 일을 행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러한 주님의 영의 충고를 따르고 그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훌륭한 행동으로 이끌리게 되며, 유희를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영을 동반자로 삼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가정에서 사려 깊고 신앙심 깊은 축복사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이웃 간에 훌륭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친송은 우리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나를 학창단의 학창은 들는 사람에게 신앙을 고취시키고 교양을 높여 주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친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감받은 작곡자의 곡이든지 학창단이 부를 때 가사와 멜로디에 걸들인 영은 들는 이로 하여금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부르는 영감받은 친송은 주님께 대한 기쁨의 기도요 친송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나, 아무 곳에도 평

화는 없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라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읍니다. 준비의 때를 이루고 주께서 오실 날을 미루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의 오실 시간이나 날이나 달이나 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훌륭한 대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간증 뒤에 진노와 분노가 백성위에 임하느니라.”(교성 88:88)

인간은 생에 흥미를 주는 일이나 귀중한 것이나 지극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영혼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받아 들이고 이것이에 따라 생활한다면, 이 복음은 그들에게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고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가르침을 실현하는 일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인간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생활이 요구됩니다. 복음

원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며 내세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커다란 관심을 가집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셨던 고 제임스 이탈메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께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으로 보나 현실적으로나 그는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공간의 모든 유성과 항성보다 더 위대하고 장엄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체는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인간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지배하도록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특권인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창조는 무한히 웅대할지도도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숭고하신 목적을 이해하도록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구속될 지구” 일요일 밤의 말씀, 방송 프로그램,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신문사, 1931년, 357-58페이지)

인간이 종종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과 무서운 비극과 파멸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찰스 킹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 중 어느 것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하게되고 의롭게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할 보편적인 필연성을 면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아무런 노력

없이,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그의 위대한 회생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무덤으로부터 나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모든 인간에게 불멸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망은 틀림없이 “쏘는 것”(고전 15: 55)이 될 것이며 무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것이며, 인간은 불멸과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불멸과 영생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멸은 영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계시하신 생과 구원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의 왕국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과 영생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며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의 울바른 방법이며, 우리의 주시며 세상의 빛이신 구세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암흑과 후회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상에 그 열쇠와 권세와 권능과 함께 회복되었으며, 이 사업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구세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함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손을 들어 보여 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신앙과 기도에 대하여 가슴 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십년 전에 젊은 선교사들이 향한 훌륭한 일에 대하여 적으나마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50년 늦은 여름에 나의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충만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동반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으며, 지금 나도 훌륭한 선교 동반자이며 영원한 동반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동반자는 현신

적인 아내요 어머니로서 언제나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훌륭하게 내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자녀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교회에서 성장하여 신전에서 결혼했으며 자녀들을 두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교사가 우리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나는 신성한 신전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함께 있으며,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암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참으로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회원들이 선교사가 그의 친구들을 그들의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귀 기울여 들으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이 말일에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참된 것임을 암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우리는 뜻있게 기도하고 가족 기도를 드리며, 남편과 아내로서 기도하고 은밀히 기도하여 온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며 인도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필멸의 존재로서 사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사실 나는 매일 여러 번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대속과 최고의 희생과 무한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이 말일에 그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고 구원의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다시 신령의 권능을 회복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늘날 위대한 예언자, 곧 두터운 신앙을 갖고 계시며 기적과 여러 국가의 문을 여는 일 등 실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계시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국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성공하도록 기도하며 이런 훌륭한 말일의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킴볼 자매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예언자를 위한 훌륭하고 영원한 동반자인 킴볼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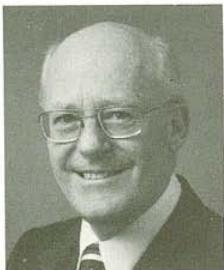
우리는 여기에 있는 훌륭한 총판리 역원들의 사랑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들이 돋고 계심을 느끼며 그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우리 생애의 모든 날을 비쳐 하나님을 위하여봉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따르는 데 혼신함에 따라 “나의 잘이 넘치”(시 23:5)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무엇보다 소중한 것

로버트 엘 백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솔트레이크 스테이크는 바로 이 태버네클에서 대성극을 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을 맡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아기 예수의 역을 맡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나는 지금 보다 훨씬 더 편했을 것이라는 걸 아는데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그의 손길로 나를 안내하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때로는 이기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라서 성장함에 따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물곧 했습니다. “왜 나에

게? 왜 주님은 나에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기회를 주셨을까? 왜 그분은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을까? 나는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내게 풍요로운 인생 곧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생애를 통하여 내게 인격을 형성시켜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고 때로는 이기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은 내가 요람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생활에서 맨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써 나의 생활에서 지녀야 할 우선 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스럽고 신앙이 깊은 아내는 내가 받은 모든 부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를 도와 주었습니다. 예쁜 일곱 명의 딸은 내가 교회내에서 장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남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집에서 맷은 성약에 충실히 하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어린 손자들은 나의 생의 기쁨입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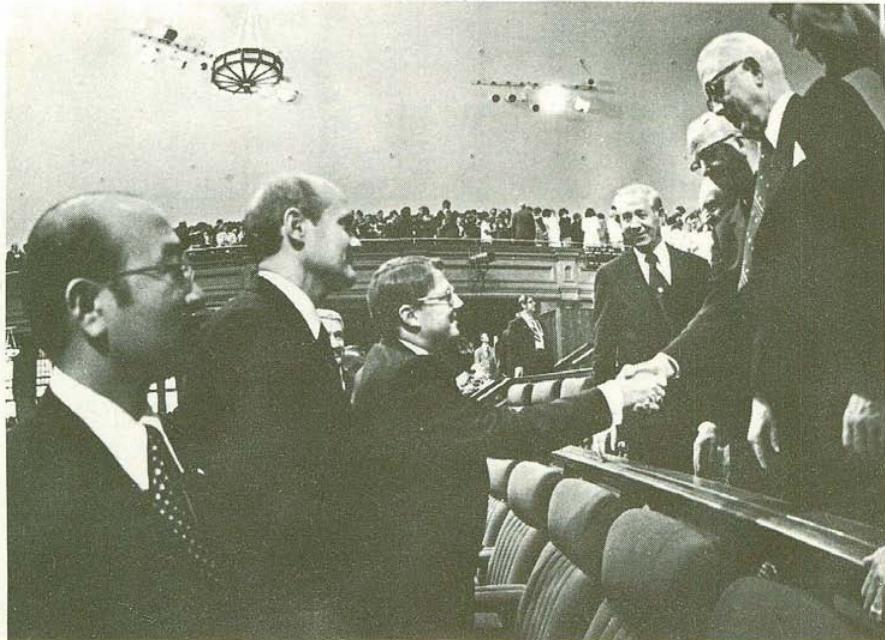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가졌던 세미나에서 벤슨 회장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다음의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회원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각자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영원한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성취했읍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명예롭게 되고 축복받았읍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이 성스러운 부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나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축복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는 것과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신성한 복음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간증과 봉사의 기회에 대하여 내가 보

였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전 생애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나의 생애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칩니다. 킴볼 대관장님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와 아내는 여러분이 보내려고 하는 곳은 어디나 가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백성을 성결하게 되도록 하며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지니시고 오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사탄이 끌이고 모든 무릎이 끓어 절할 것이요 모든 혀가 (교성 88 : 104 참조)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며 영원히 권세를 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대비하여 길을 예비하는 총판리 역원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돋기 위해 주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좌로부터 기꾸찌 장로, 부쉬 장로, 피노크 장로, 스미스 장로, 컬리모어 장로, 리차즈 장로, 실 장로, 스토운 장로.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임

렉스 시 리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영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으며, 나의 영혼도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영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내가 젊은 감독으로서 지지받을 때 어떤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산 표로 내가 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나보다 먼저 모든 생애를 이 왕국을 건설하는 데 바치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할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오늘 내가 받은 이런 기회를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섭섭합니다 훌륭한 아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

내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좀 더 훌륭해지고 싶어합니다. 사랑스러운 일곱 자녀와 사랑스러운 다섯 명의 양 아들과 딸 그리고 많은 손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이 항상 나를 지지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수많은 사람—친구들, 교회 지도자 여러분(내가 수년 동안 보아 왔고 존경하며 귀 기울인)과 교회의 훌륭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 있음을 아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의 임무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선교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감사해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되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젊은이의 생활과 이 교회의 훌륭한 새로운 회원의 생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 교회가 침된 교회라는 것을 내가 아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바쳤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는 사랑하는 이 훌륭한 분들이 나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30년 동안 킵 볼 대관장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400만이나 되는 회원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드리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또한 죽은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리스도의 재림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예언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 부를 받은 종 관리 역원에게 사랑과 환영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내가 교회 종 관리 역원의 한 사람으로 지지 받은 때로부터 40년 동안 얻었던 것만큼 그들도 봉사를 통하여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일주일 전에 전기독교계가 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이 지상에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일 중의 하나를 축하했습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분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무덤 속에 누이신 것을 본 사도들이 그 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와 함께 엠마우로 가고 있었을 때 (“저희

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음[눅 24:16]), 예수님은 그들이 그와 그의 생애와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니 믿는 자들이여”(누가 24:25) 그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분에 대하여 간증했으며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웃을 제비뽑는 것까지 그들에게 예언했었던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베드로후서 1:19-21)

예언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사야는 주님이 종 말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말했습니다(사 46:10 참조)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그의 첫번째 오심에 관한 성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그의 재림에 관한 성스러운 예언자의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분이 우리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나는 예언자께서 예언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이 끝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던 무리들에게 했던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사도행전 3:19-21) 이 교회는 성스러운 예언자가 말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는 유일한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교회는 개혁을 신봉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일 따름입니다. 회복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유가 회복되기 전에 구세주의 재림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 성스러운 예언자 중의 한 분의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를 오늘 나의 말씀 주제로 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그 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과 또한 주가 홀연히 그 분의 신전에 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오시는 날을 당할 것입니까?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3:1-2 참조) 그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성스러운 천사와 더불어 오실 때 악한 자는 바위에게 울부짖어 가로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 분의 면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할 것입니다. (계 6:16 참조)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성전이 부서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주님의 재림을 의미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난리

와 난리의 소문과 질병과 지진과 기근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시는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였읍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님께서는 그의 오심을 늦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밤중에 도둑과 같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있으며 하나는 벼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벼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 24:37-41 참조) 이런 모든 것은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는 보내어질 사자를 보았으며 주님이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사자는 바로 예언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정의 시기에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실 사자인 침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침례요한 보다 더 큰 예언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28 참조)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그러면 그러한 회복을 받아드릴 예언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말했듯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성스러운 예언이 성취될 만유를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언자야 말로 요셉 스미스였으며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지시와 성스러운 인도와 권능으로 이 위대한 교회—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말일에 구세주의 재림에 관한 준비에 대해 말라기가 이야기한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읍니다. 그는 그것이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 (말 3:8-10 참조) 이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말일에 이스라엘에게 제안했읍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그들의 과실이 기한 전에 펼어지지 않게 하고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말 3:11-12)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읍니다. 우리의 선조 개척자들은 문명 사회로부터 1,600킬로 미터나 먼 곳으로 여행해서 이곳 황무지에 정착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사막을 장미처럼 피어나도록 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사 35:1 참조) 그는 또한 사막에 강이 흐르고 높은 데서 흘러 내려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사야 41:18 참조)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그의 약속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의 자녀들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수십만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그 중 25,000명은 현재 봉사 중)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복음의 회복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이는 그 분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도시, 내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아름다운 건물 등,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짓는 것 같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정이 필요한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읍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계획 중에 있는 신전

을 포함하여 신전은 모두 스무개가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전을 짓는 백성이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신전을 건설하고자 하더라도 그들은 이 신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라기가 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말라기가 엘리야의 오심을 보았을 때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전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성 2:3참조)

벤슨 회장



조)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하여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커트랜드 신전에서 1836년 4월 3일에 엘리야가 와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이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즉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엘리야가 가져다준 결과로서 우리는 이 모든 거룩한 신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보 조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도시에 계보 도서관을 짓고 도시 밖의 산 속에 거대한 지하 저장소를 만들었는 데 이는 실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을 저주로 치시지 않도록 엘리야의 사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기 위하여 옛 경전과 현대의 경전을 읽고 연구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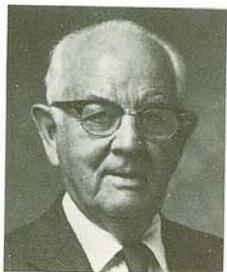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린 말라기의 예언이 복음의 회복에 있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어 교회의 대판장이 되신 거룩한 예언자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우리의 현 예언자이신 스펠서 더블류 킹볼 대판장의 손에 의하여 성취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간증드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 하도록 힘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여러분께서 들으신 권고가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생이 그것에 달려있고 생각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참석하여 리그랜드 리차즈 형제님의 훌륭한 간증과 새로 부름받은 4명의 친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의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간증을 듣고 풍요한 삶을 남을 위해 기꺼이 바친 다른 형제들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조직된 교회 초등협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헤스 감독이 대관장단의 승인을 얻어 유타주 파밍تون에서 최초의 초등협회를 조직하기 위해 오레리아스펜서 로저스자매를 불렀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된 초등협회는 이제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여 수백만의 어린이의 생활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는 회원으로서 초등협회의 혼신적인 교사와 역원의 가르침으로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한 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달에 수백통의 생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초등협회 어린이가 손수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이 훌륭한 어린이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는 자는 오직 이 절손한 초등협회 지도자입니다.

초등협회는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장차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온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초등협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합니다. 주님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초등협회 조직과 유사한 일을 행하는 다른 조직도 함께 축복하셔서 계속하여 변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의 부친과 함께 애리조나주에서 이곳 태버내를까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모든 총판리 역원들의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조셉 애프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지도자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이 하신 말씀과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가운데는 몰몬경과 성경의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말씀이 솔직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의 권고와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졌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인하기 위하여 수세기 동안에 걸쳐 온갖 수단이 동원 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가 미천한 곳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부인하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 예수님은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마 13:55)

이력 저력 해서 거룩한 예언자를 가장 빨리 배척하는 방법은 그의 메시지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를 떠나게 하기 위해 거짓되거나 모순된 구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능변가가 아닌 예언자는 무가치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어떤 사람은 그의 신체적인 위풍이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그의 말씀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을 그가 말하는 진리로 판단하려 들지 않고 그의 음성과 말하는 태도로 판단하여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처음에는 예언자를 경멸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마침내 그들이 예언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경멸하는 예를 자주 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청년(눅 18: 21)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이탈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일, 즉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눅 18: 22)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마 19: 22)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재물이나 영예에 두고 있으므로 그들은 꼭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는 인간의 철학을 좋아하는 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언자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배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슬픈 현상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의 명예, 분수에 넘친 기대,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한다고 추정되는 소수의 설득력 있는 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걸림 돌로 생각했습-

니다. 회합인들 가운데 기독교는 한낱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예언자는 오류에 가득 찬 인간의 방법에 따르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냉담하지마는 않았습니다. 예언자는 처음에는 그들의 사회의 그릇된 방법에 따르기를 거부했으므로 배척당했습니다.

예언자를 배척하는 이러한 변명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성에 대한 시험으로서 비천함에 대한 논쟁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펼차를 비천한 곳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교성 1: 30 참조) 기독교는 로마에서 갈릴리로 전파되지 않았으며 그와 반대의 경로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회복된 복음은 팔마이라에서 파리로 전파되었지, 파리에서 팔마이라로 전파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차를 몰고 지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척하는 그러한 논쟁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예언자는 언제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아들이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졌으며, 다른 유성에서 온 자가 아니며 극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덟 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만형은 끌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있는 전선에서 다윗의 전방진 태도에 대해 크게 화가났습니다. 다윗에 대해 크게 화가 난 자들은 다윗이 왜 끌리앗에 대해 화가 났는지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거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삼상 17: 28-32 참조)

다윗은 시끌 소년이었으며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언

자를 배척하는 것은 곧 배척에 대해 다소 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고전 1:26)

여러 성구를 참조해 보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약하고 멀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사업을 수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예언자를 배척함을 사람들의 강퍅하고 그들이 사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퍅한 마음이 풀어질 때 그것은 또한 교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약 20년 전에 오늘날의 사회에 낙태가 성행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사탄의 병적인 교리와 같이 이처럼 행위는 인간의 육욕적인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언자는 육욕적인 마음에 충격을 주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주 거룩한 예언자들은 “그러게 내가 뭐라든가”라고 말하기 위해 기록을 만드기를 바라는 자로서 잘못 인식되어 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처럼 예언자들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고 또한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의 말씀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친절하시기 때문에 잔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언자들이 인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언자들이 적면한 가혹한 현실과 의무의 위험을 상기해 본다면, 요나는 우리에게 극히 큰 성 니느웨에서 그의 부름에 관해 대강 설명하였습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며 극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욘 3:3) 낮에는 성에 나아가 경고하고 밤에는 바위굴에 숨어 살았던 예언자 이더에 관해서 읽을 때 누구나 적의 성에 매일 들어가 의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더 13장). 우리는 소년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던 예녹에 대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때

그는 자신은 소년이며 그는 말하는 데 능치 못하다고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과 동정으로 그의 의무를 수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세서 6장 참조) 나는 각 시대의 이러한 예언자의 공감에 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록 예언자일지라도 “육체의 가시”(고후 12:7)로부터 면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자의 간증은 경전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간증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종말을 처음부터”(사 46:10)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시대의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는 또한 사기를 사기라고 부르며 횡령을 횡령이라고, 간음을 간음이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회를 끝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주의합시다.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언자와 선견자로 지지하는 자들과 다른 형제들의 말씀을 마치 우리의 영생이 그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써 나의 관심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도의 벗에 실린 연차 대회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드립니다.

과거에 주어진 말씀도 따르기를 바라며 또한 개인 일지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책을 작성하는 자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지 작성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는 방법이며 후손을 위해 이러한 축복의 재산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의 식품으로 쓸 것을 생산하며 정원과 이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정원을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토마토를 재배

하여 그것이 시장 가격보다 더 생산가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재배한 토마토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인간에게 냉혹할지도 모를 수학의 법칙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추수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경작하고 가꾸는 땅이 작고 수확도 적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최초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연과 더욱 가깝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도덕 표준의 이완을 어떻게 보며 도덕의 타락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늙은 사람이나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애리조나 황야를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욱 현명했더라면 우리 자신도 가꾸어야 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쑥대를 뽑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물길을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난폭한 것을 추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 가운데 일을 경멸하는 풍조는 단지 우리의 환경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조잡하고 난폭함이 다시 찾아왔다는 신호가 됩니다. 정직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존엄성과 자기 존중은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여가는 인간을 태만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나쁜 모범을 보이며 의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비웃고 결혼 전의 순결을 낡은 유물로 생각하고 스스로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불어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이기심이 결국 그들을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폐락만을 구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는 커녕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시적인 폐락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성취도 공허감만 더해줄 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수학의 법칙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욕은 이미 가정 생활의 자체와

진정한 종교에 의해 제지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가속도가 붙은 육욕의 눈사태가 올 것입니다. 하나의 항아리가 뮤음에서 빠져 나와 언덕을 굴려 내리면 다른 것도 느슨해져서 풀리어져 나오는 것과 같이, 동성애, 부폐, 마약, 낙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유행도 처음에 제지되지 않으면 후에는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이 불행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타락은 대단한 인기가 있으며 독단적이며 이것은 자유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허용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타락은 곧 이 토양으로 부터 모든 것을 몰아내고 맙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예언자가 하신 말씀처럼 “치료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자는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서만 그 시대의 악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에 엘마가 한 것처럼(엘 4 : 19참조) 더욱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이와 같이 강력한 것이 아니면 안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낙태율이 출생율보다 더 높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적인 출생율이 숫자으로 우세한 것이 합법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될지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이러한 풍조를 받아들여 합법적인 결합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들에 대한 기사를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아래 짓밟고 있을 동안 왜 그려한 자들이 자신의 신원과 진정한 소속감을 알지 못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홀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수학의 법칙이 적용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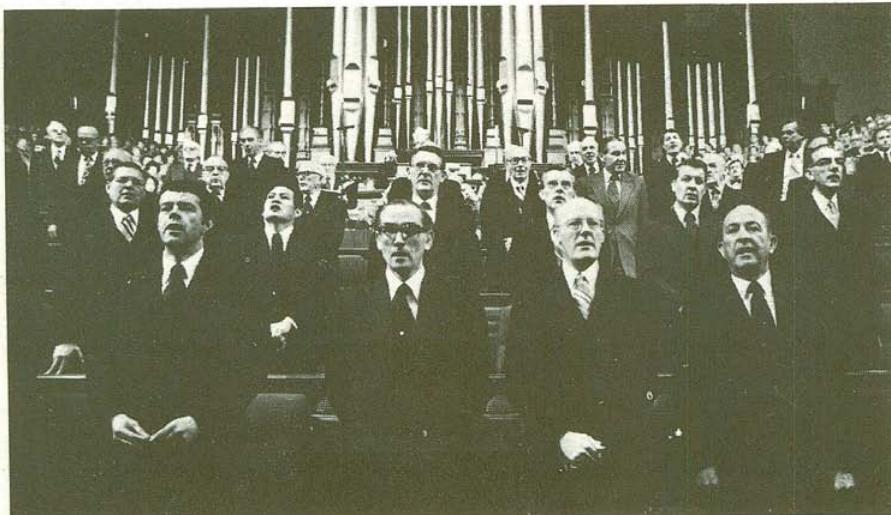
우리는 언어가 점점 거칠어 가는 것을 보게 되며 베드로에 의하면 롯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벧후 2 : 7) 받았을 때 롯이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저속한 대화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성장을 저지 당하여 전달하는 그들의 능력이 점점 더 협소해지는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언어는 음악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음역과 그 질을 즐깁니다. 우리는 더러운 언어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우리의 품위는 저하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 말을 사용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기는 커녕 죄가 대중들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욕에 항복하는 것이며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슬픈 것이므로 의로운 자는 “그리고 내가 뭐라든가”의 태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는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전달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여 세상에 악이 점점 없어지고 행복이 증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진급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여 세상에 증거하

고 겸손하게 말하되 정직하게 말하며, 효과적으로 사려깊게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영원한 지침으로 삼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나는 이 짧고 새로운 네명의 교회 지도자의 잔증이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고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제단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또는 그의 종이 파악하고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기뻤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과 젊은이들 가운데는 교회와 시온에 대한 신앙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귀가하는 가정에는 복음이 함께 하는 진정한 말일성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판리 역원 가운데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1978년 4월 1일, 토요일
복지 모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판장



우리가 긴 안목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최종 목적은 말일의 시온을 건설하는 데 있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 모습과 이 신전 광장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내 마음은 주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에서 함께 하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즐겨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성 76:5 참조)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지도자와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진리와 의무를 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회생과 혁신을 통한 시온의 건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 감독님들은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하거나 봉사할 기회를 주어 그들이 품위와 자립심을 잃지 않고 교회 복지 사업을 스스로 도움으로써 궁지를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회 복지 도움이 순수하게 영적인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으나, 우리가 복지 사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의연금이나 실업 수당과 같은 생각으로 대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근거는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도움받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면에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불쌍한 자를 돌보는 계획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복지 체제와 그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서로의 짐을 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 맷은 성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지 사업의 총 책임자가 되시는 롬니 부대판장은 몇 년 전에 이와 같이 훌륭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변조하려는 온갖 방편으로 수난을 당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불쌍하고 불행한 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어떤 행정 또는 공공 기관에 책임을 떠맡길 수 있다고 오산해서는 안됩니다. 이웃에게 풍성한 사랑을 스스로 내어 줄으로써 만이, 우리는 물론이 특성지운 사랑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47)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대회 보고, 1972. 10월, 115페이지.)

어떠한 “주의”로도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 또는 기타 자선 단체의 원호를 받는 개인에 관한 교회 정책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 회원의 영적,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은 첫째, 그 자신에게, 둘째, 그 가족에게, 세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각자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자립하고 독립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성 78 : 13-14 참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참된 말일성도는 누구도 자신이나 가족의 복지를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말일성도는 그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영적이며 물질적인 생활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능력껏 일하여, 이를 위해 주님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창 3 : 19 : 딤전 5 : 8; 빌 2 : 12 참조)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교회의 각 회원은 정부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 받는 것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독립심과 자제심, 품위와 자립심이 키워질 것이며, 자유의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판리 감독단 말씀, 엔사인, 1978년 3월호, 20페이지에서 인용)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것도 역시 자립심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합리화하여도 자립심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은 변경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이를 놓아 두신 범위 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홀로 작용하나니, 모든 예지도 그러하도다.”(교성 93 : 30) 주님은 여기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성 93 : 31 참조)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데서 나옵니다.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면이나 집단적인 면에서 자립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며 의무입니다.

자립심의 원리는 교회에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현재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여러 면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아직도 겸소하게 생활해 나가라는 충고에 주의를 기울이

지 않는 가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정원에 씨를 심어 여름에 꽃피울 결실을 즐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족 전체의 일로 삼으셔서, 모든 가족에게, 아주 작은 어린이에게라도 어떤 일이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물을 직접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1년치의 음식과 의복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얼마간의 연료와 현금을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분이 합당한 식사법과 건강한 습관을 익혀, 건강한 신체를 간직하고, 생활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와 방법이 가르쳐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정규적으로 금식하고 우리의 능력껏 아낌없이 금식 현물을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처지에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금식한 분량 이상의 금액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의 정신에 따라 생활할 때 이 약속의 원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모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이든 금식의 법을 지키는 즉시 방종파 이기심을 극복하는 힘이 내면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주제에 관하여 빅터 엘 브라운 감독이 지난 복지 모임에서 행하신 훌륭한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과 금주에 절실히 필요한 사랑을 제쳐 놓고 내가 복지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견해를 밝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우리는 이 사업을 행하면서 기울이는 우리의 노력, 희망 그리고 소원 곧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말일의 시온, 즉 사랑과 조화와 평화로 이루어진 시온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사는

시온을 건설하는 데 있음을 배워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은 오늘 날 복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실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리와 성약 58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일의 시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은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 그려므로 너희가 많은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느니라. 그 때는 아직 아니나 가까웠느니라…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대업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로 순종케 하고 너희 마음에 미리 준비를 갖추어 장차 임할 일을 간증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너희로 하여금 기초를 닦게 하며 하나님과의 시온이 세계 될 땅에 관하여 간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후에 나의 권능의 날이 임하리니 그 때에 가난한 자와 절름발이와 소경과 귀머거리가 어린 양의 혼례에 와서 장차 임할 큰 날을 위하여 예비된 주의 만찬을 먹으리라.

“보라, 나 주가 이를 말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58 : 3, 4, 6, 7, 11, 12)

이 날은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날이 이르도록 돋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성스러운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이 날은 여러분에게 결음의 폭을 넓히고 더욱 매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 날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 날은 또한 나로 하여금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때 나와 나의 가족이 봉사하고 희생할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을 기뻐하도록 해 줍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성도들은 시온

의 완전한 경제 계획, 곧 협동 교단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일에서 실족하였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범법 때문에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피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 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요 요구하는 응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 들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 : 3-5)

주님은 또한 시온을 구속하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배우고 훌륭한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편의 계시의 그다음 몇 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과 약속을 되풀이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과 그의 율법에 관하여 준 여러 계명을 시온이 구속된 뒤에 이를 준행하며 성취하게 할지어다.

“저들이 받은 권고를 쫓으면 여러 날 후에 권능을 받아 시온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리라.”(교리와 성약 105 : 34, 37)

“시온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데 요하는 시일은 우리를 자신과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건설이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설교집, 9 : 283) 우리의 교훈을 배우는 데 오랜 시일을 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자들은 알고 있었답니다. 1863년에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을 외면하고 그들 자신의 재물을 구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시기가 예상한 것 보다는 훨씬 더 짧

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설교집, 11 : 102)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온의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빌론, 곧 세상 사람들은 시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결코 시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서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예언자 봄몬에게 우리의 시대에 대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문이라.”(봄몬서 8 : 35, 37)

위와 같은 세상 일의 상태는 주님이 그의 성약의 백성을 통하여 건설하고 있는 시온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가운데에서만 세워질 수 있읍니다. 참으로 욕심이나 탐욕으로 분열될 백성이 아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기심없는 백성 가운데에서만 시온이 세워질 수 있읍니다. 그들은 의견상 순수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시온은 세상에 있으나 육욕과 방심으로 둔화되고 물질주의로 인해 마비되어 버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것은 낮은 반차의 것이 아니며 높은 반차의 것, 즉 인간의 정신을 높여 주고 인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교성 82 : 19)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온은 마음이 청결하고 시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 의해 건설될 수 있읍니다. 이는 “시온의 일꾼들이 시온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리니 저들이 금전을 위해 일을 하면 멸망당하기”(니이 26 : 31)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긴 암목을 갖는 것은 매

우 중요하지만 시온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 만으로는 시온이 전설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회원 각자가 모두 끊임없이 매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온의 건설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고초나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시온이 전설되도록 하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일, 다시 말해서 시온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마음을 위축시키며 정신을 어둡게 하는 자신의 이기심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최근 롬니 부대관장님은 문명의 비극적인 주기, 즉 권세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주기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해”(도서서 5 : 50)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한 것도 바로 이기심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이란…재능에 따라 번영하여 능력에 따라 무엇이라도 정복할 수 있으며 사람은 무엇을 하던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엘 30 : 17) 한 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또한 이기심이 아닐까요? 니파이는 이것이 그의 세대로 하여금 멸망당하도록 한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을 간에 이러한 차별(간악함)이 생기게 된 것은, 사탄이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갖 간악함을 행하도록 선동하며, 교만으로 부풀게 하고 권세와 지위와 부와 세상의 혀된 것들을 탐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유혹하였음이요.”(니파이 삼서 6 : 15)

우리가 그들이 당한 고통을 피하려 한다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또 다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교성 19 : 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초창기의 그의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써 권고하셨습니다.

“보라, 나 주는 커틀랜드의 교회에 있는 많은 자를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저들이 자기 죄와 악한 행위와 마음의 교만과 탐욕과 가증한 모든 일을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저들에게 준 지혜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이니라.” (교성 98 : 19~20)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과 직업에 관한 일에서, 또한 교회의 일에서 이기심을 없애는 것이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복지 사업을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창고 일용품 생산에 관한 임무를 공평하게 지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테이크나 와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다 함께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로 결심합시다.

둘째, 우리는 완전하게 협동하여 일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반드시 만장일치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결정을 내리고 단합된 유대를 갖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교성 38 : 24) 고 권고하신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회원들에게 협력에 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같이 진실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 : 27)

주님의 영이 우리의 노력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려면 단합과 협동의 정신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항상 충실히과 혼신의 노력을 통하여 오는 가장 큰 세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은 결코 개인의 노력이나 진취적인 정신으로 임하지는 않았읍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4부, 183페이지)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지 사업보다 더 많은 협동과 혼신적인 노력을 요하는 교회 활동은 몇 가지 밖에 없읍니다. 실직한 정원회 회원을 위해 지장을 구하려고 함께 노력하는 일이든, 생산 사업을 위해 힘써 일하는 것이든, 텔레벳 산업 공장

에서 작업 책임자로 봉사하는 것이든 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든, 창고 자원 제도의 모든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협동과 상호 관심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단에 올려 놓고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상한 십령과 애통하는 십정”(교성 59 : 8)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명된 임무와 부름을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함으로써 이에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배워 완전히 수행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의 요청에 따라 또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칩니다. 교회에서, 복지 사업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의료운 소망과 모든 사려깊은 동기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이든, 가장이든, 가정 복음 교사이든, 감독이든 또는 이웃이든, 방문교사든, 어머니이든, 가정 주부이든 또는 친구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줄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찬송가, 185장)온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전혀 희생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면 사랑의 의투를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쫓으라. 모든 것이 실족하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로다.”(모로 7 : 46~47)

우리가 이같은 사랑의 유대로 결속되고, 우리가 이 말일의 시온을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고,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도록”(교성 65 : 6 참조)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이러한 나의 간구와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창고 자원 제도

제이 리차드 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직업 알선 봉사, 감독의 창고, 생산 사업, 말일성도 사회 사업, 테저렛 산업, 금식 헌물 및 기타 복지 자원으로 창고 자원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독의 성역에는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성 81 : 5) 해주는 기쁜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드의 아버지로서 감독은 다음과 같은 모든 인간사에 대한 해답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 실직한 가장에게—일자리
- 화재로 인해 집이 불타버린 가족에게—가구와 의복
- 도움을 받은 자로 옥수수를 거두어 들이며 감사하고 있는 회원에게—뜻 깊은 노동
- 미혼모에게—새로운 가정과 사랑하는 부모

-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부에게—임상 전문의
- 열의를 갖고 있으나 고용할 수 없는 회원에게—노동을 통한 존엄성

모든 감독은 고난당한 회원의 세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보살피는 것이 그 회원의 마음속에 “신의 성품”(벧후 1 : 4)의 섭광을 일깨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이 그에게는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영적인 것의 최고의 발전은 물질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에이치 로버츠, 하나님에 대한 물론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페제렛 뉴스사, 1903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는 육신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회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방편을 마련해 주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유일한 참된 교회이라면 교회에는 인간의 영혼의 영적, 세상적,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라는 말을 어느 사람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러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영성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지니고 있었던 성품이 있었습니다. 앤마의 시대에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각각 저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하여 병들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저들이 이렇게 번영하면서 혈벗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르고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은 쫓아 내지 아니하였고”(엘마서 1 : 27, 30)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지방의 교회 회원에게 계명을 주노니, 저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임명받

으리니, ”또 저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교성 38 : 34-35)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인내하시며 우리가 세상적인 구원에 적용되는 원리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1930년대의 무서운 경제 불황으로 교회는 계시로 밝혀진 원리를 적용하고 신권 조직이 우리의 궁핍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복지 사업 계획의 기본 원리는 1933년에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은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복지 사업 계획은 너무나 복잡하였기 때문에 계획을 심의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1936년 10월에 대관장단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복지 사업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대관장단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계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겸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대회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 복지사업 지침서(PGWE 0009 ko), 제1부, 1페이지)

아마 여러분은 나와 마찬가지로 수십 번이나 원리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한 체제, 곧 사람에게의 복과 음식을 제공해 줄 뿐아니라 “영원한 인간은 자립심, 창의력을 살린 활동,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노동, 봉사 활동으로 좋은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지 사업 계획의 장기 목적은 교회 회원, 즉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내면에 좋은 품성을 기르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라는 대관장단의 말씀처럼 중단되지 않도록 균형과 통합이 이루어진 체제를 통하여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지 사업 제도는 확장되어 완전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지금은 창고 자원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 사업의 여섯 가지 기본 원리 즉 사랑, 노동, 자립심, 봉사, 청지기 직분 그리고 현납의 원리를 바탕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이 제도의 도움을 줄 권능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 각자는 이 제도를 위해 자원을 바칩니다.

자신의 임무를 혼자서 수행하는 감독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의 현납의 결과로 그는 이 홀륭한 자원 제도를 통하여 모든 면에 걸쳐 봉사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창고가 단순히 감독의 출고증에 따라 음식과 의복을 얻을 수 있는 일반 창고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필요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창고 자원 제도는 확장되어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일과 자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직업 알선 봉사
- 감독의 창고
- 생산 사업
- 말일성도 사회 사업
- 데저텍 산업
- 금식 현물 및 기타 복지 자원

감독은 현재 의식주와 의료에 관한 도움, 직업 알선, 입양 및 양육 봉사 활동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한 전문의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 계획을 “기초한 선조들은” 자기들이 상상했던 복지 사업 제도의 놀라운 발전을 보고 마음속에 회연을 느끼고 있음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어둠 속에서 앞을 내다보고 회의의 와중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진실로 우리는 인간의 비전을 완전히 볼 수 있었던 예언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봄니 부대관장님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온에 관한 비전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사탄이 묶여 버린 이후의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원과 여기저기에 전 흙웅덩이가 있는 곳을 물려다니는 소폐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폐가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나쁜 품성이 일소되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의 고난과 슬픔과 실망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준비할 수 있게끔 용기를 얻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롭니 부대관장님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구속과 새 예루살렘의 건설, 협동 교단의 시작 그리고 복천년의 도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전에 우리는 거친 길을 걸어야 합니다.” (특별 복지 모임 말씀, 1949년 4월 5일, 13페이지)

오늘날이 바로 1942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이 상상했던 그날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복지 사업 계획이 협동 교단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마 결국 복지 사업 계획이 완전하게 실시될 때에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가 협동 교단의 훌륭한 기본 원리를 실행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을 것입니다.” (대회보고, 1942년 10월, 57페이지)

나는 클라크 부대관장이 이렇게 말한 이래 36년간 복지 사업 계획이 더욱 완전하게 실시되어 왔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10월 대회 때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시며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복지 모임에서 전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나는 문득… 이 위대한 복지 사업

이…재설립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는 더우기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었던 지도자들이…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복지사업에 기여한 공헌과 교회 복지 사업의 눈부신 발전을 되새기면서 나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특히 지역, 스테이크, 와드의 지도자들이 지나간 세대의 이들과 꼭같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복지 사업에 힘쓰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복지 사업 : 실천의 복음”,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14페이지)

김볼 대관장님, 이 세대가 이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진실로 “걸음의 폭을 넓혀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복지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 합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활동 분야의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과 협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공 처리 과정, 분배가 더욱 원활하게 행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권 직업 알선 책임자가 지역 복지 사업 직업 소개소의 직원들과 함께 그들의 노력을 효과있게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 농장이든,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 사무실이든, 데저렛 산업이든 또는 어떠한 일이든 이와 같은 일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다음으로 계획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 자원 제도는 통합된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우리가 그 발전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계획과 훌륭한 판단은 이 제도의 모든 요소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결충을 해야 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 복지 사업 운영의 모든 면에서 관리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복지 사업은 우리에게 기본 원리와 규율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업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과거의 생산과 효율을 훨씬 초과할 수 있읍니다.

그다음, 하나님 왕국의 건설을 위한 협신과 현급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원회 대표와 방문 교사는 감독의 대표로서 곤란 받는 자와 궁핍한 자를 찾는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잉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잉여물은 금식 현물로 바쳐져서 창고 자원 제도를 위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두 끼에 상당한 금액만을 내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가능하면 두 끼 만이 아니라 그 열 배에 상당한 돈을 내도록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대회 보고, 1974년 10월, 184페이지) 부유한 자는 자기 와드와 스테이크의 경계지역 이외의 곳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금식 현물로써 우리는 감독을 통하여 궁핍한 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곧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세주와의 친밀한 교통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영의 지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봉사와 현급과 극기로써 구세주를 여러분의 생활에 받아들여 보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복지 사업 : 실천의 복음,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20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세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복지 사업은 주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진실로 나는 확신 합니다. 이 사업은 파악되었으나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필요 사항까지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읍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복지 사업에 대한 그의 마지막 공식상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읍니다.

“이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현재 제정되고

있는 목적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가 갖추어지는 즉시 참된 목적이 계시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교회의 모든 자원은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고용인 성탄절 프로그램, 1973년)

위험한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재난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의로운 원리에 순종하여 살아야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행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중히 숙고한 후 어떤 의도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은 마치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지상 생활 동안에 있을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신약 교리 주해서, 제1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3년, 675페이지)

순전히 이론으로 속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된 사건을 복지 사업 계획과 관련을 지어 말하는 데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30)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고 자원 제도는 우리가 준비, 사랑, 봉사, 희생 그리고 현급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원리와 사업에 기초를 두고 현재 시온이 건설되어 있읍니다. 나는 우리가 현재 어려운 일을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될 것이지만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을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노년기에 대비함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 모두가 이미 노년에 이른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 하나는 노년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선 라이즈, 선셋—가는 세월은 쏟살같이...”(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1964년)

이 풍자 노래의 가사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묘사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점점 늙어 가는 것을 잊어버린” 두 친구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남자의 나이는 63세쯤 되었고 여자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였으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자는 즉시 퇴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 날인 월요일 아침에 남편은 자신이 직장에 나가도록 그의 아내가 준비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업도, 취

미도, 특별한 관심사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아내를 따라 문으로 가면서, 그는 고민하여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때는 자기 직업의 정상에 올랐다가 훗날에는 노년의 실직자가 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하는 일 없이 지내며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실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의 친구들의 ‘생애에서 생기는 이러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은 자연의 한 과정입니다.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에 대비하여 우리는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기에 대비”, 엔사인, 1976년 12월호, 4페이지)

많은 다른 환경과 요소가 개인의 여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대비하면 당연한 결과로 노년기가 이를 때 노년기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그러나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부터 노년기에 대처하기 위해 훌륭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지혜와 경험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내의 여러 세대, 즉 노인을 포함해서 어린이와 젊은 이와 성인이 지닌 유용한 자질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신중히 세워 가족은 자기 가정의

노인을 돌보아 줌으로써 사랑을 느끼고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모든 사람이 인생의 노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직접 그들의 친척 노인을 보살피는 것을 둘째 함으로써 가르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고 수입이 없어질 날에 대비하여 저축함으로써 재정 준비에 관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를 평생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내던 시간이 교회와 사회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쓰여질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는 봉사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직업에 필요한 때가 지난 후에라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움은 일생을 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은 노년기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매일 균형 있게 음식을 섭취하며, 홀륭한 치아 전강법을 실천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적당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의사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퇴직한 나이에 이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자는 “내가 할 일은 다했어.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차례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화 현상 연구원과 노년에도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퇴직은 사실상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마르타라고 하는 나의 아주머니는 곧 95세가 됩니다. 나는 거의 누구이든 그녀에 뛰어들어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찾아 하는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갖는 모임에 참석하고 교

회의 공과 과제도 맡아 공부하며 반 토론에도 참여하여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때에 그녀는 맨 먼저 자선 봉사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녀가 가져 온 따뜻한 고깃국이 바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것은 음식이었읍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었읍니까?

그녀의 방문 교육 지역에 거주하는 자매들은 그녀가 매달 초순에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신전에 걸 때마다 두세 번 신전 의식 모임에 참석합니다. 또한 그녀는 점안 일과 정원 가꾸는 일을 도우면서 그녀의 계보 기록을 제때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75세 때 남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후 그녀는 단 한번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넘겨 버리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역원은 마르타 아주머니와 같이 노년기에 이르렀어도 유익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의 큰 잠재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에게 관습적인 임무를 줄 게 아니라 그 밖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맡는 일, 그리고 편물, 코바늘 뜨개질, 정원 가꾸기, 빵 만들기, 누비 이불 만들기에 관한 기술 또는 기타 젊은 여성의 종종 배워두어야 하는 기술 등을 소단위 밴에서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제언합니다. 그들은 장님을 위해 책을 읽어 주거나, 가족 및 와드 역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편지를 쓰거나 글을 읽고 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자를 가르칠 수 있읍니다.

시간과 기술을 가진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분야를 그들을 위해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양을 받지 않는 노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부 몸져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쇠한 차이거나 신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노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매일 음식을 날라 주고, 집안 일을 해주며, 시장을 보아 주고, 정규적인 진찰을 받게 하며, 또한 매일 전화 확인 등 봉사 활동으로 도와 줌으로써 집에서 적절히 돌보아 줄 수 있는 노인들이 있는 반면 24시간 보호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종종 가족이 노인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고 있지만 가족과 노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봉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호부조회 역원과 신권 지도자는 이러한 가족과 그들의 노인이 가진 필요 사항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양받는 노인에게는 사랑하는 친구와 방문 교사와 가정 복음 교사의 친절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분주히 일하는 어머니는 마치 어린 자녀를 계속 돌보는 젊은 어머니가 휴식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노인을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중지하고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선 봉사를 하도록 지명받은 상호부조회는 이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노인의 의료 문제와 신체적인 필요 사항이 공공 단체의 보호 조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필요한 때 상호부조회 역원과 신권 지도자는 가족에게 공공 단체에 의뢰하는 조치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공공 보건 기관에 들어간 후에 가족과 교회는 정규적인 방문과 사랑을 표시하여 계속 도와 주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방문 교사 그리고 적절한 경우 특별 요양원 상호부조회 모임은 이러한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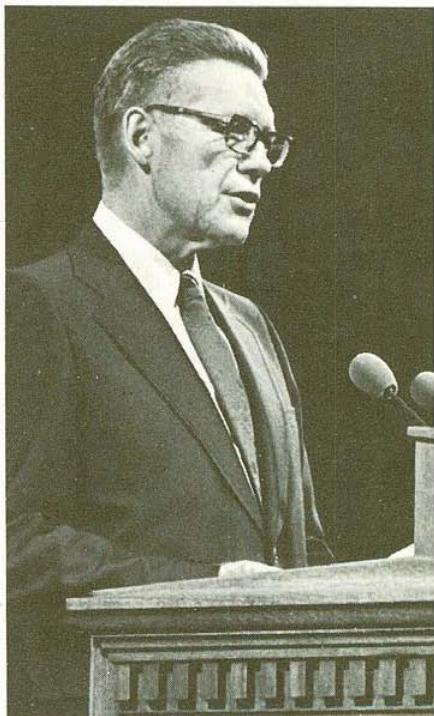
기관에서 생활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대로 “가는 세월은 쏟살같이” 흐르고 노년기는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우리에게 노년기가 이를 때 우리는 선양과 준비에서 솟아난 용기로써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비의 정신으로 노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편 작가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시편 71:9)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



나부터 복지 사업을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40여년간 오래 참으며 우리의 세대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더 이상 달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금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남미에서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무더운 밀림 지대에서 회갈색의 작은 동물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흥미 있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진 앞발과 짧은 뒷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의 동작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 동물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분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 동물이 나무늘보(남미에 분포하여 사는 짐승)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경전에 게으른 자에 대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행동을 더디게 하는 자를 가리키며 경멸하는 태도로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1930년대에 시작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자기 존중의 정신

을 심어 주며, 성도들이 스스로 돋는 자가 되도록 도우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경제제도의 기본 원리는 일찌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었었습니다. 그후 일어난 모든 일은 거의 다 우리가 이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더욱 크게 확장되어야 할 때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에 많은 훌륭한 원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축복의 근거가 되는 윤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복지에 관한 기본 윤법은 금식 헌물을입니다. 우리가 금식 헌물을 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금식 헌물을 냄으로써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빚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재 항상 닥치고 있고 앞으로 또 오게 될 비오는 날에 대비하여 저축해 두십시오. 계약, 근면, 절약을 실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습관을 더욱 기르십시오. “(대회보고, 1937년 10월, 107페이지)

“모든 가장은 최소한 일 년분의 식량과 의복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비축해야 합니다. ...정원이 있는 사람은 정원을 잘 가꾸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잘 가꾸시다.” (대회보고, 1937년 10월, 107페이지 : 대회보고, 제2권[1973년—1975년], 1973년 10월 “준비하라”, 50페이지)

“현금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복도, 석탄과, 대피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관해 둘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물건을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할 수 없읍니다...여러분이 확실히 갖게 될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일한 생각을 깨끗이 없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마에 땀을 흘리어 땅을 것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따라야 할 윤법입니다.”(대회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저축한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을 아직도 기꺼이 자제하여 중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들은 월부로 물건을 사들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대회보고, 1948년 4월 117페이지)

자매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기뻐하실 것입니다.”이 교회에 상호부조회 없이도 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있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임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호부조회 없이 일해 나가고 있으면 그는 자신의 임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회보고, 1948년 4월, 177페이지)

말씀 도중에 알려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호부조회 회관에 마련된 가정 비축제언, 비상시에 대비하는 방법 제언 등에 관한 전시회는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과 신권 소유자가 함께 송영을 얻게 합니다” 여성과 신권 소유자는 복지 사업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협동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현재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해롤드 비 리, 복지농업 모임, 말씀 1917년 10월 2일)

리 대관장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가르쳐졌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을 위해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회원이 각자 자신을 위해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활발히 진행되기 전에 이 사업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가정에서부터 정원회로 옮겨서, 다시 말하면 모두가 협동하는 단체 활동으로 전개할 때…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해롤드 비 리, 복지 농업 모임 말씀, 1969년 4월 5일)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 즉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바치는 완전한 헌법의 경지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기원합니다.”(해롤드 비 리, 복지 농업 모임 말씀, 1968년 10월 5일)

론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며 그 과정 또한 끝 것입니다. (교성 1:16 참조)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온은 그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일, 그리고 성실한 노동의 원리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건설을 준비하는 우리는 교회의 복지 사업이 그 근거를 둔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노동의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되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대회보고 1976년 4월, 169페이지 ; “교회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116페이지)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교회 복지 사업에 봉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는 이 복지 사업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협동 교단에서 요구하는 현급의 법과 청지기 직분의 재수립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 있어서 위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대회보고, 1977년 4월, 118페이지 ;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7페이지)

형제 여러분, 지도자에게 준 앤마의 훌륭

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그 제사들(지도자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하여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도 18:19) 우리도 이와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은 룸니 부대관장님이 오늘날 교회에서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훌륭한 권위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룸니 부대관장님은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다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지 모임의 주요한 말씀은 지난 5년 동안의 대회를 위해 편집된 “엔사인”과 “성도의 벗” 등 교회 잡지의 대회 특집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복지 사업 프로그램 중 예방에 관한 모든 일은 정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실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지원을 받아 다시 자립하는 교회 회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6개월 전 힙클리 장로님이 아름답게 설명해 주신 신권 정원회의 사업입니다. 정원회는 연약해진 회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독단에게는 물론 아론 신권 정원회 지도자에게는 50만이 넘는 청소년 형제 자매에게 복지 사업 원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청소년이 “할 일이 어디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접사가 금식 혈물을 수집하는 일 이외에도 복지 사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론 신권 정원회 지도서와 활동안내서에 제언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활동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십시오. 청소년이 가정 비축과 복지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있는 방법을 제언하여 드리겠습니다.

식량과 물을 저장하고 보존하며, 멜나무를 만들고 선문지로 통나무를 만들며, 가정

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가정 채소밭을 만들고, 퇴비 더미를 쌓고 옥외 저장실을 만들며, 유실수의 나무가지를 쳐서 다듬고, 장보기 대조표를 만들고, 적절한 음식 섭취법을 익히고, 물고기나 고기를 요리하며, 집 청소를 하고, 전선을 수리하며, 수도꼭지를 갈아 끼우고, 실내외 페인트 칠을 하며, 가사 기술을 자랑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 제언마다 흥미 있고 유익한 다른 계획에 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간단히 이러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한 가지 주의, 곧 경고의 말을 하겠습니다. 계으름과 나태에 관한 말은 경전에 25번이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행동을 더디게 하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늘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동물은 아주 느리게 손을 내밀어 나뭇잎을 만 후 처음보다 더 느리게 그것을 가져 와 자기 입 속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나무늘보를 지켜 보았을 때 성급함, 초조, 격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 계으름과 나태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은 행동을 더디게 하는 자, 곧 계으른 자들을 그가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에 대해 더 참으실 수 없음을 설명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40여년간 오래 참으며 우리의 세대에게 헌신해 왔습니다. 더 이상 달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복지 사업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참으로 지금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영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승영은 우리가 이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이 사업을 행하기를 결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매일을 하루 같이 영적인 모임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이 안식처가 바로 메저렛 사업장입니다. 메저렛 사업장은 구세주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곳이며 복지사업의 가장 흥미로운 일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흥미롭다고 한 것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훌륭한 분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필름 상영〕

이제 여러분께서는 왜 이들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신앙심, 자기 존중, 결심 등에서 이들이 보인 모범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메저렛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세 아들 중 장남에게 왔습니다. 그는 서른 한 살이며 태어날 때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부 손상으로 근육 운동이 부자유스러워졌고 언어 장애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정상입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마이크에게 걸리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량이 넓고, 매사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리분별이 정확하며 항상 선한 사람됨에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교회에 개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메저렛 사업장이 완공될 무렵에 감독님은 마이크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아내나 나는 마이크를 다른 곳에 데려다 놓고 혼자 두고 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으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상의한 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마이크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

사랑의 안식처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메저렛 산업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호소

오늘 아침 나는 이 복지 사업 모임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복지 사업의 한 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직과 이곳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주는 자나 받는 자는 모두 구세주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 주는 이 특별한 곳을 “사랑의 안식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존심을 회생시켜 주는 곳이며 훈련, 기술, 적성 등의 부족함이 핸디캡으로 여겨지지 않는 곳이며,

정신적, 육체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사랑과 보호의 손길로 대우받는 곳이며, 비록 보잘 것 없는 일이나 남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가치있고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는 곳이며,

음에 마이크는 구두 염색 일을 맡았으나 구두보다는 자기 옷을 염색하곤 했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접시 닦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일도 여의치 못해 많은 그릇을 깨었읍니다. 현재 그는 단추 짹는 일을 하며 한 시간에 80센트를 받고 있읍니다. 시간당 80센트 째리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간당 80센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단추를 짹겠지요. 그렇지만 데져렛 사업장에서의 의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유용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면 데져렛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귀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일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곳에서 행하는 일 모두가 개인의 참가를 깨우쳐 주는 일입니다. 메사 데져렛 사업장에서 채택한 노래에도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읍니다. 아침 영적인 모임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함께 “Let me call you sweet heart”라는 노래를 부르며 일자리로 갑니다. 서로 팔장을 끼고 걷는 어른들에게서 여러분은 심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머리 대져렛 사업장 지배인 짐 크레그 형제가 그의 아들이 속한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지진아들이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읍니다. 마지막 순서로 동고증을 갖고 있는 자매가 독창을 하였습니다. 크레그 형제는 그 자매가 머리 데져렛 사업장 합창부에 속해 있었으므로 노래를 잘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장의 70이 넘은 한 형제가 그녀의 천부적인 음성을 인정해 그녀와 아주 가깝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읍니다.

그 자매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청중석에 있는 크레그 형제를 보았읍니다. 그녀는 뒤에 계신 저분은 우리 데져렛 사업장 지배인입니다.”라고 소리쳤읍니다. 그녀는 회중에게 데져렛 사업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

장 훌륭한 곳이라고 말했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녀가 부를때 아무도 데져렛 사업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읍니다.

1938년 5월 데져렛 사업장이 문을 열었읍니다. 대관장단은 의복, 가구, 기타 생활 용구 등 잉여분이나 중고품을 데져렛 사업장에 보내서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재생하여 염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장을 제정하였다.

실업자 구제가 데져렛 사업의 근본 목적으로 보이나 그것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주자는 목적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데져렛 산업은 수선하고 재생할 물건을 계속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재생된 물건은 염가로 판매됩니다.

여러분께서 40년전 데져렛 산업이 시작된 이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1978년 3월 1일자로 22개의 데져렛 사업장에서는 1,700여명의 신체 장애자들이 일하고 있읍니다. 총 수입의 60퍼센트가 이들의 임금으로 지출됩니다. 현재 유타, 아이아호,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이 있고 곧 오레곤, 콜로라도, 네바다에서 사업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데져렛 산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테에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데져렛 사업장을 갖게 되거나 현재 갖고 있는 지역의 회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길 것을 부탁드리며, 둘째, 현재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의 지도자께서는 이러한 사업장을 여러분의 지역에 조직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황을 잘 분석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합당한 신원 계통을 통해서 본부 복지 사업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의 제한된 회원 수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완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토론한 이상의 원리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가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노원 보호실에서 마루 바닥만 내려다 보면서 소일하면 늙은 형제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를 떡하게 여기 어느분이 헤쳐 렛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읍니다. 그의 손에 큰 빗자루를 들려 주고 한쪽 복도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밀어가면서 쓸도록 부축해 가며 가르쳐 주었읍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면 다시 쓸어 나가게 했읍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는 그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는 복도 이외의 곳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벽을 보게 되었고 창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곧 그에게는 다른 일이 주어졌으며 그는 그 일도 잘 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에게는 자기 신뢰와 존중심이 회생되었습니다. 그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훌륭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로서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벤슨 회장과 피터슨 장로



주님의 방법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감독의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정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감독들은 회원들의 의식주에 관 한 문제보다는 그들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해야 할 책임이 더욱 증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나 세상적인 복지의 원리는 정서적인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2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제으론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 : 29)

복지 사업 지침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그들의 능력한

도 내에서 자립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한다. 진정한 말일성도라면 아무도 자신의 부양의 짐을 자진해서 벗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전능자의 영감을 받고 스스로 일할 수 있으면, 그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1952년 2페이지)

우리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자신이 해결하고, 자립할 수 없는 자들의 복지를 위해 도우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상당한 성공을 견우었습니다.

만일 어느 회원이 자립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의 가족에게, 둘째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남용을 피하라고 감독과 스테이크부장들에게 권고했읍니다.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명령인 깨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 : 42 참조)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자립을 일깨워 주는 법칙이 되어왔습니다.

1930년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최초로 발표되었을 때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계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질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겸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돋는 자를 돋습니다.”(대회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종종 사람들은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매력을 갖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안정에 매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돋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침례에 대한 열성이 어떻게 시들어가는가를 아는 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저 공짜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자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자원에 대한 세밀한 목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후에야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자에게 그가 받은 도움의 한도내에서 노동으로 그 댓가를 요구하는 감독은 불친절하거나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회원은 조금도 수치감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가 받은 도움에 대한 충분한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 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회 회원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볼보는 책임을 면제시키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대회 보고, 1974년 10월호)

자립 또는 독립의 원리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요지는 이와 동일한 원리 즉 자립은 영적 및 정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식량, 의복 가능하면 연료까지도 가정에 비축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예배당에 저장 창고를 설치하고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회원은 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하여 교회로 올 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영감과 계시와 문제 해결과 조언과 인도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독의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각 가

정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때 어려움을 겪듯 영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세대 동안 물질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것처럼 우리는 정서적인 힘을 기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질병보다는 우리로부터 더 많은 힘을 앗아가는 감기와 같이 교회로부터 영적인 힘을 앗아가는 “상담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복지 사업의 도움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나 어떤 감독은 회원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지도 않고 조언과 충고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병에 걸려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조언을 구하지만 주어진 조언에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때때로 접견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은 나의 충고를 구하러 왔지요, 당신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내가 주는 권고에 따르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그들은 심히 놀랍니다. 그들은 이것에 관해 결코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들은 그때 권고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남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어떻게 자신을 도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것은 최대의 치료법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감독은 그의 책상 한 구석에 정서적인 문제를 위한 상담 청진서를 가득 쌓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에게 올 때 그는 불행히도 한 마디 질문도 없이 그

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사리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의 양이 커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점점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자립의 원칙과 개인 독립의 원칙을 동시에 강조하지 않고 상담 시간을 늘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서적인 독립과 자립을 잊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보다 더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교리와 성약 9:7-9)

영적인 독립과 자립은 교회의 지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원들에게서 그와 같은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계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온 자에게 그들을 돋기 전에 그들의 개인적인 자원과 가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감독은 결코 무정한 감독이 아닙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적인 문제를 위한 신청 양식”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자원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회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를 따르도록 가르치십시오.

친구나 이웃이나 또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심리학자나 직업적인 상담자나 또는 총판리 역원에게 직접 상담하려고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람의 충고를 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개인과 가족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이 자신의 자원을 모두 활용한 후에 복지 지원을 받으면 수치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는 정서적인 지원에도 또한 적용됩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정서적인 문제는 가족이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를 듣기 위하여 교회는 회원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몇몇의 상담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자들은 오직 올바른 계통을 통해서만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보통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미혼모 문제

양육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

1977년 6월 대관장단은 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신권 지도자에게 지시와 주의를 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임상이라는 제목 아래 나와 있는 업무에 적용되는 원칙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상 업무는 세가지 연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올바른 계통을 통하여) 행해집니다.

첫째, 협의, 신권 지도자는 말일성도 사회사업 대표와 함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회원에 관해 상담합니다. 신권 지도자만이 회원을 만납니다.

다음 단계는 평가입니다. 신권 지도자와 회원이 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의 전문가와 만납니다. 보통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후 신권 지도자는 계속해서 그 회원을 돌봅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치료 단계를 밟습니다. 회원(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은 조언을 얻기 위해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 전문가를 만납니다. 감독은 이러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함으로써 자립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자는 바로 회원 자신입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분의 책임을 전문가나 교회 사회사업 단체의 위축을 받은 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고통을 덜어주고 성스럽게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회원들이 필요로하는 것이 용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쇠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에는 영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을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는 신중하게 다루도록 당부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어떤 상담자는 정서적 영적인 건강 이상

의 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부하기를 원합니다.

일정양의 카타르시스는 건강에 좋지만 그것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분해해 놓고 그것을 다시 결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너무 깊이 조사하거나 너무 오래 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한 부모를 보았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너희는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의자를 식료품 창고로 가져가서 두께 선반에 올라가 크래커 상자를 옮겨놓고 완두콩 주머니를 꺼내 그 속에서 완두콩을 꺼내 그것을 죄구명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감독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감독으로서 나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담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어느 스테이크 부장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은 상담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이것은 자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역할에 관한 우리의 연구 보고서는 대부분의 감독이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시간을 비등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드에서 감독의 영향력은 모든 프로그램에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것보다 오히려 관리 역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 보다 커집니다.

감독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은 각종 모임과 훈련 모임 등 프로그램 관리자의 일입니다.

감독 여러분, 그러한 일은 여러분의 보좌

나 신권 지도자나 보조 조직장에게 위임하십시오. 예를 들면 취업의 필요를 포함하는 문제는 가정 복음 교사와 정원회 지도자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에게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과 꼭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상담 등을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최근에 두 가지 공문이 각 지역에 배부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단위에서 요구되는 개인 신권 접견의 회수를 $\frac{2}{3}$ 로 줄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의 공문은 중요한 관리 모임을 주례와 월례에서 월례와 계간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오는 미비점은 신권 계통을 통해 토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리와 훈련 부문을 여러분이 회원들과 상담할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행하십시오.

감독 여러분, 가장이 그들의 가족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의도로서 자녀와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적도 있습니다.

만일 나의 아들이 상담이 필요하면 그것은 첫째 나의 책임이며 둘째로 감독의 책임입니다.

감독님, 나의 아이들에게 오락 활동이 필요하다면 첫째 내가 해결해야 하고 둘째로 감독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첫째 그것은 나의 책임이고 그후에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먼저 나를 도와주시고 그후 나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나의 책임을 너무 빨리 빼앗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너무 빨리 상담하고 그들의 문제

를 해결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만족의 철학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즉각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정서적인 안락함을 얻도록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바심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으로부터, 분석으로부터, 의약으로부터 너무 성급하게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도전입니다. 근심과, 침울과, 실망과 실패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그들이 때때로 또는 잊달아 불행을 당하더라도 굳게 서서 그것들을 직시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투쟁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상담하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십시오.

경전을 읽음으로서 오는 평안과 안정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경전을 읽을 때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정되는가를 주의해서 살피십시오.

이제 물론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언자 앤마는 감독 여러분보다 더 무거운 문제에 직면했었읍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도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사이야에게 갔습니다.

모사이야는 혼명하게 문제를 다시 그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저들을 재판하지 않고 당신의 손에 넘겨 재판받게 하겠나이다 하는

지라

“앤마가 다시 마음에 근심하며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를 주께 나아가 간주하였으니, 행여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될까를 두려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앤마가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모사이야서 26: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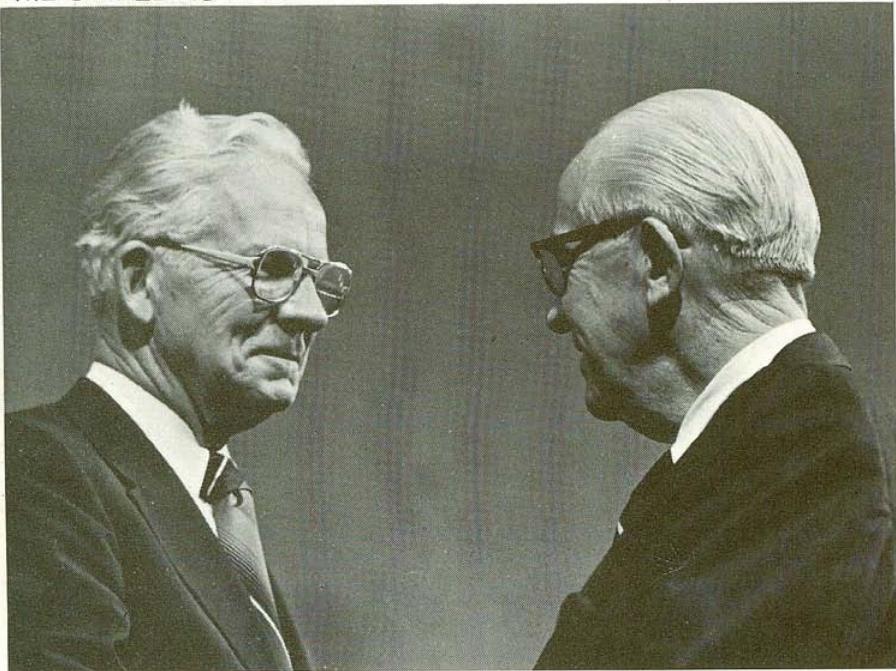
감독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영 감받는 판사가 되어 여러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상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애쉬튼 장로와 벤슨 회장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따를 때”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나의 간증을 더욱 강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나의 일과 나의 노력에 더욱 열중하도록 결심을 갖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언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석했으며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감독님이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참석하시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곳에 참석하는 스테이크 회장이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크 부장이 계시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킴볼 대관장님 여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그들의 의무를 배울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이러한 대회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확실히 이 사업에 대한 영으로 가득차있읍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가 이 모임을 떠난 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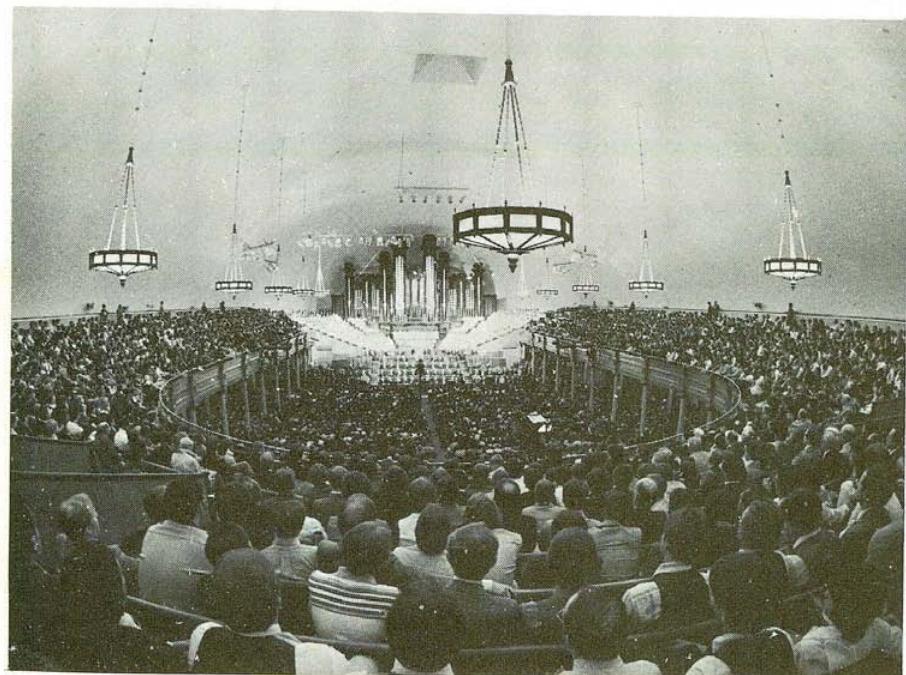


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그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브리감 영 대학의 몬터 앤 빈 과학 박물관 현납식에 참석했을 때 빈형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입니다.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나 교회 지도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모든 것과, 우리의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영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의 원리에 따를 때 모든 일을 가장 훌륭

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킵블 대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복지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이 위대한 사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와 단계는 우리 자신에게나 주님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성도의 벚, 1978년 2월호, 120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지 사업에서 주님을 대표할 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결손히 간구합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최고의 법

매리온 지 룸니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어떻게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굶주린자와 병든 자와 벗은 자와 감금된 자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복지 모임보다 더 훌륭한 모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관리 감독단의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의 업적에 감사드립니다. 복지 사업을 훌륭히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된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주어진 시간에 모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곳에서 들은 모든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우리는 훌륭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법”입니다.

입니다.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 사도 야고보가 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전에 기록한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약 2:8) 우리가 복지 사업을 행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가는 율법으로 여기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 39)

우리의 금식 현금을 바칠 때에도 최고의 법을 명심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여호와께 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은 어찌이오며”

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명한 금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진실로 너희들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굶은 배와 채를 폐었도다. 그러나 너희는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지 아니했으며 가난한 자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지 아니했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와같이 행하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3-9참조)

가난한 자와 신체 장애자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율법을 완수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요건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앱솔레크가 한 위대한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설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 할 것을 가르쳤으며 얼마나 자주(아침, 낮, 밤) 기도하며 어디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

옵니다.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혈액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다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엘 34:17-28 참조)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성역을 마치기 직전에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아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되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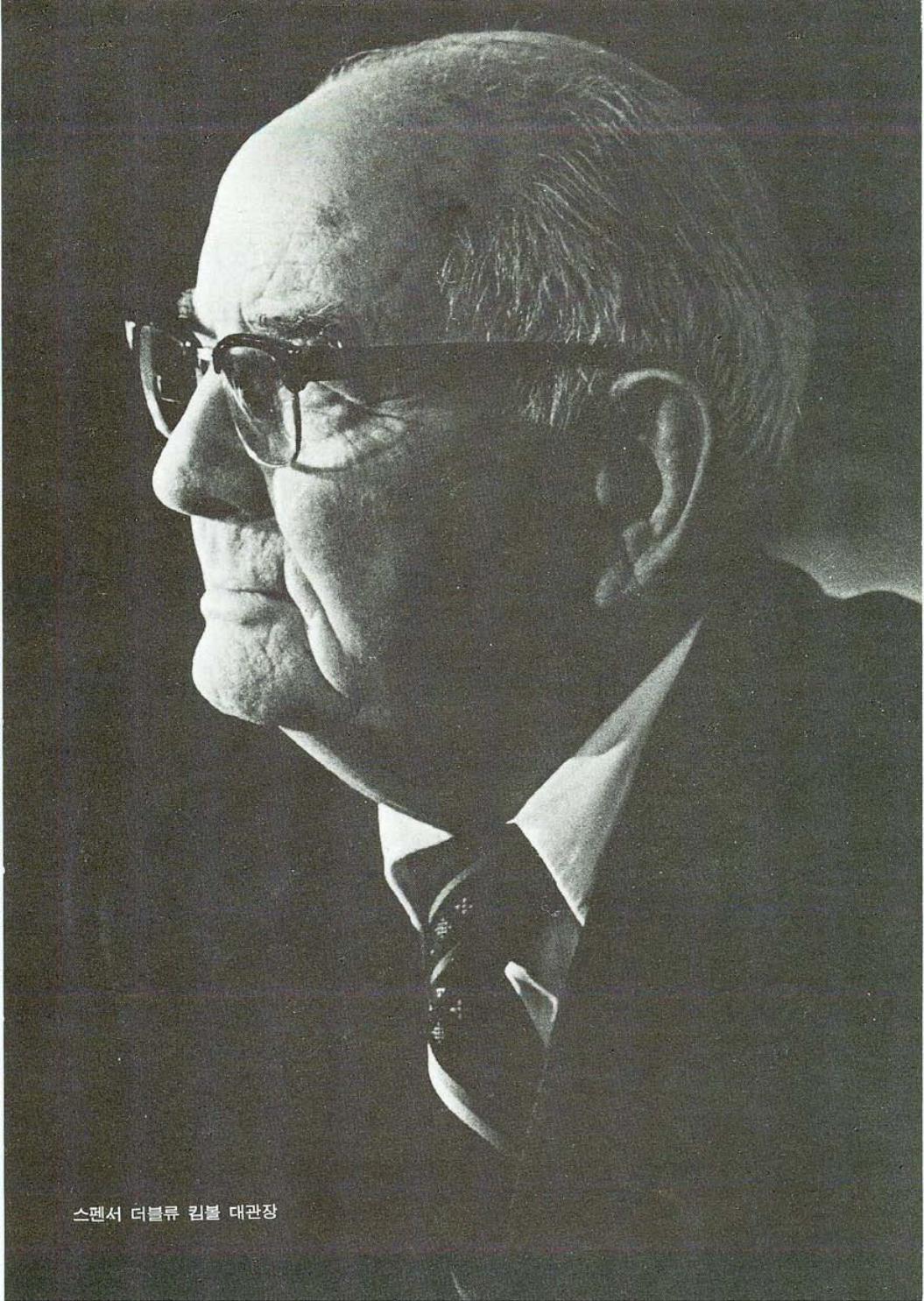
게 한 것이다”(마태복음 25:31-40)

나는 복음이 참됨을 압니다. 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원리에 대해, 의혹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1930년 대에 세워진 복지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그랜트 대관장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의 위대한 보좌이신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와 그의 사람들을 통해 그가 이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르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의 왕국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닥아올 시련의 날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주민들은 주님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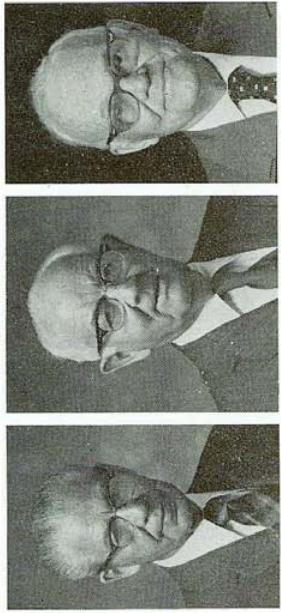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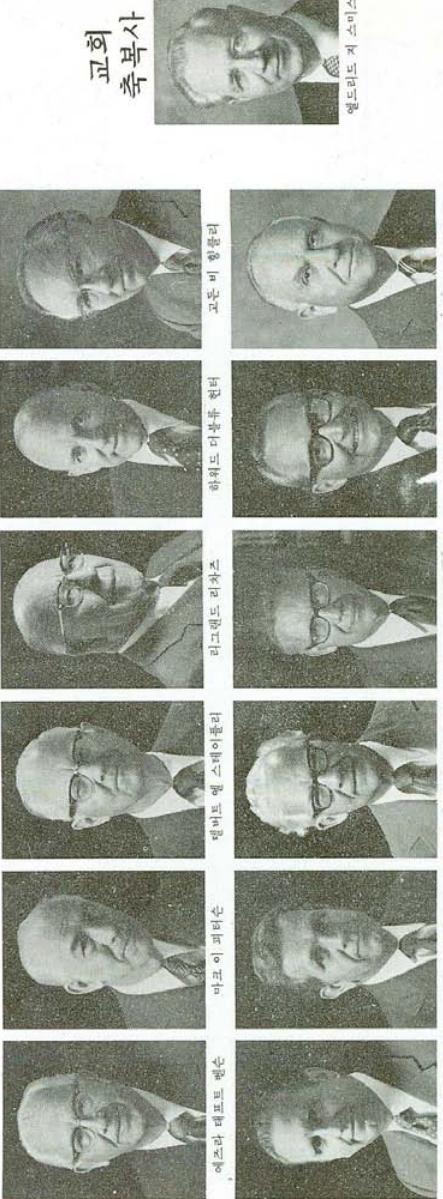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엔.얼顿 티너 부회장
제 1 보좌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변장
제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엘리어드 제. 케이. 스미스

엘.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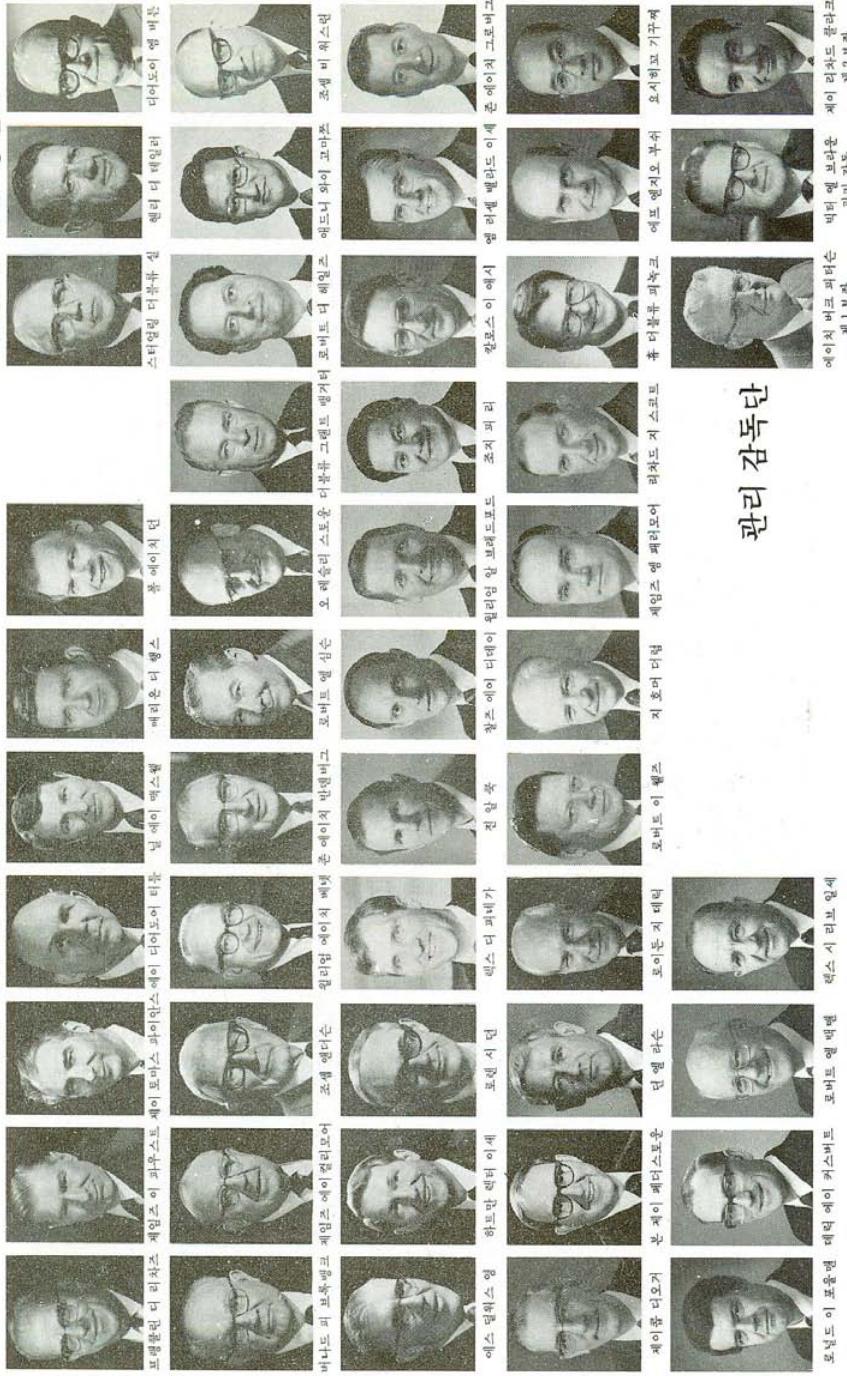
브로스. 앤. 맥콜리

마빈. 케이. 케이스

로이드 케이.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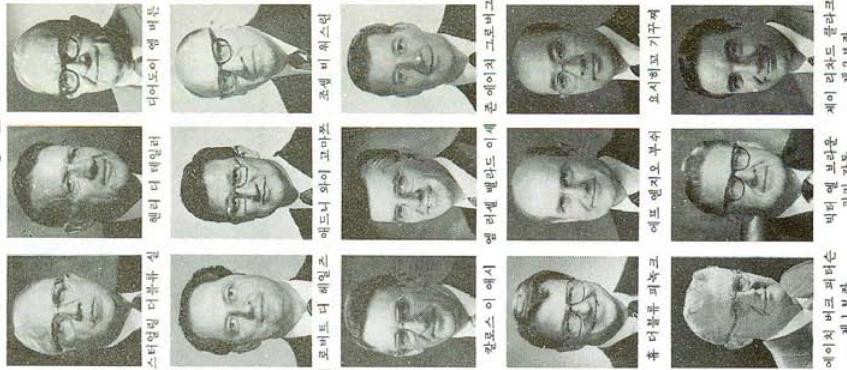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칠설일 제일 정원호



卷之三

칠십일 제일 정우호



1978—79년도 멜기세덱 신권

교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

부모나 교사나 교회 회원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연구하고 있다. 이 도표는 1978년 4월 대회 말씀과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교과 과정과의 관계를 명시해 주고 있다. 모든 공파는 현대 예언자의 중요한 가르침을 참조함으로써 그 내용이 풍부해 질 수 있다.

1978—79년도 가정의 밤

| 과 | 총관리 역원 |
|----|-------------------------------|
| 6 | 리그랜드 리차즈 |
| 10 | 토마스 에스 몬슨 |
| 17 | 마빈 제이 애쉬튼 |
| 19 | 매리온 지 롬니(복지) |
| 20 | 엘 톰 페리 |
| 22 | 스터얼링 더블류 실 |
| 23 | 조셉 앤더슨 |
| 25 | 매리온 지 롬니(신권) |
| 28 | 렉스 시 리브 |
| 29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 헨리 더 태일러 |

1978—79년도 상호부조회

| 과 | 방문교사 메시지 | 영적 인 활 | 가 | 사 | 어머니교육 | 사회관계 | 문화의정수 |
|----|-------------|--------------------------|---|--|--|----------------|-------|
| 7 | 로버트 엘 백먼 | 마빈 제이 애쉬튼 | 스펜서 더블류 김볼(일요일 오후) 널 에이 맥스웰 | | 조지 피리 | 널 에이 맥스웰 | |
| 8 | 조지 피리 | 고든 비 힐클리 엘 톰 페리 | | 스펜서 더블류 김볼(토요일 오후) 오 레슬리 스토운 | 스펜서 더블류 김볼(일요일 오후) 에즈라 태프트 벤슨 | | |
| 10 | | | 에이 더 오도어 터틀 | | | | |
| 12 | | | 에이 더 오도어 터틀 | 오 레슬리 스토운 바바라 비 스미스 | | | |

| 과 | 총관리 역원 |
|----|----------------------------------|
| 1 | 엔 엘든 태너(신권) |
| 8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 10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 13 | 로버트 엘 심슨 |
| 15 | 마빈 제이 애쉬튼 |
| 16 | 엔 엘든 태너(일요일 오전) |
| 18 | 메리 에이 커드버트 : 로널드 이 포울먼 |
| 20 |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 토마스 에스 몬슨 |
| 23 | 엘 톰 페리 |
| 24 | 매리온 지 롬니(복지) : 보이드 케이 페커 |
| 25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 28 |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 매리온 지 롬니(신권) |
| 29 | 매리온 지 롬니(복지) |
| 30 | 마크 이 피터슨 |

1978—79년도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 과 | 총관리 역원 |
|----|--|
| 22 | 마빈 제이 애쉬튼 |
| 23 | 고든 비 힐클리 |
| 24 |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
| 25 | 토마스 에스 몬슨 |
| 27 | 마크 이 피터슨 : 리그랜드 리차즈 |
| 30 | 에이 더 오도어 터틀 |
| 31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 33 |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
| 35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 진 알 쿡 |
| 37 | 제임즈 에이 월리모어 |
| 38 | 조셉 앤더슨 : 빅터 엘 브라운 |
| 39 | 메이비드 비 헤이트 |
| 40 | 마크 이 피터슨 |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우리의 성공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로나, 주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의 말씀은 킴볼 대관장님이 3월 31일에 가졌던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새로운 지역 대표들이 호명되는 것을 들으면서, 또한 세계의 도처에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이런 직책에서 봉사할 기회를 받았을 때 기꺼이 응함으로써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해 줍니다.

정치적인 문제

우선 나는 회원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 문제에 관하여 반드시 토론해

야 할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역 대표, 대관장단 및 십이 사도 여러분과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1968년 9월에 대관장단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 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대관장단에서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감에 따라 교회가 회원들이 살고 있는 많은 도시와 지역 사회의 누적되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일일히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회원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도시와 지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 인류를 위한 폭넓은 사명을 지닌 우리로서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환경에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해결을 요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회원들은 교회의 표준과 일치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헌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교회 회원 개개인이 교회를 대표하거나 떠맡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을 항상 지침으로 삼아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 사도는 1968년도의 이 중요한 성명을 재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현명한 방침이라고 믿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대관장단과 십이 사도 정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일 이외에는

기타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없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공식적으로 수많은 문제에 관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교회의 근본 사명인 회복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교회의 회원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깊이 느끼고 그 의무를 현명하게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역 대표들이 스테이크부장과 기타 지역 지도자들에게 회원들이 국민 개인으로서 수행할 문제를 교회가 관여하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께서 신권 지도자와 회원에게 교회가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돋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일 수도 있으나 이미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조직인 교회보다는 개인인 교회 회원이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대회의 새로운 방식

우리는 종종 대회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과 간증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와드 대회, 스테이크 대회, 지역 대회 및 교회 본부 대회를 갖습니다.

근년에 우리가 가진 가장 영적인 대회는 미국 밖에서 열렸던 지역대회였습니다. 우리는 1979년부터 미국에서 몇 차례의 지역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지역 대회를 통하여 교회의 더 많은 회원들이 만나고 총판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이 사도 정원회의 두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각 대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의 시간, 여행, 금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각 스테이크에서 1년에 두 번씩만 스테이크 대회를 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중의 한 대회에는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총판리 역원이 참석하고 나머지 대회에는 지역 대표가 참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테이크 부장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단순화”가 계으름을 위한 표어나 계으름을 조장시켜 주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회원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신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깊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고 모임을 그런 요구 사항에 맞추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은 신권 지도자가 지역 사정을 잘 검토하여 현재 허용되고 있는 융통성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다면 위대한 자원이 될 수 있읍니다. 교회가 회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지식의 근원으로서 본부 임원이나 위원회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읍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임원과 위원들이 각 지역에 직접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났읍니다.

교회에는 본부 지도자로부터 지역의 담당자에게 통하는 여러 개의 조직상의 선이 없읍니다. 오직 하나의 근본적인 계통이 있으니 이는 신권 계통으로 대관장단과 십이 사도로부터 지구 고문, 지역 판리자,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감독을 통하는 선입니다. 본부 조직은 신권선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돋고 지원하겠지만 우리는 그 신권선에 있는 형제 여러분의 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과제는 회원들이 그들의 수준에서 봉사하기에 충분할만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부에게는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단순성입니다.

각 조직에 배당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와드 예산에서 초과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처럼 감독은 교회 회원들의 시간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예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융통성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돋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힘써 노력하는 것”과 “바쁘게 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원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젖이 필요한 회원에게 고기를 강요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회원들이 승영을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하도록 원리와 프로그램과 신권을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개인으로나 교회 전체로나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의 책임과 가족과 가정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서만 우리는 신권 정원회와 보조 조직, 나아가서 와드나 스테이크도 근본적으로는 회원들이 가정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돋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이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 프로그램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족 활동을 지원해야지 결코 이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돋고 강화시키므로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혹은 친척들을 위하여 신전 축복을 준비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범으로서, 친구가 됨으로서, 간증을 함으로서,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자녀들을 선교사로 준비시키고 교회의 선교사 노력을 지원하므로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각 회원은 재능을 개발하고, 좋은 글을 읽고, 지역과 국가의 문제를 듣고 적절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기능은 튼튼한 가정 환경을 통하여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정원회 회원들이 가장 중요한 신권 부름인 남편과 가장의 직분을 가정에서 증대시켜 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각 신권 소유자가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부인을 영예롭게 하며 아내의 반려자로서 의견을 나누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감독과 스테이크부장과 더불어 그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와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함께 함으로써 충만한 축복을 받도록 도울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상호 부조회 역원과 교사는 어떻게 하면 부인과 어머니가 그들의 신성한 역할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매가 가정을 사랑과 배움의 장소로 만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편이 집을 떠나 있거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지도자 역할을 다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조 조직 지도자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들을 영예롭게 하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임, 연습, 활동 등이 가정에서의 책임을 해치지 않고 진행되도록 계획할 수 있을까요?

가정 중심 복음 생활이 모든 신권 및 보조 조직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가정 생활의 초점을 흐리게 할 활동이라면 일부를 줄여 마땅합니다.

우리는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 멀어져 살고 있거나 복음 원리에 득실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언제나 부모, 형제 자매 기타의 친척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주는 특별 가정의 밤이나 지역 독신성인 활동에 참여 할 것을 권고 합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 절약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드립니다. 부모는 클럽, 보울링 경기장, 연회장 사교 모임 등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젊은이는 학교 활동, 사교 활동 및 가족 활동

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을 거하고 싶은 장소, 들판 배우는 장소, 상호간의 사랑, 협조, 이해 및 격려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성공은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주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보

복음 생활의 중요한 일면으로 신전 및 계보 사업의 참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가 지상에서 의식을 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 많은 영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보파에 계보 절차를 단순하게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회답을 보내왔으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검토한 후에 그들의 전의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지역에서 마이크로 필름 기록에서 이름을 찾아냄으로써 계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전 이용을 도모하고 전체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신전과 계보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이 계획을 승인합니다.

선교 사업

우리는 태초로부터 선교 사업에 종사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 육천 년 동안 개종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동반자와 함께 통산 오십만 선교 년도에 상당하는 전도 사업을 해왔습니다. 오십만 년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 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예멘 동산에 있었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읍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을 흥수 가운데서 구했읍니다. 문명은 미시시피강으로부터 아라랏트 산으로 옮겨졌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인에게 천문학을 가르쳤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홍해를 건너 인도했읍니다. 리하이는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읍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했읍니다. 미국 독립 전쟁이 이 땅에 자유를 가져 왔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복음을 회복하는 도구로 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 해마다 거의 16만 내지 17만 명을 침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스칸디나비아인, 영국인, 독일인 등 십만 명에 달하는 성도를 286개의 배로 시온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대양을 건너 미시시피강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인트 조셉을 향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 갔으며 마차를 타고 서부로 계속해서 갔으며 나중에는 기차로도 갔습니다. 교회는 극적인 성장을 이루하여 육 명에서 사백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선교사를 지원하는 실제적인 경비는 일년에 약 1872달러이며, 그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일년에 오천만 달러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을 선교 사업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봉사에 궁지 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이의의 국가에서도 거의 4천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선교사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시는 깊고 넓은 지식을 개발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그 분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전파 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엎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라야 네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 : 21)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그들의 고유 언어로서 배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언어를 구사하는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힘든 노력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족들에게 임하실 성신의 관리로써 성임되어 이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제작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0 : 11)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자 아니 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청蠹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교리와 성약 1 : 2, 14, 20)

왕, 통치자, 군주, 요인들도 복음을 듣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나라. 세상의 왕들아, 나아오라. 나아오라. 너희 금은을 가지고 나의 백성을 도우려 오라. 시온의 팔의 집으로 오라.”(교리와 성약 124 : 11)

이 백만 가족과 그 자녀들이 합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 사랑, 기쁨, 주님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새로운 선교부를 열기 위하여 특별 대사로 일할 레이빗 엔 케네디 장로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각료들과의 친분과 풍부한 경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줍니다. 국제 선교부장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기도 밤도 낮되게 하니… 기도 잊지 말아라.”(찬송가 121장)

황제, 왕, 국가 통치자 여러분, 오셔서 자물쇠를 푸십시오. 우리의 선교사는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대사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와 기쁨, 행복과 만족에 넘치는 백성을 여러분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몸소하시기도 하고 성신의 은사로써 선포하기도 하여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같이 모든 일은 거룩한 의식으로써 아담에게 수여되었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은 끝날까지 세상에 있어야 하리라 공포되었더라, 참으로 그같이 되었더라. 아멘.”(모세5 : 58-59)

우리가 선교 사업을 행하는 동안 2만 5천 이상되는 선교사들은 곧 복음이 그들의 간증과 더불어 전달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교리와 성약 62편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간증은 하늘에 기록되어 천사들이 볼 것임이라. 천사들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함받았도다.”

“최근에 우리는 어느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 분의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돈을 모았으나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당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저축한 돈을 나 자신을 위하여 쓸 권리가 없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그 아이와 그 아버지는 3년 전에 17세의 나이로 죽었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고였습니다. …그들은

사슴 사냥을 가고 있었는데 커다란 유조차가 급속도로 달리면서 그들의 노선에 뛰어들어 차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희생의 모범을 보는듯 합니다. 1830년부터 약 25만 명의 선교사가 배출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책임과 함께 선교 사업에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호소에 훌륭하게 응해 주신 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에는 156 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전해지는 이 놀라운 노력을 계속 지켜주시고 더욱 증가시켜 주십시오. 현재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9세 연령의 소년이 3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후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제사가 114,000명이나 있습니다. 4년 내지 5년 후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14세에서 15세의 교사가 83,000명이 있습니다. 12세에서 13세 사이의 78,000명의 집사들이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으며 지금부터 6년 내지 7년 후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사류엘 클레릿지 형제님이 주셨던 축복사의 축복에서 인용구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나 특히 레이맨인에게 전파할 것인 즉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통번의 은사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원칙을 지극히 단순하게 그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하실 것임이라, 그대는 그들이 조직되는 것을 볼 것이며 이 백성들의 둘째에 방벽처럼 설 것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의 주위에 있어서 그대가 맡아 힘써야 할 환경에 처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줄 것인 즉 이는 그대가 우리의 원수의 분노가 이 백성들에게 향하여 넘치는 때를 보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그대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전될 것이요 원수를 가운데 혼란과 재난을 가져올 능력을 지니게 되리라, 따라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스펜서 형제여 그대는 젊은

시절에 번영하고 그대가 접하게 될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아 그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서게 될지어다.”

레이맨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과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는 거의 50만 명의 레이맨이 있으며 이중의 316,000명은 미태록에, 94,000명은 바다의 섬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사진을 보내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레이맨인 선교사가 있나를 여러분이 알면 놀라시리라고 생각했읍니다. 수많은 훌륭한 젊은 남녀 레이맨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부로부터 레이맨인 선교사들의 사진과 함께 수많은 카드가 오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선교사의 사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숫자의 레이맨인 선교사가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도 거의 다 꼽을 수 있는 수였읍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레이맨인인 회원 수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러나 생활이 바뀌고 조건이 변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한 아들을 얻을 것인 즉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천사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숫자의 선교사로서 금년에 167, 939명을 침례 주었읍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수를 배로 늘림에 따라 개종자의 수도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 사업을 성공시킬 많은 다른 방편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업이 더 많은 일꾼과 더불어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빨리 진척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남북 아메리카를 다 채울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월포드 우드럽 설교집, 저, 호우며, 더램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 크래프트, 1946년 144-145 페이지 참조)

또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점점커져서 온 세상에 펴질 것입니다. 지상에는 시온이 되지 않는 구석이나 모퉁이가 없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4년, 120 페이지 10장 제6편)

형제 여러분, 이 위대한 대업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끊임 없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

는 저의 보좌들과 심이 사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매우 만납니다. 우리는 신전에 있을 때와 주님의 사업을 계속할 때 매우 진지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끊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칩니다.

이제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사업이 수행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것이며 결코 전에는 행해지지 않았던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행할 일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업을 위하여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8월 12, 13일 제 1 와드에서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의 감리하에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저녁 6시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는 남 영진 부장과 최 동현 부장이 스테이크 선교 활동과 가정 복음 교육과 가정의 밤 현황에 대해 말하였고, 기꾸찌 장로는 모든 성도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가진 토요일 대회에서는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이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기꾸찌 장로는 1951년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한국이 복음 전도 지역으로 현급된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멕시코에서 성공을 거둔 효과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했다.

13일 오전 10시 일반 총회는 비가 오는데도 많은 회원들이 대회장을 메운 가운데 열렸다.

역원 지지, 신권 승진 지지에 이어 말씀 순서가 진행되었다. 먼저 부산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강 종태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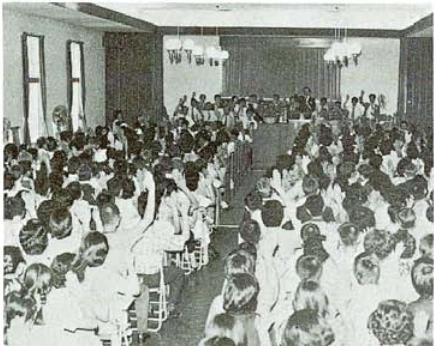
상 : 말씀하는 기꾸찌 장로와 통역을 하는 전 중철 형제
하 : 역원을 지지하는 신권 지도자

가 간증을 드렸다.

기꾸찌 장로는 한국 성도와 한국인에 대한 킴볼 대관장의 사랑을 전하며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더 급속도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선교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대제사 4명, 칠십인 1명, 장로 7명이 탄생하였고 참석수는 1,034명이었다.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대회에 참석한 농아 회원과 수화로 통역하는 선교사



서울 스테이크 청년 대회

지난 8월 1~4일 동안 거제도 해금강 국민학교에서 78년도 서울 스테이크 청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최 동현 부장이 감리한 이 대회에서 경전 읽기, 경전 세미나, 학술 세미나, 간증 모임, 대대별 대항 체육 대회, 수영 강습, 대민 의료 봉사 등 잘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은 신앙과 간증을 강하게 하고 봉사 정신과 협동심과 단결심을 키우며 형제애와 자매애를 두텁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해금강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새삼 깨닫고 모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홍보반이 교회 영화(첫번 시련 등)를 상영하여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였다. 주민들은 대민 의료 봉사 활동과 영화 상영을 통하여 교회와 회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87명이 참석하였다.

서울 스테이크 청년 대회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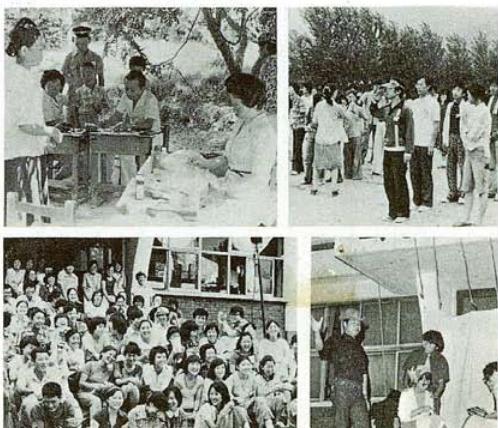


서울 서 스테이크 제 1회 청년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안성군 소재 서운중학교에서 제 1회 청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서의 봉사 활동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복지 농장이 있는 이곳에 장소를 정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80여 명이었다. 이들은 스테이크 농장에서 포도, 사과, 자두 그리고 밤나무를 손질하고 잡초 뽑기, 도로 정비 등 매일 3시간 30분씩 땀흘려 일했다. 또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이신 김창선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은 이곳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행하여 600여 명의 이곳 주민을 무료로 치료해 주어 이곳 주민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마지막 날 갖는 간증회에서는 한결같이 그들이 이 기간 동안 즐겁게 놀았기 때문이 아니라, 땀흘려 노력하며 봉사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참다운 기쁨을 맛보았으며 더 큰 간증을 얻게 되었다고 눈물로써 간증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대회 활동 모습



서울, 서울 서 스테이크 합동 소년 대회 성료

지난 7월 28일(금)부터 31일(월)까지 3박 4일간 서울 스테이크와 서 스테이크 합동으로 경기도 안성 복지농장 근처의 서운 중학교에서 제 5회 소년 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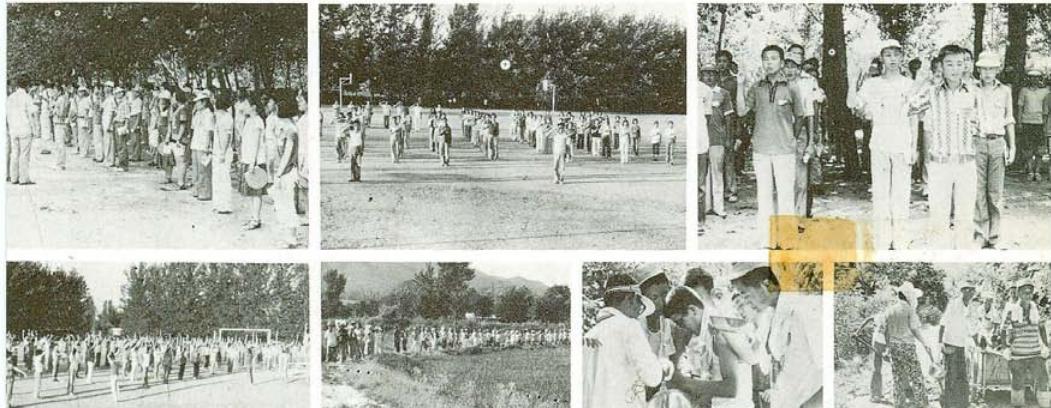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했던 이번 대회에는 150명의 청소년과 49명의 역원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란 표어 아래 정원회 활동 강화와 청소년의 지도자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베이스 활동(소년단 기술 활동 계획), 하이킹, 복지농장 봉사, 지역 봉사, 승영에 이르는 길, 신학원 중등부 프로그램, 축복사의 축복, 시온의 아름다운 빛, 자유 학습 활동, 취침 전 15분간 경전 외우기 등 다채롭고 유익한 활동을 가졌다.

그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 보여 준 순종과 희생과 그리고 의료 봉사 활동의 결과로 안성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다운 정신을 심어 놓았다.

소년 대회 활동 모습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대회 활동 모습

